

2021년 제73차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 초록집

포스트 팬데믹, 한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일시 : 2021년 10월 21일(목) ~ 22일(금)

장소 : 온라인 학술대회, 호텔인터불고 대구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 초록집

포스트 팬데믹, 한국 보건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 ◆ 일시: 2021년 10월 21일(목) ~ 22일(금)
- ◆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호텔인터불고 대구

대한예방의학회

2021년 제73차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

◆ 발행일: 2021년 10월 21일(목)

◆ 발행인: 감신

◆ 발행처: 대한예방의학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80,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 이 발표논문집은 2021년 정부재원으로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2021년 대한예방의학회

제73차 가을학술대회 프로그램

- ◆ 일시: 2021년 10월 21일(목) ~ 22일(금)
- ◆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호텔인터볼고 대구
- ◆ 주제: 포스트 팬데믹, 한국 보건의로 패러다임의 전환

10월 21일(목)

장소 시간	채널 1: 온라인 실시간 (컨벤션홀A)	채널 2: 온라인 실시간 (컨벤션홀B)	시간	채널 3: 온라인 (녹화송출)	E-포스터 & 학생학술상 발표
08:30 - 09:50	■ 심포지엄1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평등과 그 영향 모니터링 좌장 : 김명희 데이터센터장 (국립중앙의료원)		09:00 - 10:30	● 구연1: 만성질환 역학 I 좌장 : 김현창 교수 (연세의대)	E-포스터 게시 (댓글질의)
10:00 - 12:40	■ 심포지엄2 COVID-19의 병원체와 임상 특성, 역학적 특성의 이해, 그리고 유행 확산 양상 파악을 통한 대응 좌장 : 최보율 교수 (한양대의)	■ 심포지엄3 Health in All Policies을 위한 국가 건강정책 방향 좌장 : 김건엽 교수 (경북대의)	10:30 - 12:00	● 구연2: 만성질환 역학 II 좌장 : 권순석 교수 (전남대의)	
12:40 - 13:30	▶ 이사회 (11:50 - 13:30)	▶ 점심시간			
13:30 - 14:00	▶ 개회식				
14:00 - 16:00	▶ Plenary Session 뉴노멀 시대, 새로운 방역전략의 길을 찾다 좌장 : 정해관 회장(대한예방의학회) 발제1 : 국내 코로나-19 유행 대응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정재훈 교수(가천의대) 발제2 : 뉴노멀 시대, 새로운 방역전략의 길을 찾다 - 새로운 방역전략의 길을 찾다 I 이덕희 교수(경북대의) - 새로운 방역전략의 길을 찾다 II 김영택 교수(충남대병원) - 새로운 방역전략의 길을 찾다 III 권근상 교수(전북대의) 토 론 - 오명돈 교수(서울의대) - 임승관 원장(안성의료원) - 김창훈 교수(부산의대) 청중 질의응답		12:00 - 16:00	■ 지도전문의교육 좌장: 김창수 교수 (연세의대)	
16:00 - 16:30	총회	COFFEE BREAK	16:00 - 17:30	● 구연3: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보장 좌장 : 임준 교수 (서울시립대)	
16:30 - 18:00	■ 심포지엄4 백신의 정치경제와 시민의 권리 좌장 : 최홍조 교수 (건양의대)	■ 심포지엄5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현황 좌장 : 박형근 교수 (제주의대)	17:30 - 19:00	● 구연4: 만성질환과 건강증진 좌장 : 나백주 교수 (서울시립대)	E-포스터 게시 (댓글질의) & 학생학술상 발표 16:00-18:00 좌장: 강윤식 교수 (경상국립대의)

10월 22일(금)

장소 시간	채널 1: 온라인 실시간 (컨벤션홀A)	채널 2: 온라인 실시간 (컨벤션홀B)	시간	채널 3: 온라인 (녹화영상)	E-포스터
08:30 - 09:50	■ 심포지엄6 정신건강 코호트 좌장: 임현우 교수 (가톨릭의대)	■ 심포지엄7 기후보건영향평가 지표 개발 좌장: 권호장 교수 (단국의대)	09:00 - 10:30	● 구연5: 지역보건과 공공의료 좌장 : 안순기 교수 (충남대병원)	E-포스터 게시 (저자답변) 09:00~13:00
10:00 - 11:20	■ 심포지엄8 질병관리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전국적 확대 방안 모색 좌장 : 김춘배 교수 (연세원주의대)	■ 심포지엄9 결핵 통합자료원 분석을 통한 근거 창출 연구 좌장 : 임현우 교수 (가톨릭의대)	10:30 - 12:00	● 구연6: 환경 및 유전역학 좌장 : 하미나 교수 (단국의대)	
11:20 - 12:40	■ 심포지엄10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과 해소를 위한 시도의 지역사회건강조사 활용 전략과 방안 좌장 : 박순우 교수 (대구가톨릭의대)	■ 심포지엄11 지역 중심의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시스템 개편방안 모색 좌장 : 나백주 교수 (서울시립대)	12:00 - 13:00	점심시간	
12:40 - 13:30	점심시간				
13:30 - 14:50	■ 심포지엄12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보건의료체계 개혁: 이제는 사회요구에 대한 보건의료체계의 대개혁이 필요한 시기 좌장 : 이경수 교수 (영남의대)	■ 심포지엄13 한국의 암 발생, 진단, 치료, 생존의 사회 불평등 좌장 : 백도명 교수 (서울대)	13:00 - 14:30	● 구연7: 만성질환 역학Ⅲ 좌장 : 신민호 교수 (전남의대)	평가
14:50 - 16:10	■ 심포지엄14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 좌장 : 김건엽 교수 (경북의대)	■ 심포지엄15 정밀의료 시대의 유전체 정보 활용을 위한 접근 좌장 : 박수경 교수 (서울의대)	14:30 - 16:00	● 구연8: 감염병 역학과 관리 좌장 : 이주형 교수 (전북의대)	
16:20 - 17:40	■ 심포지엄16 한국 의료정책결정과정에서 환자 및 시민참여 현 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좌장 : 이원영 교수 (중앙의대)	■ 심포지엄17 건강과 질병의 결정요인과 건강/질병 모형 좌장 : 최보율 교수 (한양의대)	16:00 - 17:30	● 구연9: 지역간 건강격차 좌장 : 박기수 교수 (경상국립의대)	
17:40 - 18:00	폐회 및 심사결과 발표				

발표연제 - 구연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발표연제 - 구연

10월 21일 목요일

구연 1 : 만성질환역학 I / 09:00~10:30

좌장: 김현창 (연세의대)

코드	저자	소속	제목
O-001	김익한 ¹⁾ , 강희연 ²⁾ , 강영호 ²⁾³⁾	1)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이학교실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3)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을 위한 베이지언 시공간 모형 평가: 시뮬레이션 연구
O-002	강상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한국 청소년의 좌식행동과 자살사고, 스트레스의 연관성: 2020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O-003	김소영, 최성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북한이탈가정과 남한가정 아동·청소년의 영양상태 비교
O-004	함다정 ¹⁾ , 배상혁 ²⁾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환경보건센터	50세 이상 한국 여성의 모유수유경 험과 골관절염 유병의 연관성: 국민건강영양조사
O-005	양정호 ¹⁾ , 정지안 ¹⁾ , 권순석 ¹⁾ , 이용훈 ²⁾ , 최성우 ³⁾ , 류소연 ³⁾ , 남해성 ⁴⁾ , 박경수 ⁵⁾ , 김혜연 ⁶⁾ , 신민호 ¹⁾	1) 전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2)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3) 조선대학교 예방의학교실 4) 충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5) 목포중앙병원 심뇌혈관센터 6) 전남대학교병원 심뇌혈관센터	음주량과 만성신질환의 인과관계: 멘 델리안 무작위 배정 연구
O-006	이효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혈청 요산 수치와 혈청 Klotho 수치 의 관계 :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16) 자료를 바탕으로

코드	저자	소속	제목
O-007	김소연 ¹⁾ , Tran Thi Xuan Mai ²⁾ , 송희연 ³⁾ , 류승호 ⁴⁾⁵⁾⁶⁾ , 장유수 ⁴⁾⁵⁾⁶⁾ , 박보영 ²⁾	1)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및보건통계전공 4)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코호트연구센터 5)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6)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임상연구설계학과	유방밀도, 유방양성질환, 유방암 위험 : 전향적 코호트 연구
O-008	Tran Thi Xuan Mai ¹⁾ , 김소연 ²⁾ , 박보영 ¹⁾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2)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유방암의 가족력과 유방 밀도에 따른 유방암 위험: 인구 기반 코 호트 연구
O-009	문성근 (공동1저자) ¹⁾ , Tran Thi Xuan Mai (공동1저자) ¹⁾ , 김소연 ²⁾ , 박보영 ¹⁾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학과	폐경 여부에 따른 유방암 발생에 대한 유방밀도와 체질량지수 사 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
O-010	임우진 ¹⁾²⁾³⁾ , 박수경 ¹⁾²⁾⁴⁾⁵⁾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3)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앙생물학 협동과정 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혁신의과학과	BRCA1 및 BRCA2 돌연변이 보 인자와 비 보인자에서 생식요인 과 유방암 발생 간의 연관성
O-011	성소슬 ¹⁾²⁾³⁾ , 박수경 ²⁾³⁾⁴⁾	1)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전공 혁신의과학과	한국형 난소암 연구 (Ko-EVE) 에서의 조직학적 분류를 고려한 생활습관 요인과 난소암의 연관 성 연구
O-012	김경식 ¹⁾²⁾³⁾ , 조선욱 ⁴⁾ , 박영주 ⁴⁾⁵⁾ , 이규연 ³⁾⁶⁾⁷⁾⁸⁾ , 이동욱 ⁹⁾ , 박수경 ¹⁾³⁾⁸⁾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3)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5)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7) 서울대학교 암병원 갑상선센터 외과 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전공 혁신의과학과 9)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요오드 섭취 및 갑상선기능과 갑 상선암 간의 연관성: 환자-대조 군 연구

구연 3 :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보장 / 16:00~17:30 좌장: 임준 (서울시립대)

코드	저자	소속	제목
O-013	최윤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암 환자의 진단 이후 노동이행과 소득변화
O-014	장은지 ¹⁾ , 강성찬 ²⁾ , 강수진 ³⁾ , 김창엽 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3)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공적이전소득이 장애인 가구의 과부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O-015	이빛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만성질환 노인의 경제적 부담,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요인
O-016	허경덕, 박은철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노인 외래를 통한 정액제 본인부담금 부담금 감면이 한국 노인의 의료이용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
O-017	신유경, 이지수, 도영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의사 유인과 본인부담금 감소가 잠재적 저가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실험적 비네트 연구
O-018	장지은 ^(공동1저자) ¹⁾ , 정희원 ^(공동1저자) ²⁾ , 신재용 ^(공동교신저자) ³⁾ , 김대현 ^(공동교신저자) ⁴⁾	1)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2)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학교실 노년내과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Hinda and Arthur Marcus Institute for Aging Research, Hebrew SeniorLife,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ssachusetts, USA	노년 초기의 노쇠지수와 노인성 질환 및 사망과의 관련성

코드	저자	소속	제목
O-019	강수현 ¹⁾²⁾ , 주재홍 ¹⁾²⁾ , 정성훈 ¹⁾²⁾ , 박민아 ¹⁾²⁾ , 박은철 ²⁾³⁾ , 장성인 ²⁾³⁾ , 윤초아 ⁴⁾ , 한윤대 ⁵⁾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산통계학과 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외과학교실, 대장외과	일차의료기관 접근성에 따른 당 뇨합병증의 발생
O-020	Chi Lan Tran, 한민지, 오진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역류성 식도염과 암 위험: 국민건 강보험공단-국민건강검진 코호트 (NHIS-HEALS) 조사 결과
O-021	안우주 ¹⁾²⁾³⁾ , 이상준 ¹⁾²⁾⁴⁾ , 박수경 ¹⁾²⁾³⁾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4)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붉은 육류 섭취와 위암 발생 및 사망률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O-022	정성훈 ¹⁾²⁾ , 주재홍 ¹⁾²⁾ , 윤초아 ⁴⁾ , 박민아 ¹⁾²⁾ , 강수현 ¹⁾²⁾ , 박은철 ²⁾³⁾ , 한윤대 ⁵⁾ , 장성인 ²⁾³⁾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산통계학과 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외과학교실, 대장외과	국내 위암 생존자의 지역 간 의 료이용 차이 : PARC index를 활용하여
O-023	박소윤 ¹⁾ , 이강숙 ¹⁾²⁾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국 청소년들의 가열담배 사용 과 간접흡연이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연관성
O-024	김해나 ¹⁾²⁾³⁾ , 이강숙 ¹⁾²⁾³⁾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서울금연지원센터	한국 여성 감정노동자의 금연성 공과 스트레스 관리의 연관성

10월 22일 금요일

구연 5 : 지역보건과 공공의료 / 09:00~10:30				좌장: 안순기 (충남대병원)
코드	저자	소속	제목	
O-025	최은영 ¹⁾²⁾ , 표지희 ¹⁾²⁾ , 박영권 ³⁾ , 김수경 ⁵⁾ , 옥민수 ¹⁾²⁾³⁾⁴⁾	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2)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3) 울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 4)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형 환자 안전 사건 코드 분류체계 개발 및 적용 가능성 평가	
O-026	김승훈 ¹⁾²⁾³⁾ , 김현규 ¹⁾²⁾ , 장성인 ¹⁾²⁾ , 박은철 ¹⁾²⁾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3)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 노인에서 공적 연금 종류와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	
O-027	박윤식, 박은철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한국 고령자의 우울증상과 의료 기관이용간의 관계	
O-028	강민국 ¹⁾²⁾ , 홍관 ¹⁾²⁾ , 김지현 ¹⁾²⁾³⁾ , 김수진 ¹⁾²⁾³⁾ , Raquel Elizabeth Gomez Gomez ¹⁾²⁾ , Kisiju Trishna ¹⁾²⁾ 천병철 ¹⁾²⁾⁴⁾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3) 고려대학교 대학원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 러닝헬스시스템융합전공 4)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COVID-19와 정신건강: 연령, 젠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	
O-029	박은혜 ¹⁾ , 길용진 ¹⁾ , 김찬기 ¹⁾ , 김범준 ²⁾ , 황승식 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분당서울대병원	진료권 내 혈관 내 재개통술 가 능병원의 존재가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명률의 지역 간 변이에 미치는 영향	
O-030	조희숙 ¹⁾²⁾ , 정수미 ²⁾ , 황유성 ¹⁾	1)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 후 대중의 공공의료 인식 변화: 강원도민패널조사(2019-2020) 결과를 중심으로	

구연 6 : 환경 및 유전역학 / 10:30~12:00 좌장: 하미나 (단국의대)

코드	저자	소속	제목
O-031	오은진 ¹⁾ , 권호장 ²⁾ , 배상혁 ¹⁾	1)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2)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한국의 PM2.5 규제 정책의 건강 영향 평가
O-032	이주연 ¹⁾³⁾ , 박수경 ¹⁾²⁾³⁾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전공 혁신의과학과	한국 성인집단에서 중금속의 노출량이 근시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
O-033	최윤정 ¹⁾²⁾³⁾ , 조진우 ⁴⁾ , 이동욱 ²⁾ , 문성지 ²⁾ , 이경신 ²⁾³⁾⁵⁾ , 박수진 ⁶⁾ , 홍윤철 ²⁾³⁾⁷⁾ , 신충호 ⁸⁾ , 이영아 ⁸⁾ , 김봉년 ⁹⁾ , Zachary Kaminsky ¹⁰⁾¹¹⁾ , 김인향 ¹²⁾ , 임연희 ²⁾¹³⁾	1)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2)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3) 서울의대 환경보건센터 4) Department of Statistics, University of Pittsburg, Pittsburgh, PA, United States 5) 국립의료원 중앙감염병운영센터 6)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외과 7) 서울의대 환경의학센터 8)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9)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10) Suicide Prevention Research at The Royal's Institute of Mental Health Research, University of Ottawa, Canada 11) Dept of Psychiatry and Behavioral Sciences,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D, United States 12)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3) Section of Environmental Epidemiolog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Copenhagen, Copenhagen, Denmark	산전 이산화탄소 노출이 INS-IGF2의 메틸화를 통해 소아 ADHD 증상에 미치는 영향
O-034	김영준 ¹⁾²⁾³⁾ , 김유미 ¹⁾³⁾ , 신민호 ⁴⁾ , 고상백 ⁵⁾ , 김현창 ⁶⁾ , 김미경 ¹⁾³⁾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학과 3) 한양대학교 건강과사회 연구소 4)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5)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전향적 코호트에서 유전-식품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대사증후군 발생에 있어 식품과 상호작용하는 유전요인 확인: FWA 분석에서 확인된 식품을 이용하여
O-035	이상준 ¹⁾²⁾³⁾ , 박수경 ¹⁾²⁾⁴⁾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3)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전공 혁신의과학과	약물유전학에 기여하는 위암과 관련된 대체 스플라이싱 동형 바 이오마커의 식별
O-036	이운일 ¹⁾²⁾ , 이경주 ³⁾⁴⁾ , 이채빈 ⁵⁾ , 김경태 ⁶⁾ , 신다연 ⁷⁾ , 권보연 ⁴⁾ , 손광익 ²⁾ , 이서은 ²⁾ , 문예슬 ²⁾ , 신향리 ⁸⁾ , 홍관 ¹⁾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산부인과 4)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5) 한국리더스협회 6) 노르딕워킹 I.K. 7)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8)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해양기후 운동 리트릿 프로그램에 참여한 50~60대 여성의 건강증진 효과

구연 7 : 만성질환 역학Ⅲ / 13:00~14:30 좌장: 신민호 (전남의대)

코드	저자	소속	제목
O-037	김현규, 김승훈, 장성인,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국 성인에서 악력의 변화와 인지 기능 저하의 관계 연구
O-038	한수정 ¹⁾ , 윤대현 ²⁾ , 조성일 ¹⁾ , 이준영 ³⁾ , 오대종 ³⁾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만성병역학연구실 2)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3)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40세 이상 한국 성인 남녀에서의 인지 기능 도메인별 내장지방 간의 연관성
O-039	김영신, 안형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생에서 맥압과 맥압변동성의 역할
O-040	김은지, 김광현, 이영룡, 김현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국 여성에서 갱년기 및 폐경기와 고혈압 유병 간 연관성 연구
O-041	Hoang Manh Thang ¹⁾ , 김현창 ¹⁾²⁾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상적인 심혈관 건강 지표의 부모-자녀 일치: 2014-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O-042	Yang Yiyi, 김현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이상적인 심혈관 건강 달성의 성별 차이

코드	저자	소속	제목
O-043	이상혁, 이동한	질병관리청	급성 A형간염 환자의 예후와 합병증 발생의 관련요인 분석
O-044	김지현 ¹⁾²⁾³⁾ , 홍관 ¹⁾²⁾ Raquel Elizabeth Gomez Gomez ¹⁾²⁾ , 김수진 ¹⁾²⁾³⁾ , 강민구 ¹⁾²⁾ , Trishna Kisiju ¹⁾²⁾ , 천병철 ¹⁾²⁾³⁾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3) 고려대학교 대학원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 러닝헬스시스템융합전공	가와사키병의 시공간 패턴에 관한 연구: 2008-2017년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여
O-045	황하리 ¹⁾ , 임준식 ²⁾ , 송선아 ³⁾ , Chiara Achangwa ²⁾ , 심우범 ¹⁾ , 류석현 ²⁾ , 김기호 ¹⁾	1) 대전광역시청 감염병관리과 2)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전광역시 코로나-19 델타변이 전파력 분석
O-046	김수진 ¹⁾²⁾ , 김지현 ¹⁾²⁾ , 홍관 ¹⁾ , Raquel Elizabeth Gomez Gomez ¹⁾ , 강민구 ¹⁾ , Kisiju Trishna ¹⁾ , 천병철 ¹⁾²⁾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 러닝헬스시스템융합전공	COVID-19 중재가결막염발생에 미치는영향
O-047	이화진 ¹⁾ , 김건엽 ¹⁾ , 김종연 ²⁾ , 감신 ¹⁾ , 이경수 ³⁾ , 이중정 ⁴⁾ , 홍남수 ¹⁾ , 황태윤 ³⁾ , 백하나 ⁵⁾	1)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경북대학교병원 3)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2020년 상반기 대구지역 코로나 19 유행 시 공중보건학적 대응과 발전 방안
O-048	이지수 ¹⁾ , 도영경 ¹⁾²⁾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 과 인공호흡기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에 대한 대중의 선호

코드	저자	소속	제목
O-049	김찬기, 장은지,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계 의 효과와 독거 상태의 조절효과: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O-050	서영미, 박기수	경상국립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발생 전후 건강행태 및 우울감 특성 비교 - 2019-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 사 이용한 분석 -
O-051	김혜리 _(제1저자) , 노민지 _(교신저자) , 손미아 _(교신저자)	강원대학교 예방의학소속	한국의개인, 가구, 지역의 사회경 제적 차이가 질병, 불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9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중심으로
O-052	노민지	강원대학교 예방의학과소속	한국의 개인별 위험요인과 지역 적 요인이 인지장애 유병에 미치 는 영향 연구: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2019)를 중심으로
O-053	김은아 ¹⁾ , 조성일 ¹⁾²⁾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코로나19 유행 시기 초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건강 결정요인 연구 - 머신러닝 기법 을 활용하여
O-054	김슬기,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5년 담배가격인상정책 시행 이후, 금연 시도 및 성공 영향요 인 탐색





초록 등재번호 : [O-001]

- 국문 제목 :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을 위한 베이지언 시공간 모형 평가: 시뮬레이션 연구

- 영문 제목 :

Assessment of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s for estimating small-area level life expectancy:
A simulation study

- 저 자 :

김익한¹⁾, 강희연²⁾, 강영호²⁾³⁾

- 소 속 :

1)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이학교실,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3)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 초록 내용 :

배경: 소지역 단위 기대수명 산출은 기대수명이 낮거나 높은 지역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도울 수 있다. 소지역 단위 기대수명 산출 시에는 높은 정밀도와 함께 정보를 줄 수 있는 불확실성 구간을 산출할 수 있는 통계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소지역 단위 기대수명 산출에 이용되고 있는 베이지언 시공간 모형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3-2017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와 사망 자료를 이용하였다. 2013-2017년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 여성 인구수가 500, 1000, 2000, 5000, 10000, 25000명임을 가정한 각 시나리오별로 1000개의 가상 데이터셋을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생성하였다. 각 시군구의 연령 구조는 실제 연령 구조를 유지하였다. 각 데이터셋을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 베이지언 공간 및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각 방법의 정확성, 95% 불확실성 구간 및 정규성 등을 비교하였다. 베이지언 시공간 모형은 선형항과 비선형항의 포함 여부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베이지언 시공간 모형은 전통적 방법 및 베이지언 공간 모형보다 더 정확하게 기대수명을 산출하였다. 베이지언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95% 불확실성 구간의 넓이는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넓이의 20-60%였다. 전통적인 방법은 인구수가 10,000명 이상일 때부터 정규성을 만족하였지만 베이지언 공간 및 시공간 모형은 인구수가 500명일 때도 정규분포에 근사하였다. 그러나 베이지언 시공간 모형은 인구수가 많은 시나리오에서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았다. 고찰 및 결론: 베이지언 시공간 모형을 이용한 기대수명 산출은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 및 베이지언 시공간 모형보다 데이터 효율성이 높았다. 그러나 베이지언 시공간 모형 이용 시 95% 불확실성 구간의 넓이가 좁고, 인구수가 많을 경우에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았다. 베이지언 시공간 모형을 이용한 지역 간 기대수명 비교 시에는 정규성을 가정한 비교가 아니라 사후 분포와 적절한 절단값 선택을 통한 비교가 필요하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02]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한국 청소년의 좌식행동과 자살사고, 스트레스의 연관성: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 영문 제목 :

Association between sedentary behavior and suicidal ideation and perceived stress level in Korean adolescents

- 저 자 :

강상구

- 소 속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sedentary behavior and mental health problems(suicidal ideation and perceived stress) in adolescents. This study analyzed Korea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data from the 16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N=54,948).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o calculate the Odds Ratios(OR) of perceived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by sedentary time. Sex-stratified analysis was done. In male students, increased sedentary time(>16 hours/day and 12-16 hours/da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reased suicidal ideation(OR=1.31, 95% Confidence Interval(CI) 1.09-1.56 and OR=1.26, 95% CI 1.11-1.44, respectively) compared to sitting ≤8 hours/day. The association of sedentary time and perceived stress was significant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Compared to the reference(≤8 hours/day), the ORs of perceived stress were 1.82(95% CI 1.63-2.03) for >16 hours/day and 1.35(95% CI 1.24-1.47) for 12-16 hours/day in male students. In female students, the ORs compared to reference were 1.57(95% CI 1.42-1.74) for >16 hours/day and 1.32(95% CI 1.23-1.42) for 12-16 hours/day. Suicidal ideation was associated with sedentary behavior in male adolescents and perceived stress was associated with sedentary behavior in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More attention is needed to the sedentary behavior in the view of mental health promotion.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03]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북한이탈가정과 남한가정 아동·청소년의 영양상태 비교

- 영문 제목 :

Comparing the nutritional statu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and South Korean families

- 저 자 :

김소영, 최성우

- 소 속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nutritional statu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North Korean defector (NKD) families who are currently living in South Korea (SK) and compared with the status of those from SK families. Design: A cross-sectional study comparing the prevalence of malnutrition, overweight, and obesity between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NKD families and SK families. Setting :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NKD families were interviewed face-to-face directly, whereas the data about those from SK families acquired by using 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Their nutritional status were estimated using the 2017 Korean National Growth Char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articipants: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 2,136 consisting of 527 subjects from the NKD families and 1,609 subjects from the SK families. Results: The overall prevalence of stunting, wasting, underweight, overweight, and obesity in NKD group was 8.9%, 10.2%, 10.4%, 11.2%, and 12.2% respectively, and 1.9%, 7.1%, 5.9%, 9.2%, and 9.3%, respectively, in SK families. The NKD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revalence than SK group in stunting($p<0.001$), wasting($p=0.014$), underweight($p<0.001$), obesity($p=0.041$) but not in overweight. Conclusions: The nutritional statu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NKD families was worse than that of those from SK families, and also higher prevalence of obesity.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04]

- 국문 제목 :

50세 이상 한국 여성의 모유수유경험과 골관절염 유병의 연관성: 국민건강영양조사

- 영문 제목 :

Association between breastfeeding experience and prevalence of osteoarthritis in Korean women over 50 years of ag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저 자 :

함다정¹⁾, 배상혁²⁾

- 소 속 :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환경보건센터

- 초록 내용 :

Purpose: Osteoarthritis is the most common joint disease. As women have a high prevalence rate,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female health factors and osteoarthriti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duration of breastfeeding and current prevalence of osteoarthritis in Korean women over 50. Methods: We analyzed the association of breastfeeding and associated factors with the prevalence of osteoarthritis using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10-2018). A total of 10,130 women aged 50 over were included. The duration of breastfeeding was categorized into 3 periods: 1 through 6 months, 7 through 24 months, 25 months or more. Covariates were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obesity,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oral contraceptive use, menopause)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come, education, occupation).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constructed adjusting for the covariates to examine the association. Results: Compared to the non-breastfeeding group, the group with breastfeeding experience had a odds ratio of 1.62 (95% CI: 1.25-2.09) for osteoarthritis, and 1.63 (95% CI: 1.26-2.11) for those who had breastfed more than 25 months. For the group of over 70 years of age, the odds ratio was 2.63(95% CI: 1.12-6.20) for those who had breastfed 1 to 6 months Discussion: The advantages of breastfeeding are well known, but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women who had breastfed for a long time or have many children may have a higher risk of osteoarthritis after middle age.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음주량과 만성신질환의 인과관계: 멘델리안 무작위 배정 연구

- 영문 제목 :

The causal association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chronic kidney disease: A Mendelian randomization study.

- 저 자 :

양정호¹⁾, 정지안¹⁾, 권순석¹⁾, 이용훈²⁾, 최성우³⁾, 류소연³⁾, 남해성⁴⁾, 박경수⁵⁾, 김혜연⁶⁾, 신민호¹⁾

- 소 속 :

1) 전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2)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3) 조선대학교 예방의학교실,
4) 충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5) 목포중앙병원 심뇌혈관센터, 6) 전남대학교병원 심뇌혈관센터

- 초록 내용 :

Introduction: Inconsistent results were reported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the risk of chronic kidney disease (CKD) in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the causal association was assessed between alcohol and CKD.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8,778 participants from the Dong-gu cohort study. The amount of alcohol was acquired with the questionnaire and o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was calculated with the 2012 CKD-EPI creatinine?cystatin C equation. The observational and Mendelian randomization (MR) analyse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log-transformed alcohol consumption and log-transformed urine albumin creatinine ratio (UACR) or eGFR and the association between log-transformed alcohol consumption and CKD or albuminuria. In the MR analyses, genetically predicted log-transformed alcohol consumption was used, and the aldehyde dehydrogenase 2 rs671 polymorphism was used as an instrumental variable for alcohol consumption. Results: In the observational analyses, drinking amount was associated with low risk of CKD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eGFR, and drinking amount was not associated with risk of albuminuria and UACR. In MR analyses, genetically predicted alcohol consumption was associated with albuminuria (odds ratio 1.18 [95% confidence interval, 1.07?1.30]) and higher levels of UACR (coefficient 0.09 [95% confidence interval, 0.05?0.13]) in men. However, genetically predicted alcohol consumption was not associated with CKD and eGFR. Conclusion: In the present Mendelian randomization study, we found that genetically predicted alcohol intake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proteinuria. This result suggests that alcohol intake has a causal effect on CKD mainly through the pathway of kidney damage.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혈청 요산 수치와 혈청 Klotho 수치의 관계 :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16) 자료를 바탕으로

- 영문 제목 :

The association between serum uric acid and serum Klotho level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16)

- 저 자 :

이효정

- 소 속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Hyperuricemia, an elevated uric acid levels, is frequently observed in patients with hyperparathyroidism. Klotho is a transmembrane protein, and it functions as a co-receptor of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s modulating parathyroid hormone synthesis and secre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hyperuricemia and serum Klotho protein levels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US adults.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2007-2016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is study included a total of 11,867 adults aged 40-80 years who had data of serum Klotho, uric acid, and covariates related to demographics, health behaviors, and medical history. Hyperuricemia was defined as a serum uric acid level $>7.0\text{mg/dL}$ in men and $>6.0\text{mg/dL}$ in women. Results The geometric mean (95% CI) of serum Klotho was 806.3 (801.5-811.2) pg/mL. The log-Klotho level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uric acid level ($r = -0.155$; $p < 0.0001$). After adjustment for potential covariates, a 1-unit increase in uric acid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log-Klotho level (adjusted beta = -0.029 ; $p < 0.0001$). Compared with subjects without hyperuricemia, those with hyperuricemia had significantly lower serum Klotho levels (adjusted beta = -0.066 ; $p < 0.0001$). Conclusion We found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uric acid and serum Klotho in general population, that is, an increase in serum uric acid levels wa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Klotho levels. This finding suggests that loss of Klotho may be involved in the progression of hyperuricemia or subsequently gout .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07]

- 국문 제목 :

유방밀도, 유방양성질환, 유방암 위험 : 전향적 코호트 연구

- 영문 제목 :

Mammographic Breast Density, Benign Breast Disease, and The Risk of Breast Cancer:
Findings from A Population-based Prospective Cohort Study

- 저 자 :

김소연¹⁾, Tran Thi Xuan Mai²⁾, 송희연³⁾, 류승호⁴⁾⁵⁾⁶⁾, 장유수⁴⁾⁵⁾⁶⁾, 박보영²⁾

- 소 속 :

1)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및보건통계전공
4)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코호트연구센터, 5)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6)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임상연구설계학과

- 초록 내용 :

Background: Mammographic breast density and benign breast disease are individually strong breast cancer risk factors, and women with both risk factors may be at very high risk. This study assessed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two factors on breast cancer risk. Methods: This population-based longitudinal study included 3 911 348 women aged ≥ 40 years who screened for breast cancer between 2009-2010, followed up to 2020. Benign breast disease and breast density was determined based on mammography screening results.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was used to calculate adjusted hazard ratios (aHRs) for breast cancer risk. Results: During a median follow-up of 10 years, 58 321 persons developed breast cancer. At screening 10 729 (18.4%) benign breast disease cases were detected among those who developed breast cancer. The combined effects of breast density and benign breast diseas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increased breast cancer risk and the association was higher corresponding to a higher level of breast density. Women with extremely dense breast and benign breast disease had an approximately threefold increased risk of breast cancer compared with women with BI-RADS 1 density and without benign breast disease (aHR 2.75; 95% CI 2.63-2.88). Women with benign disease and BI-RADS 1 density (aHR, 1.49; 95% CI 1.40-1.58) and women with BI-RADS 4 and without benign breast disease (aHR, 2.28; 95% CI 2.20-2.35) also had elevated breast cancer risk. Conclusions: Women with dense breast and benign breast disease had an elevated risk of future breast cancer, and thus might benefit from a tailored screening strategy.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한국연구재단



초록 등재번호 : [O-008]

- 국문 제목 :

유방암의 가족력과 유방 밀도에 따른 유방암 위험: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

- 영문 제목 :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and Breast Cancer Risk by Breast Density: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 저 자 :

Tran Thi Xuan Mai¹⁾, 김소연²⁾, 박보영¹⁾

- 소 속 :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2)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 초록 내용 :

Importance. First-degree family history is a strong risk factor for breast cancer, but there is limited evidence on how the magnitude of this association varies by mammographic breast density. We assessed whether first-degree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breast cancer, and identify whether the association varies by mammographic breast density. Methods. This prospective cohort study used population-based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embedd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Women aged ≥ 40 years who underwent mammographic screening between 2009–2013 were followed up until December 31, 2020. First-degree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was assess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Using the 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BI-RADS) categories, breast density was classified into dense (categories 1 and 2) and non-dense breast (categories 3 and 4). Main outcomes were risk of breast cancer by breast density and age group assessed by adjusted hazard ratios from Cox proportional regression model. Results. Of 4,836,557 women aged ≥ 40 years included in the analysis, 79,160 (1.6%) reported having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and 61,440 women developed breast cancer. A first-degree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led to an increase in 5-year cumulative incidence in both dense- and non-dense women. After adjusting for breast density and other factors, family history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breast cancer in all three age groups (age 40–49: aHR 2.01, 95% CI 1.89–2.15; age 50–64: aHR 1.71, 95% CI 1.60–1.83, and age ≥ 65 : aHR 2.15,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SIT) (grant no. 2021R1A2C1011958). The funder had no role in the study design; collec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writing of the report; or decision to submit the article for publication.



- 국문 제목 :

폐경 여부에 따른 유방암 발생에 대한 유방밀도와 체질량지수 사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

- 영문 제목 :

Interactive Effects of Mammographic Breast Density and Body Mass Index on the Risk of Breast Cancer According to Menopausal Status

- 저 자 :

문성근^(공동1저자)¹⁾, Tran Thi Xuan Mai^(공동1저자)¹⁾, 김소연²⁾, 박보영¹⁾

- 소 속 :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학과

- 초록 내용 :

배경: Evidence suggests that breast density and body mass index are strong breast cancer risk factors; however, their interactive effects are unknown. 대상 및 방법: We utilized population-based data of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We used data of women aged ≥ 40 years who underwent mammographic screening between 2009–2013. Information on breast cancer incidence was followed up until 5 years after the first screening. We used 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breast density categories and BMI levels classified according to WHO Asia classification. We calculated adjusted relative risk of breast cancer during follow-up period, and interactions in additive and multiplicative scales. 결과: Increased breast density categories we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breast cancer in both premenopausal and postmenopausal women in total and across the BMI categories. However, an association between BMI and the risk of breast cancer was found only in the postmenopausal women in total and across the breast density categories. When the combined effects of breast density and BMI on the risk of breast cancer were considered, a high breast density and BMI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teraction on the additive scale in both premenopausal and postmenopausal women, especially the latter (adjusted relative excess risk due to interaction 0.53 [95% CI: 0.35–0.71] and 1.68 [95% CI: 1.26–2.10] respectively). 결론 및 고찰: Breast density and BMI interact synergistically to augment breast cancer risk. Both factor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risk stratification in a population-based screening for public health significance.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SIT) (grant no. 2021R1A2C1011958).



초록 등재번호 : [O-010]

- 국문 제목 :

BRCA1 및 BRCA2 돌연변이 보인자와 비 보인자에서 생식요인과 유방암 발생 간의 연관성

- 영문 제목 :

Reproductive factors and breast cancer risk in BRCA1/2 mutation carriers and non-carriers

- 저 자 :

임우진¹⁾²⁾³⁾, 박수경¹⁾²⁾⁴⁾⁵⁾

- 소 속 :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3)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앙생물학 협동과정, 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혁신의과학과

- 초록 내용 :

[배경] 유방암 발생의 유전적 요인 중 Breast cancer susceptibility gene (BRCA) 1 및 2의 돌연변이는 유방암 발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BRCA1/2 돌연변이 보인자와 비보인자 여성에서 생식요인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은 heterogeneous 하기에 본 연구는 국내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 보인자와 비보인자 여성에서 생식요인과 유방암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코호트 연구에서 여성 유방암 환자에 대해 수집한 임상역학 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대상자를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 보인자 군, 및 비보인자 군으로 구분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별한 후 생식요인 (초경 나이, 폐경 나이, 출산 수, 첫 출산 나이, 생리 주기 규칙성, 경구 피임제 복용 여부)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을 산출하기 위해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위험 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결과] 초경 나이가 12세 이상 15세 미만인 대상자의 경우 초경 나이가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대상자에 비해 BRCA2 돌연변이 보인자 군에서 HR 1.41(95% CI=1.02-1.94), 비보인자 군에서는 HR 1.75(95% CI=1.29-1.60)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 폐경 나이가 50세 이상인 대상자의 경우 폐경 나이가 45세 미만인 대상자에 비해 BRCA1 및 BRCA2 돌연변이 보인자 군에서 각각 HR 0.18(95% CI=0.06-0.51), HR 0.44(95% CI=0.25-0.79), 비보인자 군에서 HR 0.30(95% CI=0.23-0.39)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 또한, 출산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출산 횟수가 1회인 대상자에 비해 BRCA2 돌연변이 보인자 군에서 HR 1.80(95% CI=1.06-3.06), 비보인자 군에서 HR 1.39(95% CI=1.18-1.65)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 [고찰 및 결론] 연구결과, 초경 및 폐경 나이가 이르거나, 출산 횟수가 적거나 첫 임신 나이가 많은 대상자에서 BRCA1/2 돌연변이 보인자, 비보인자 군 모두에서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study was partially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National R&D Program for Cancer Contro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0720450; 1020350).



초록 등재번호 : [O-011]

- 국문 제목 :

한국형 난소암 연구 (Ko-EVE)에서의 조직학적 분류를 고려한 생활습관 요인과 난소암의 연관성 연구

- 영문 제목 :

Association between lifestyle factors and ovarian cancer with consideration of histologic subtype in the Korean Epithelial Ovarian Cancer Study (Ko-EVE)

- 저 자 :

성소슬¹⁾²⁾³⁾, 박수경²⁾³⁾⁴⁾

- 소 속 :

1)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전공 혁신의과학과

- 초록 내용 :

Introduction: Ovarian cancer can be classified as high-grade serous (HGS), low-grade serous (LGS), mucinous, endometrioid, and clear cell by histologic subtypes. Ovarian cancer risk by histotypes was reported by only few studies. This study is to verify the association between ovarian cancer and lifestyle factors by subtypes.

Methods: A total of 531 OC cases in the Korean Epithelial Ovarian Cancer Study (Ko-EVE) and 2,124 woman who received a health examination in the community were matched by enrollment year and household income. The risk was estimated by odds ratios (O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by performing the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for overall epithelial ovarian cancer (EOC) and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for each subtype.

Results: In EOC and HGS, women whose exercise frequency ≥ 5 per week times had lower risk (OR=0.41, 95% CI=0.28-0.60; OR=0.36, 95% CI=0.19-0.70). Women whose exercise duration is 60-90 minutes and 90 minutes or more per exercise had decreased risk in EOC (OR=0.74, 95% CI=0.55-0.98; OR=0.60, 95% CI=0.41-0.86). Increased risk was observed for smoking ≥ 10 packyears in EOC and HGS (OR=3.14, 95% CI=1.32-7.44; OR=9.59, 95% CI=2.82-32.63) and for ever-drinker in EOC and mucinous (OR=1.31, 95% CI=1.02-1.67; OR=3.63, 95% CI=1.39-9.49). Women whose BMI is 18.5 kg/m² or less had increased risk (OR=1.80; 95% CI=1.04-3.13) in EOC.

Conclusion: Smoking ≥ 10 packyears, drinking, BMI < 18.5 kg/m² may be risk factor for EOC. Exercise frequency and exercise duration had inversed association with EOC. Especially, drinking showed higher risk in mucinous and exercise frequency showed lower risk in HGS.

Keywords: Ovarian neoplasms, histology, Lifestyle factor, Epidemiology, Korea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study was partially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and the National R&D Program for Cancer Contro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HI16C1127; 0920010).



초록 등재번호 : [O-012]

- 국문 제목 :

요오드 섭취 및 갑상선기능과 갑상선암 간의 연관성: 환자-대조군 연구

- 영문 제목 :

Association between Iodine Intake, Thyroid Function, and Papillary Thyroid Cancer: A Case-Control Study

- 저 자 :

김경식¹⁾²⁾³⁾, 조선욱⁴⁾, 박영주⁴⁾⁵⁾, 이규언³⁾⁶⁾⁷⁾⁸⁾, 이동욱⁹⁾, 박수경¹⁾³⁾⁸⁾

- 소 속 :

-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3)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5)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 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7) 서울대학교 암병원 갑상선센터 외과,
- 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전공 혁신의과학과, 9)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배경: 타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인 갑상선암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과거에 비해 최근 갑상선암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는 예방, 보건학적인 관심사임. 알려진 위험요인 이외에 한국인의 높은 갑상선암 발생 이해에 있어 한국인의 특이적인 요오드 섭취 행태와 갑상선 기능의 고려가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오드 섭취와 갑상선 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갑상선암 위험을 평가하고자 하였음.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환자-대조군 연구로서 암 과거 및 치료력이 없는 500 명의 지역사회 일반인구집단과 446명의 갑상선암 (유두성갑상선암: 209명; 미세유두성갑상선암: 237명) 환자를 서울대병원 갑상선암 전향적 코호트 연구 (T-CALOS)에서 추출하였음. 소변요오드를 통해 국제보건기구의 기준 아래 요오드 섭취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혈청 시료를 이용하여 갑상선 기능을 평가하였음. 개인의 배설량 고려를 위해 크레아티닌을 보정하여 요오드 섭취 상태를 추가로 확인하였음. 유두성 및 미세유두성갑상선암 위험은 unconditional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음. 결과: 과다한 요오드 섭취 (소변요오드 ≥ 220 ug/gCr)는 유두성갑상선암 (오즈비, 18.13; 95% CI, 8.87-37.04) 및 미세유두성갑상선암 (오즈비, 8.02; 95% CI, 4.64-13.87) 과 연관이 있었음. 높은 유리 티록신 (≥ 1.25 ng/dL)의 경우도 유두성갑상선암 (오즈비, 1.97; 95% CI, 1.36-2.87) 및 미세유두성갑상선암 (오즈비, 2.98; 95% CI, 2.01-4.41) 과 연관이 있었음. 두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과다한 요오드 섭취와 높은 유리 티록신의 유의한 연관성을 유두성갑상선암 (오즈비, 43.48; 95% CI, 12.63-149.62) 및 미세유두성갑상선암 (오즈비, 26.96; 95% CI, 10.26-70.89)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고찰 및 결론: 요오드 섭취와 갑상선 기능 각각을 고려하였을 때 갑상선암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높은 요오드 섭취와 높은 유리 티록신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갑상선암과 더욱 더 큰 연관성을 미루어보아 향후 높은 요오드를 섭취하는 환경 아래에서 유두성, 미세유두성갑상선암 평가에 있어 요오드 섭취와 갑상선 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사사: 본 연구는 대한암연구재단 (CB-2017-A-2), 한국수력원자력 (KNHP, A15IP12)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입니다.



초록 등재번호 : [O-013]

- 국문 제목 :

암 환자의 진단 이후 노동이행과 소득변화

- 영문 제목 :

Employment and income changes in cancer survivors

- 저 자 :

최윤주

- 소 속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본 연구는 노동활동을 지속하던 이들이 암 진단 이후 경험하는 노동이행과 소득변화의 양상, 그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질병 이후 삶과 노동 병행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질문이 수립되었다. 첫째, 노동활동을 지속하던 암 환자는 암 진단 이후 어떠한 노동이행 패턴을 보이는가? 둘째, 암 환자는 진단 이후 어떠한 소득변화를 보이는가? 이상의 연구질문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 DB를 활용하여 후향적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해 암 진단을 받기 직전 최소 3년간 노동활동을 지속하던 이들 중 새롭게 암 진단을 받은 생산가능연령대 신환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이들과의 비교가 가능한 일반인구집단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생존분석과 일반화추정방정식을 활용해 6년간의 노동과 소득변화를 추적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암 진단 이후 노동이행에 관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노동이탈 확률이 높으며, 특히 여성, 젊은 이들, 저소득층, 일반직장인 및 군인의 경우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성이 낮은 부문에 종사할 경향이 높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여성의 경우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복귀를 살펴본 결과 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노동복귀 확률이 낮는데, 특히 여성, 고연령,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더 낮았다. 둘째 암 진단 이후 소득변화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여성, 젊은 연령, 의료급여 전환자, 지역가입자 전환자는 소득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노동시장에서 암 생존자는 일반인에 비해 취약하며 특히 여성, 저소득층, 젊은 연령층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간 초점을 맞추어온 의료비지출 뿐 아니라 질병이후의 노동보장, 소득보장, 병가보장에 대한 논의의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공적이전소득이 장애인 가구의 과부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 영문 제목 :

The Impact of Public Transfer Income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for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 저 자 :

장은지¹⁾, 강성찬²⁾, 강수진³⁾, 김창엽¹⁾

- 소 속 :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3)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 초록 내용 :

Objective: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likely to be impoverished and suffer from overburdened medical expenses than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found to have a reduced effect on the economic burden among low-income household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mpact of public transfer income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particularly focusing 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Methods: We constructed a panel dataset by extracting registered disabled households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KOWEP) 2012-2019. We then used a panel logit analysis with a Fixed-effect model to estimate the impacts of public transfer incomes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Results: Our findings revealed that the total medical expenses decreased for those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who received public transfer income(Coef.=-2.05, $p<.0049$). However, public transfer income didn't reduce the risk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for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rather slightly increased the risk(Odds ratio 1.35, $p<0.05$). When analyzing only those households receiving public transfer income, the risk of incurr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decreased as the total amount of public transfer income increased(Odds ratio=0.99, $p<0.032$).

Conclus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insufficient positive effect of public transfer income on decreas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decrease of the total medical expenses for a household receiving public transfer income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less risk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refore, federal policies or programs should consider increasing the total amount of public transfer income targeting low-income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15]

- 국문 제목 :

만성질환 노인의 경제적 부담,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요인

- 영문 제목 :

Unmet Medical Needs due to the Economic, Physical and Time Burden among Elderly with Chronic Diseases

- 저 자 :

이빛나

- 소 속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초록 내용 :

배경: 한국 만성질환 보유 노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만성질환 노인의 보건으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서 1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8,801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미충족 의료 연구에 사용되는 Andersen의 행동 모델에 따라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충족 의료 경험 이유별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충족 의료 경험이 없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IBM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에서 양측검정을 수행하였다. 결과: 만성질환 보유 노인 중 6.9%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 하였으며, 이 중 69.6%가 경제적 부담, 21.3%가 물리적 제약, 9.0%가 시간적 제약과 관련한 이유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다. 분석 결과, 만성질환 보유 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우울,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경제적 부담 및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고찰 및 결론: Andersen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만성질환 노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특히 만성질환 노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이유에 따라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만성질환 노인의 미충족 의료 발생 이유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정책의 접근방식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노인 외래를 통한 정액제 본인부담금 분담금 감면이 한국 노인의 의료이용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

- 영문 제목 :

The impact of cost-sharing reduction through outpatient copayment policy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costs among Korean older adults: a nationwide cohort study

- 저 자 :

허경덕, 박은철

- 소 속 :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vides a cost-sharing reduction benefit for ambulatory care of older adults through copayment model.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hether the copayment model changed healthcare utilization and costs among Korean older adults. Methods: This retrospective cohort study analyzed the data of 32,918 Korean older adults from the 2007-201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Health Screening Cohort. The case group comprised participants aged 60 years in 2007 who became subject to the copayment model in 2012. The control group included participants 2 years younger than the case group, who did not experience the change in the payment model during the study period. The main outcome was the number of quarterly clinic visits by participants. Other outcomes were the frequent outpatient attenders, clinic and hospital level healthcare utilization, and costs indicators.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each outcome. Results: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copayment model, the case group showe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linic visits (13.9%, 95% CI: 11.7 to 16.1), outpatient clinic costs (9.5%, 95% CI: 6.0 to 13.1), and a higher likelihood of being frequent outpatient attenders (45.3%, 95% CI: 33.2 to 58.5)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copayment model was related to decrease in clinic visits exceeding copayment limits (-12.9%, 95% CI: -15.6 to -10.1). Inpatient days and total medical cost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Conclusions: To develop an appropriate cost-sharing model for health insurance, policy makers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expected response of patients and healthcare providers to the policy.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17]

- 국문 제목 :

의사 유인과 본인부담금 감소가 잠재적 저가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실험적 비네트 연구

- 영문 제목 :

The effect of physician inducement and out-of-pocket payment reductions on potential low-value care utilization: an experimental vignette study in Korea

- 저 자 :

신유경, 이지수, 도영경

- 소 속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 초록 내용 :

목적 및 배경: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면서 MRI에 대한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의 감소로 인해 저소득층의 저가치 의료(low-value care) 이용이 고소득층의 이용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 의료 이용의 형평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의사 유인과 본인부담금 감소가 저가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소득 분위에 따라 평가하고자 했다.

방법: 본 연구는 실험적 비네트(experimental vignette) 방법론을 적용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연구 대상자에게는 저가치 MRI(뇌 또는 척추)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가상적 상황의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절반은 의사 유인이 없는 상황에, 나머지 절반은 의사 유인이 있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였다. 저가치 MRI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감소 전후로 소득 분위에 따라 저가치 MRI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공변량을 통제하였을 때 소득 분위에 따라 저가치 MRI를 이용할 예측 확률을 계산하였다.

결과: 의사 유인은 잠재적 저가치 MRI 이용을 증가시켰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잠재적 저가치 MRI 이용이 증가했으며, 소득 수준 간 잠재적 저가치 MRI 이용의 차이는 의사 유인이 존재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본인부담금 감소 후 잠재적 저가치 MRI 이용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득에 따른 잠재적 저가치 MRI 이용의 차이는 감소하였다.

결론: 본인부담금 감소는 소득에 따른 저가치 의료 이용의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이용의 형평성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 이용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해 저소득층에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저가치 의료 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노년 초기의 노쇠지수와 노인성 질환 및 사망과의 관련성

- 영문 제목 :

Frailty Index at the Beginning of Elderhood and Accumulation of Age-Related Diseases, and Death Over 10 Years

- 저 자 :

장지은(공동1저자)¹⁾, 정희원(공동1저자)²⁾, 신재용(공동교신저자)³⁾, 김대현(공동교신저자)⁴⁾

- 소 속 :

1)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2)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학교실 노년내과,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Hinda and Arthur Marcus Institute for Aging Research,
Hebrew SeniorLife,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ssachusetts, USA

- 초록 내용 :

Background We assessed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of frailty in early elderhood with development of age-related diseases and death over 10 years in nationwide Korean population. **Methods** In this retrospective study, we used the National Screening Program for Transitional Ages database linked to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Frailty index of 39 items in 5 health domains was constructed. Outcomes including death and diagnoses of age-related chronic conditions were extracted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Results** Mean frailty index was 0.09 (SD 0.03) in robust group (N=631,340), 0.19 (SD 0.03) in pre-frail group (N=273,086), 0.28 (SD 0.03) in mildly frail group (N=55,190), 0.41 (SD 0.05) in moderate-to-severely group (N=9,215) among 968,831 individuals. Higher frailty burden at 66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death over 10 year when compared to robust group, with adjust hazard ratio of 1.47, 2.10, 3.78 in pre-frail, mildly frail, and moderate-to-severely frail group. Furthermore, baseline frailty spectrum was associated with cumulative incidence of age-related chronic conditions. **Conclusion** As an integrative measure of aging, higher frailty index at 66 was associated with a faster rate of acquiring age-related conditions, as well as increased risk of adverse health outcomes. Measuring frailty at the beginning of elderhood may offer timely opportunities to mitigate health decline associated with aging.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19]

- 국문 제목 :

일차의료기관 접근성에 따른 당뇨병증의 발생

- 영문 제목 :

The impact of access to primary care on diabetes complications among type 2 diabetes patients: a Korea nationwide cohort study

- 저 자 :

강수현¹⁾²⁾, 주재홍¹⁾²⁾, 정성훈¹⁾²⁾, 박민아¹⁾²⁾, 박은철²⁾³⁾, 장성인²⁾³⁾, 윤초아⁴⁾, 한윤대⁵⁾

- 소 속 :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산통계학과, 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외과학교실, 대장외과

- 초록 내용 :

This paper outlined the effects of the regional access to primary care on diabetes complication incidence among type 2 diabetes patients.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from year 2002 to 2015, our study population was people who were newly diagnosed type 2 diabetes without complications from 2004 to 2011. The main key variable was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who could not reach to the primary internal medicine clinics within 30 minutes using time relevance index developed by GIS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was diabetic complications. Chi-square test and multilevel cox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AS 9.4. After adjusting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s variables, regions with ≥ 50 % of population who were unable to access the primary clinics within 30 minutes had higher probability of diabetes complications (1.21 Hazard ratio [HR], 1.08-1.36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compared to the regions with zero percentage. Among the diabetes complications, diabetic foot (2.26 HR, 1.49-3.42 95% CI), peripheral vascular disease (1.59 HR, 1.24-2.04 95% CI), and cerebrovascular disease (1.51 HR, 1.06-2.15 95% CI)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access to the primary care. By subdividing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without access to the primary care, it was identified that poor access to primary care was associated with higher risk of complications. We suggest that the improvement of the access to primary health care for early-stage diabetes patients are needed so that complications can be prevented and detected early.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HI20C1130).



- 국문 제목 :

역류성 식도염과 암 위험: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검진 코호트(NHIS-HEALS) 조사 결과

- 영문 제목 :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and risk of cancer: Finding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National Health Screening Cohort (NHIS-HEALS)

- 저 자 :

Chi Lan Tran, 한민지, 오진경

- 소 속 :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 초록 내용 :

Backgroun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 could lead to chronic mucosal inflammation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ancer. However, evidence on cancers other than esophageal cancer is still controversial.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GERD and different cancer types in South Korea.

Methods: We used the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Cohort (NHIS-HEALS). GERD group and non-GERD group were defined from 2002 to 2007 and were followed up from 2008 to 2015 to define cancer.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used to calculate crude HR and HR adjusted for covariates including age, sex, BMI,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family history of cancer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Results: 95,539 GERD patients were compared with 193,517 non-GERD patients. Median time of follow-up was 13.29 years. The results show that GERD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esophageal cancer (adjusted HR= 1.396, 95% CI 1.027 - 1.896), larynx cancer (adjusted HR = 1.944, 95% CI 1.383 - 2.732) and thyroid cancer (adjusted HR = 1.723, 95% CI 1.580 - 1.879). In contrast, GERD was associated with a decreased risk of gastric cancer, colon cancer, rectum cancer, liver cancer and lung cancer.

Conclusion: GERD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esophageal cancer, larynx cancer and thyroid cancer.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 Education Program (NCCRI.NCCI 52210-52211, 2021)” and a research grant (NCC2010303) of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초록 등재번호 : [O-021]

- 국문 제목 :

붉은 육류 섭취와 위암 발생 및 사망률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 영문 제목 :

An ecological study of red meat consumption and gastric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 저 자 :

안우주¹⁾²⁾³⁾, 이상준¹⁾²⁾⁴⁾, 박수경¹⁾²⁾³⁾

- 소 속 :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4)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 초록 내용 :

Background: Gastric cancer (GC) is one of the most common cancers worldwide. Among various dietary habits, meat consumption has risen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Nevertheless, red meat was concluded as a limited-suggestive risk factor of gastric cancer by the World Cancer Research Fund (WCRF).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associations between incidence/mortality of GC and the red meat consumption worldwide. Methods: The data of GC incidence and mortality were obtained from GLOBOCAN 2020, the global cancer project for 185 countries. Based on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 we obtained information of red meat consumption in 2010. Red meat was considered as beef, pork, lamb, and goat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WCRF. Pearson's and Spearman's correlation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s between red meat consumption and GC incidence/mortality. As the effect of medical facilities on mortality differs from countries, unlike the incidence, we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to evaluate the associations between red meat consumption and GC mortality by adjusting medical indicators. Results: A positive correlation was estimated between red meat consumption (spearman's rho: 0.285; p-value < 0.001) and GC incidence. The correlation between red meat consumption and GC mortal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the adjustment for gross national income, mean years of schooling, health expenditure (Beta = 0.04; p-value = 0.047).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red meat consumption can be associated with the incidence/mortality of gastric cancer.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this ecological study.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No. NRF-2016R1A2B4014552).



초록 등재번호 : [O-022]

- 국문 제목 :

국내 위암 생존자의 지역 간 의료이용 차이 : PARC index를 활용하여

- 영문 제목 :

Regional Differences in Medical use among Koran Gastric cancer survivors : Using the PARC index

- 저 자 :

정성훈¹⁾²⁾, 주재홍¹⁾²⁾, 윤초아⁴⁾, 박민아¹⁾²⁾, 강수현¹⁾²⁾, 박은철²⁾³⁾, 한윤대⁵⁾, 장성인²⁾³⁾

- 소 속 :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산통계학과, 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외과학교실, 대장외과

- 초록 내용 :

배경 : 위암 생존자의 경우 광범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나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의료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다. 나아가 의료 취약지와 비취약지간의 의료 이용의 형평성은 위암 생존자의 건강 결과에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취약지에 따른 위암 생존자들의 위암 진단 전,후의 의료이용의 차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 이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2004년-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위암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생존한 환자를 대상으로 PARC index를 활용하여 의료 취약지 거주 여부를 구분하였고, 의료 이용은 연간 외래이용 횟수, 입원 일수, 응급실 이용 횟수로 구분하였다. 위암 진단 후 5년 생존자의 진단 2년 전을 베이스라인으로 하여 암 진단 5년, 6년, 7년 후의 의료이용과 의료취약지역과의 관계를 포아송 분포를 적용한 일반화 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총 1,797명의 대상자 중 1,541명이(85.8%) 의료 비취약지에 거주하고 256명이(14.2%) 의료취약지에 거주하였습니다. 의료 비취약지와 취약지 사이에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암진단 5년 후에는 외래이용 횟수($\exp(\beta)$: 1.18; 95% Confidence interval[CI]: 1.13-1.23), 암생존 6년 후에는 외래이용 횟수($\exp(\beta)$: 1.17; 95% CI: 1.11-1.22) 및 입원 일수($\exp(\beta)$: 0.82; 95% CI: 0.72-0.94), 암생존 7년 후에는 외래이용 횟수($\exp(\beta)$: 1.17; 95% CI: 1.10-1.24) 및 입원 일수($\exp(\beta)$: 1.76; 95% CI: 1.43-2.1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찰 및 결론 : 의료 취약지와 비취약지에 거주하는 위암 5년 생존자 사이에서 의료이용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는 위암 생존자의 의료이용 세부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역 간 격차에 따른 의료이용 관련요인과 건강결과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23]

- 국문 제목 :

한국 청소년들의 가열담배 사용과 간접흡연이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연관성

- 영문 제목 :

Association of Heated Tobacco Product Use and Secondhand Smoke Exposure with Suicidal Ideation, Suicide Plans, and Suicide Attempts among Korean Adolescents

- 저 자 :

박소윤¹⁾, 이강숙¹⁾²⁾

- 소 속 :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The consumption of heated tobacco products (HTP) is increasing among adolescents worldwide. Although suicide and cigarettes use are linked,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e-related behavior, HTP use, and indirect smoking exposure are not yet properly studied.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of HTP use and exposure to SHS with suicidal ideation, suicide plans, and suicide attempts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Data from 57,303 respondents (95.3% response rate) were obtained from the 2019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Chi-square tests and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HTPs use and SHS exposure with suicidal ideation, suicide plans, and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s.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included Model 1, which was adjusted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sex, school type, perceived school performance, economic status, and residence type; and Model 2, which was adjusted for demographics, depression, and drug use. The risk of suicidal ideation was 1.37 (95% [CI]: 1.10?1.70) and 1.44 (95% CI: 1.18?1.75) times higher among HTP users who were exposed to SHS at home and in public places, respectively, as compared to non-users. The risk of suicide attempts was 1.88 (95% CI: 1.37?2.57), 1.45 (95% CI: 1.63?2.00), and 2.21 (95% CI: 1.63?3.00) times higher among HTP users exposed to SHS at home, school, and in public places, respectively. HTP use, and SHS exposure are likely indicators of risk behavi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o evidence the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smoking cessation education for adolescent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24]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한국 여성 감정노동자의 금연성공과 스트레스 관리의 연관성

- 영문 제목 :

Association of Stress Management with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in Korean Female Emotional Labor Workers for Service and Sales

- 저 자 :

김해나¹⁾²⁾³⁾, 이강숙¹⁾²⁾³⁾

- 소 속 :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서울금연지원센터

- 초록 내용 :

Emotional labor is paid work, which involves managing and regulating one's emotions during the job, including evoking and suppressing one's feelings.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through tailored smoking cessation counseling including stress management among women emotional labor worker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 2015, to December 31, 2017. A total of 2,674 women registered in the Comprehensive Smoking Cessation Service System and were grouped as either emotional labor workers for service and sales (1,002) or other occupations (1,672) for analysis. The participants received 9 sessions of face-to-face and telephone smoking cessation counseling over 6 months, and follow-up assessments were conducted 4, 6, 12, and 24 weeks after counseling. Smoking cessation counseling involved a stress management program comprising stress test, depression test, color therapy, and buddy program including peer support.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included the number of counseling sessions, motivation rulers (Importance, Confidence, Readiness), average daily smoking amount, expired carbon mon-oxide (CO), and nicotine dependence. The most associated factor was the number of counseling sessions. Since counseling focused on stress managemen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moking cessation, continuous counseling could help quit smoking.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25]

- 국문 제목 :

한국형 환자 안전 사건 코드 분류체계 개발 및 적용 가능성 평가

- 영문 제목 :

Development and applicability evaluation of the Korean patient safety incidents code classification system

- 저 자 :

최은영¹⁾²⁾, 표지희¹⁾²⁾, 박영권³⁾, 김수경⁵⁾, **옥민수**¹⁾²⁾³⁾⁴⁾

- 소 속 :

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2)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3) 울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 4)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초록 내용 :

목적: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안전 현황을 알아보는 다양한 방법들 중 행정자료 내 진단 코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형 환자안전사건 코드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그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진단 코드를 활용하여 환자안전사건을 식별을 시도하였던 선행 문헌들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환자안전사건 유형에 따라 KCD-7 코드들을 검토하고 분류하였다. 세분화한 한국형 환자안전사건 코드 분류 체계에 대하여 환자안전 관련 전문가,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분류 체계를 확정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내 진단 코드와 입원 시 상병(present on admission) 코드를 분석하여 개발한 한국형 환자안전사건 코드 분류 체계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즉, 한국형 환자안전사건 코드가 존재하고 입원 시 상병 코드가 N인 경우를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고 그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형 환자안전사건 코드 분류 체계의 활용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결과: 한국형 환자안전사건 코드는 6개의 대분류(진단 관련 사건, 투약 관련 사건, 환자케어 관련 사건,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 감염 관련 사건, 기타 사건)로 구분된다. 이는 41개의 중분류로 구분되었는데, 예를 들어, 환자케어 관련 사건의 경우 욕창, 섬망, 낙상, 환자 사고, 사건의 휴유증, 기타 합병증으로 세분화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한 분석 작업은 진행 중이다.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한국형 환자안전사건 코드 분류 체계는 환자안전사건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정부 지원 센터 사업 평가 등에 있어 환자안전 영역의 지표를 개발, 평가할 때에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2021년도 대한예방의학회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번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록 등재번호 : [O-026]

- 국문 제목 :

한국 노인에서 공적 연금 종류와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

- 영문 제목 :

Type of Public Pens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Older Adults: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Panel Study, 2014-2020

- 저 자 :

김승훈¹⁾²⁾³⁾, 김현규¹⁾²⁾, 장성인¹⁾²⁾, 박은철¹⁾²⁾

- 소 속 :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3) 연세대학교 대학원

- 초록 내용 :

Introduction: As income and health are closely related, retirement is considered undesirable for healt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ype of contributory public pens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over 65 years. Methods: Data from 4,541 older adult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4-2020, were analyzed. Depressive symptoms were measured using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Public pensions were classified into specific corporate pensions for persons engaged in special occupations and national pensions for those who were not eligible for special corporate pension. For sub-group analyses, pensioner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pension received and the proportion of public pension in gross income. Analyses using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for longitudinal data were conducted. Results: After adjusting all covariates including income-related factors, individuals receiving a public pension, regardless of pension type, demonstrated significantly decreased depressive symptoms (national: $\beta=-0.734$, $p<0.001$; specific: $\beta=-0.775$, $p=0.020$). For both pensions, the higher the amount of benefit, the lower the depression scores. In low-income households, the decrease in depressive symptoms based on amount of public pension benefits was greater (fourth quartile of national pension: $\beta=-1.472$, $p<0.001$; second and third quartiles of specific corporate pension: $\beta=-3.646$, $p<0.001$). Conclusions: Contributory public pens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depressive symptoms. This association was prominent in low-income households. Contributory public pension may be good economic resources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after retirement.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27]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한국 고령자의 우울증상과 의료기관이용간의 관계

- 영문 제목 :

Associ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medical care utilization in South Korean older adults with chronic diseases: A cross-sectional study

- 저 자 :

박윤식, 박은철

- 소 속 :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depressive symptoms on medical care utilization among South Korean older adults with chronic diseases. **Methods** A national sample of 3,921 elders with chronic diseases participated in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odds ratios (ORs) were calculated for the effects of depressive symptoms on medical care utilization. **Results** Older adults with depressive symptoms had fewer outpatient visits (OR = 0.81, 95% confidence interval [CI] = 0.67?0.98) and more inpatient hospitalizations (OR = 1.49, 95% CI = 1.13?1.97) than those who did not suffer depressive symptoms. Participants with depressive symptoms visited outpatient clinics less often (OR = 0.69, 95% CI = 0.48?0.97) and were hospitalized more frequently (OR = 1.81, 95% CI = 1.04?3.16) than were men without depressive symptoms. Patients with depressive symptoms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were hospitalized more often (OR = 2.77, 95% CI = 1.45?5.30). **Conclusions** Depressive symptoms and chronic diseases are common among elders in South Korea, often resulting in decreased outpatient visits and increased inpatient hospitaliz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for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 in elders with depressive symptom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28]

- 국문 제목 :

COVID-19와 정신건강: 연령, 젠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

- 영문 제목 :

The COVID-19 crisis and mental health disparities by age, gender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representative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2015~2020)

- 저 자 :

강민구¹⁾²⁾, 홍관¹⁾²⁾, 김지현¹⁾²⁾³⁾, 김수진¹⁾²⁾³⁾, Raquel Elizabeth Gomez Gomez¹⁾²⁾, Kisiju Trishna¹⁾²⁾, 천병철¹⁾²⁾⁴⁾

- 소 속 :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3) 고려대학교 대학원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 러닝헬스시스템융합전공, 4)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 초록 내용 :

Background: It is unknown yet whether there are age and gender-related differences on mental health impacts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are patterns of mental health impacts after COVID-19 by age, gender and regional traits using nationwide data. Methods: Using 6-year publicly available data, mental health outcomes are calculated wit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tratified analysis by age and gender was done comparing data from 2020 and 2015~2019. Spatial analysis was applied to understand the regional disparities. Results: Female adults aged 30~39 reported higher percent change (2.69%, $p<0.0001$) in stress rate. In the Female-40s group, percent change in stress rate is much higher in high COVID-19 incidence regions. (3.69%, $p<0.0001$) Elderly older than 70s show clear improve in stress rate after COVID-19. (Male: -3.13%, $p<0.0001$; Female: -5.74%, $p<0.0001$) Few spatial clusters of mental health changes are detected. Conclusion: During the first 6-months of the pandemic, mental health of young female adults has worsened while there is a clear improve in that of older adults. Older adults tend to have better resilience in pandemic situation while young female adults have more daily stressors. Considering age and gender is important in implementing public mental health programs in the COVID-19 era.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29]

- 국문 제목 :

진료권 내 혈관 내 재개통술 가능병원의 존재가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명률의 지역 간 변이에 미치는 영향

- 영문 제목 :

Presence of Thrombectomy-capable Stroke Centers Within Hospital Service Areas Explains Regional Variation in the Case Fatality Rate of Acute Ischemic Stroke

- 저 자 :

박은혜¹⁾, 길용진¹⁾, 김찬기¹⁾, 김범준²⁾, 황승식¹⁾

- 소 속 :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분당서울대병원

- 초록 내용 :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status of regional variations in acute ischemic stroke (AIS) treatment and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resence of a thrombectomy-capable stroke center (TSC) and the case fatality rate (CFR) of AIS within hospital service areas (HSAs). This observational cross-sectional study analyzed acute stroke quality assessment program data from 262 hospitals between 2013 and 2016. TSCs were defin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Joint Commission. In total, 64 HSA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addresses of hospitals. We analyzed the effects of structure factors, process factors, and the presence of a TSC on the 30-day CFR of AIS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mong 262 hospitals, 31 hospitals met the definition of a TSC. Of the 64 HSAs, only 20 had a TSC. At hospitals, the presence of a stroke unit, the presence of stroke specialists, and the rate of endovascular thrombectomy (EVT) treatment were associated with reductions in the CFR. In HSAs, the rate of EVT treatment (odds ratio [OR] 0.98; 95% confidence interval [CI] 0.97-0.99) and the presence of a TSC (OR=0.93; 95% CI, 0.88-0.99) significantly reduced the CFR of AIS. The presence of a TSC within an HSA, corresponding to structure and process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car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lowering the CFR of AIS. The CFR also declined as the rate of treatment increased.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SCs in the development of an acute stroke care system in South Korea.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paper is based on "Regional variation in acute ischemic stroke treatment" the lead author's master's thesis a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t is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ume 55, 6th Issue).



초록 등재번호 : [O-030]

- 국문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 후 대중의 공공의료 인식 변화 : 강원도민패널조사(2019-2020) 결과를 중심으로

- 영문 제목 :

Changes in public health-related perceptions after the outbreak of Coronavirus Disease-19(COVID-19) among public: Focusing on the results of the Gangwon Province residents' panel survey 2019-2020.

- 저 자 :

조희숙¹⁾²⁾, 정수미²⁾, 황유성¹⁾

- 소 속 :

1)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초록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 이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치료와 방역의 중심에서 활동하면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발표('20년 1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1년 3월)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인식이나 요구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회성 조사에 국한되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전후 변화된 대중들의 공공의료 인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2019년, 2020년에 시행한 강원도민패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를 전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변화된 인식, 필수보건의료에 대한 필요도 변화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에 대하여는 2회 조사 모두 '국민 모두의 의료이용 보장 및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019년 94.3%; 2020년 95.5%) 코로나19를 겪은 이후 공공보건医료를 '국가에 의한 의료시설 설립', '취약지? 취약계층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 지표들이 2019년도 대비 2020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2019년: 진료 환경(M=3.10 SD=0.783); 의료서비스의 질(M=3.07 SD= 0.808); 의료비용(M=3.06 SD= 0.751), 2020년: 진료 환경(M=3.35 SD=0.807); 의료서비스의 질(M=3.35 SD= 0.828); 의료비용(M=3.30 SD= 0.711)).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 개선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요구도가 높았다(2019년: 의료기관 신뢰도(M=2.78 SD= 0.984); 의료 보장성(M=2.81 SD= 0.973); 접근성(M=3.07 SD= 0.870); 2020년: 의료기관 신뢰도(M=2.99 SD= 0.934); 의료 보장성(M=2.87 SD= 0.972); 접근성(M=3.13 SD= 0.889)). 결론적으로, 대중들은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하면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의 높아진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도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한국의 PM2.5 규제 정책의 건강영향 평가

- 영문 제목 :

Health Impact Assessment of PM2.5 control legislation in Korea

- 저 자 :

오은진¹⁾, 권호장²⁾, 배상혁¹⁾

- 소 속 :

1)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2)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Exposure to PM2.5 has been associated with increased all-cause mortality. The metropolitan area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policy is enacted to reduce PM2.5 concentration in 2008. The policy selected substances subject to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implemented total emission regulations in Seoul and Incheon, strengthened standards for allowing emissions for production vehicles, and promoted reduction of diesel car emissions. The aim of the present analysis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n health. Methods: The policy was applied to Seoul and Incheon,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were selected as control groups. We conducted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es to examine changes in PM2.5 concentration and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 after the enactment of the policy. Based on the calculated change, we estimated the health benefit in terms of reduced mortality. Result: We observed a decrease in the slope of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 of all-cause mortality after intervention in Seoul and Incheon. PM2.5 concentrations also decreased. The interaction coefficient about intervention was -0.537 (p value=0.001) in Seoul and -0.0276 (p value=0.64) in Incheon. We calculated the number of excess deaths when there was no intervention effect, when only PM2.5 concentrations were decreased, when only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 was decreased, when both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 and PM2.5 were reduced. The number of excess death in Seoul was 684.1 (221-1112.3), 654 (230.1-1149.1), 450.9 (0-883.1), and 432.2 (0-919.1), respectively. We observed 137.1 (0-673.4), 113.8 (0-560.7), 82 (0-236.2), and 68.7 (0-196.7), in Incheon, respectively. Conclusion: The all-cause mortality caused by PM2.5 in Seoul and Incheon decreased after intervention.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32]

- 국문 제목 :

한국 성인집단에서 중금속의 노출량이 근시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

- 영문 제목 :

Clinical association between the heavy metal exposure and myopia in Korean adult population

- 저 자 :

이주연¹⁾³⁾, 박수경¹⁾²⁾³⁾

- 소 속 :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전공 혁신의과학과

- 초록 내용 :

목적 중금속의 노출이 안구의 길이 및 근시의 정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이전 결과들이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집단에서 혈중 중금속의 노출량이 중등도 및 고도근시와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방법 안과검사가 2008-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49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내의 납, 수은, 망간, 카드뮴의 노출량을 수집하였다. 안과 굴절검사상 구면렌즈대응치를 기준으로 -3.0D 이상인 경우 중등도근시, -6.0D 이상 고도근시로 정의하여 각 중금속의 노출정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 다. 성별, 나이, 흡연, 음주, 교육 및 소득수준 외 굴절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D 수치, 외부 활동 시간, 체 질량지수, 총칼로리섭취량을 보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후에 대상자들의 거주지에 따라 도시, 시골로 나누어 각 지역에 따라 동일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총 중금속검사가 시행된 11345명 중 안과검사가 시행된 5191 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39 ± 9 세이며 이중 3578명은 중등도근시, 349명은 고도근시 였다. 혈중 납의 노출량이 평균치에 비해 높을 때, 중등도 근시가 0.52배 (OR=0.52, 95% CI, 0.32-0.83), 고 도근시가 0.58배 (95% CI, 0.34-0.98)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수은, 망간, 카드뮴의 노출량은 중등도 이상의 근 시의 정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도시지역과 시골지역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ll P>0.05). 결론 국내 정상 성인에서 납을 제외한 중금속의 노출량은 근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지역 간에도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중금속 노출량이 근시의 병태생리학적 발생기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납의 결과는 중금속 체내축적에 따른 발달저하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33]

- 국문 제목 :

산전 이산화황 노출이 INS-IGF2의 메틸화를 통해 소아 ADHD 증상에 미치는 영향

- 영문 제목 :

The role of DNA methylation at insulin-like growth factor 2 (INS-IGF2) in the association between prenatal exposure to sulfur dioxide (SO₂) and childhoo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ymptoms

- 저 자 :

최윤정¹⁾²⁾³⁾, 조진우⁴⁾, 이동욱²⁾, 문성지²⁾, 이경신²⁾³⁾⁵⁾, 박수진⁶⁾, 홍윤철²⁾³⁾⁷⁾, 신충호⁸⁾, 이영아⁸⁾, 김봉년⁹⁾, Zachary Kaminsky¹⁰⁾¹¹⁾, 김인향¹²⁾, 임연희²⁾¹³⁾

- 소 속 :

1)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2)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3) 서울의대 환경보건센터, 4) Department of Statistics, University of Pittsburgh, Pittsburgh, PA, United States, 5) 국립의료원 중앙감염병운영센터, 6)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외과, 7) 서울의대 환경의학센터, 8)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9)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10) Suicide Prevention Research at The Royal's Institute of Mental Health Research University of Ottawa, Canada, 11) Dept of Psychiatry and Behavioral Sciences,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D, United States, 12)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3) Section of Environmental Epidemiolog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Copenhagen, Copenhagen, Denmark

- 초록 내용 :

BACKGROUND AND AIM: Epigenetic influence has been suggested to have a role in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air pollution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but research regarding sulfur dioxide (SO₂) is scarce.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pigenetic effects on the association between prenatal SO₂ and ADHD symptoms in children. METHODS: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prenatal SO₂ exposure and ADHD rating scale (ARS) scores at ages 4, 6, and 8 longitudinally in a mother-child cohort (n=329). Whole blood samples were obtained at age 2 and 6, and genome-wide DNA methylation (DNAm) was analyzed for 51 children using the Illumina Infinium HumanMethylationEPIC (and 450K) BeadChip. We analyzed the associations between prenatal SO₂ exposure and DNAm levels at age 2 and 6, and further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NAm levels at the significant CpG sites (CpGs) and ARS at ages 4, 6, and 8. RESULTS: Prenatal SO₂ exposure was associated with ADHD symptoms. DNAm levels at the 6 CpGs (cg07583420, cg05075097, cg25163476 (INS-IGF2), cg20296524 (TARBP1), cg15705054 (PBXIP1), and cg05951817 (SLC6A4)) at age 2 (but not at age 6) were associated with prenatal SO₂ exposure levels. Among these 5 CpGs, cg07583420 (INS-IGF2) was linked with ARS at ages 4, 6, and 8, persistently. CONCLUSION: Changes in DNAm levels at early childhood, which was associated with prenatal SO₂ exposure, were further associated with increases in ARS in later childhood, suggesting that epigenetic mechanisms may underlie the effects of prenatal exposure to SO₂ on ADHD symptoms in children.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34]

- 국문 제목 :

전향적 코호트에서 유전-식품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대사증후군 발생에 있어 식품과 상호작용하는 유전요인 확인: FWA 분석에서 확인된 식품을 이용하여

- 영문 제목 :

Genome-wide gene-food interaction (GWI) analysis on risk of metabolic syndrome in a prospective cohort

- 저 자 :

김영준¹⁾²⁾³⁾, 김유미¹⁾³⁾, 신민호⁴⁾, 고상백⁵⁾, 김현창⁶⁾, 김미경¹⁾³⁾

- 소 속 :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학과, 3) 한양대학교 건강과사회 연구소, 4)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5)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 초록 내용 :

Background: The metabolic syndrome (MetS) is a cluster of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carries an increased risk of type 2 diabetes cardiovascular disease. Rapidly increasing prevalence of MetS became a major public health problem. There was little evidence on gene-foods interaction on the incidence risk of Met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SNPs interacted with foods on incidence risk of MetS using genome-wide gene-diet interaction (GWI) analysis.

Methods: A total of 4,679 participants aged 40 years or over without MetS were included. Three foods (breads, dark yellow vegetable, and nuts) were used, which were previously identified to be associated with MetS incidence in the food-wide association (FWA) analysis. Using Poisson regression model with robust error estimation, GWI analysis were performed by 2 steps: 1) 2df joint test and 2) 1df interaction analysis.

Results: In the GWI analysis, three SNPs were identified interacting with 3 foods on the risk of MetS: rs2485560 ($P_{2df} = 4.69 \times 10^{-9}$, $P_{1df} = 7.32 \times 10^{-8}$, RYR2) with Breads, a food reflecting non-traditional diet rs2378839 ($P_{2df} = 5.67 \times 10^{-9}$, $P_{1df} = 2.81 \times 10^{-6}$, near TBX4) with Dark-yellow-vegetable, and rs113635370 ($P_{2df} = 4.87 \times 10^{-8}$, $P_{1df} = 1.21 \times 10^{-6}$, near FLJ16171) with Nuts. There was no antagonistic interaction.

Conclusion: We identified SNPs interacted with foods on incidence risk of MetS and it should be confirmed in other prospective cohort studies. However, regarding the interaction patterns in the present study, dark yellow vegetable and nuts may be beneficial in the development of MetS, irrespective of genotype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4-E71004-00, 2005-E71011-00, 2006-E71009-00, 2007-E71002-00, 2008-E71004-00, 2009-E71006-00, 2010-E71003-00, 2011-E71002-00, 2012-E71007-00, 2013-E71008-00, 2014-E71006-00, 2014-E71006-01, 2016-E71001-00, 2017N-E71001-00) and was supporte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NRF-2020R1A2C1004815).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ollaborative Genome Program for Fostering New Post-Genome Industry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NRF-2017M3C9A6047623).



초록 등재번호 : [O-035]

- 국문 제목 :

약물유전학에 기여하는 위암과 관련된 대체 스플라이싱 동형 바이오마커의 식별

- 영문 제목 :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 splicing isoform biomarkers associated with gastric cancer to contribute pharmacogenetics

- 저 자 :

이상준¹⁾²⁾³⁾, 박수경¹⁾²⁾⁴⁾

- 소 속 :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3)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전공 혁신의과학과

- 초록 내용 :

Backgrounds: Alternative splicing enables the generation of various structural and functional mRNA and protein products from a single gene. Due to the multiple modifications during the splicing process, single gene can have different mechanisms within cancers depending on the splicing isoform subtypes. In addition, isoform biomarkers can be used to find target gene associated with cancer development based on pharmacogenetics. Methods: The alternative splicing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isoform count matrices using hg19 assembly from dataset of Stomach adenocarcinoma (STAD) in The Cancer Genome Atlas (TCGA). We defined isoforms with a statically significant change with the criteria as follows: average expression of gene >50 , and that of isoform >0 , isoform fraction (IF) >0.3 and difference in IF >0.2 . Isoform switching was identified via Dirichlet-multinomial model in RNA-Seq. Alternative splicing analysis, including intron retentions (IRs) was finally performed. Results: 231 isoforms from 143 genes were selected with the criteria of significant change. After alternative splicing analysis, MUC5B was identified with five IRs. Unlike other isoform subtypes, the expression of MUC5B-001 (ENST00000525715.5) alone found only in acute myeloid leukemia, ovarian cancer, and STAD among 33 cancer types in TCGA. The highest expression level of MUC5B-001 was shown in acute myeloid leukemia. Conclusions: We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the expression level of the single gene can affect different carcinomas depending on the splicing isoform subtype, particularly in IRs. Pharmacogenetics of target gene can be revealed based on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lternative splicing study.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No. NRF-2016R1A2B4014552).



초록 등재번호 : [O-036]

- 국문 제목 :

해양기후 운동 리트릿 프로그램에 참여한 50~60대 여성의 건강증진 효과

- 영문 제목 :

Health effects after 5-days of beach fitness retreat among women aged 50s-60s

- 저 자 :

이은일¹⁾²⁾, 이경주³⁾⁴⁾, 이채빈⁵⁾, 김경태⁶⁾, 신다연⁷⁾, 권보연⁴⁾, 손광익²⁾, 이서은²⁾, 문예솔²⁾, 신항리⁸⁾, 홍관¹⁾

- 소 속 :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산부인과, 4)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5) 한국리더스협회, 6) 노르딕워킹 I.K., 7)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8)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 초록 내용 :

건강증진 및 알려지 질환 등의 증상 호전과 환자들의 회복기 영양 등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럽형 건강 리조트를 우리나라에서도 조성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완도군은 독일 노르더나이 섬의 건강 리조트를 모델로 블루존 사업이라는 해양기후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변에서의 기후 운동 프로그램의 건강증진효과를 검증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변에서 50-60대 여성 자원자들 77명을 대상으로 계절별로 4회 5박6일 프로그램을 2020년 11월과 2021년 2월, 5월 및 6월 4차례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효과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전과 후 및 프로그램 중간에 모니터링 형태로 진행하였고, 연구방법과 그 결과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체중은 61.1kg에서 60.9kg로 감소되었고, BMI는 24.15에서 24.10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악력은 24.2kg에서 25.8kg으로, 유연성, 정적 밸런스, 동적 밸런스 등도 증가하였다. Polar OH1을 활용한 운동강도가 73.5%에서 69.7%로 운동부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peak flow meter를 활용한 최대호기속도도 361.5 l/min에서 385.5로 향상되었다. 폐활량 조사에서도 최고호기류가 5.1 l/sec에서 5.6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HRV 검사에서 LF/HF ratio가 1.69에서 1.33으로 감소하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좋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피쳐버그 수면의 질 설문조사 결과에서 수면의 질이 7.1점에서 6.3점으로 개선되었다. 타액의 총 코티졸은 426.9ng/ml에서 465.5로 총멜라토닌은 164.0 pg/ml에서 214.4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총 콜레스테롤 등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비타민 D는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증진 효과는 평균적인 비교이며 개인별 다양한 변화들이 관찰되어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혈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수축기혈압을 120mmHg 이상군과 미만군으로 나누면 120미만 군에서 확장기혈압이 70.9에서 73.2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상군에서는 최고혈압이 133.4에서 123.8로 감소하였다. 개인의 체력 및 건강수준에 따른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이 연구는 완도군에서 지원한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과제 결과임

초록 등재번호 : [O-037]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한국 성인에서 악력의 변화와 인지기능 저하의 관계 연구

- 영문 제목 :

Association between change in handgrip strength and cognitive impairment in Korean adults

- 저 자 :

김현규, 김승훈, 장성인, 박은철

- 소 속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Physical performance, such as handgrip strength, has been suggested as an associative factor for cognitive impairment.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of change in handgrip strength along times with cognitive function using longitudinal, nationwide data among Korean older adults. Methods: Our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The analysis covered 6,696 participants who had taken the handgrip strength test and Mini-Mental State Exam (MMSE) from 2006 to 2018. We adopted general estimating equations to assess the temporal effect of handgrip strength change on cognitive function. Results: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we observed an association between handgrip strength and low MMSE scores ($\beta = -0.3142$ in men, $\beta = -0.2685$ in women). Handgrip strength as a continuous variabl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MSE scores after adjustment ($\beta = 0.0293$ in men, $\beta = 0.0347$ in women).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 between handgrip strength change and cognitive function among South Korean adults. According to our large, longitudinal sample, decreasing handgrip strength was associated with decline in cognitive function.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38]

- 국문 제목 :

40세 이상 한국 성인 남녀에서의 인지기능 도메인별 내장지방 간의 연관성

- 영문 제목 :

Domain Specific Cognitive Function And Visceral Fat Area Among Korean Adults Over 40 Years Stratified By Sex

- 저 자 :

한수정¹⁾, 윤대현²⁾, 조성일¹⁾, 이준영³⁾, 오대중³⁾

- 소 속 :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만성병역학연구실, 2)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3)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초록 내용 :

[Background] Korea became an aged society from 2017. As life expectancy increased, the incidence of chronic diseases such as cognitive deficit, dementia and visceral fat obesity increased. Gender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obesity and cognitive decline in previous studies. Obesity in old age is associated with better cognitive function and protective against dementia or cognitive decline. According to some previous studies, dementia in late-life is associated with obesity in mid-life, but with weight loss and thinness in late-life. However, the associ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 and obesity is controversial. [Purpose] This study aimed (1) to investigate gender difference in the association between domain-specific cognitive functions and visceral fat area among adults over 40 years old; (2) to compare the association between visceral fat area and cognitive function in mid-life and late-life. [Methods] The source of the data is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Analysis included data on 2,391 participants. Associ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s and visceral fat area were assessed by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models. [Results] Among men, higher visceral fat area was associated with low verbal fluency scores in all age groups($p<0.01$), and with low scores of Boston Naming Test in those aged 56-70($p<0.05$). In contrast, among women, higher visceral fat area was associated with low constructional recall scores in those aged 40-55($p<0.05$) and 56-70($p<0.05$), and low scores of word list memory among those aged 56-70($p<0.05$). [Conclusion] We found out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domain-specific cognitive functions and visceral fat area was related to the age groups and gender difference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39]

- 국문 제목 :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생에서 맥압과 맥압변동성의 역할

- 영문 제목 :

The role of pulse pressure and its long-term variability in the development of myocardial infarction and stroke- a nationwide cohort study using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Database

- 저 자 :

김영신, 안형식

- 소 속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 초록 내용 :

Background: Pulse pressure (PP) is an established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s (CVDs). Despite clinical importance of variation in CV parameters, evidence between PP variability (PPV) and risk of CV events is unavailable. This study aims to quantify predictive value of PPV for incident MI and stroke, and to explore the impact of PPV according to the baseline PP, age and sex. Population and Method: Nationwide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databases were used to identify subjects with at least three health screening examinations between 2005 and 2012. Risk of CVDs as represented as hazard ratios (HRs) with 95% CIs, was analyzed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s among individuals in each quintile of PPV. Analyses were adjusted for age, sex, and CV risk factors including BP and PP. Result: 20,804,153 individuals were included in the analyses. Higher PPV quintil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reased CV risks (for example, fully adjusted HR (95%CI) 1.16 (1.14,1.18), 1.21 (1.19,1.22), and 1.16 (1.13,1.18) for MI, ischemic and hemorrhagic stroke, respectively). Variability in PP was a weak predictor, but was most predictive in younger subjects and at low or normal baseline PP. Discussion and Conclusion: Long-term PPV is an important predictor of MI and stroke independent of BP and PP. Increased variability in PP in subjects with low or normal PP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high risk of CV events while null or protective effect was noted among participants with elevated PP.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한국 여성에서 갱년기 및 폐경기와 고혈압 유병 간 연관성 연구

- 영문 제목 :

Association between Stage of reproductive aging and Hypertension among Korean women

- 저 자 :

김은지, 김광현, 이영룡, 김현창

- 소 속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The higher prevalence of hypertension in postmenopausal women is well-known. There have been controversial studies on whether menopause may affect hypertension after adjusting other factors such as age and BMI.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an association between a gradual menopausal transition and an increased risk of hypertension among Korean women.

Method: This cross-sectional study employed baseline data from 5,456 women aged 30 to 64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Cardiovascular and Metabolic Diseases Etiology Research Center (CMERC) community-based cohort study in Korea from 2013 to 2018. The participants' stage of reproductive ageing was assessed by questionnaires and categorized into premenopause, perimenopause, and postmenopaus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tage and prevalence of hypertension was determin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increases with reproductive ageing (9.82%, 25.21%, and 27.74% in pre-, peri-, and postmenopause, respectively).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perimenopausal women were at the highest risk of hypertension (OR=1.81, 95%CI=1.13 - 2.89). Postmenopausal also showed an increased adjusted odds ratio (OR=1.44, 95%CI=1.13 - 1.84). The risk of high systolic BP was at its peak in perimenopause and sharply decreased with years after menopause, in contrast to a gradual falling off of the risk of diastolic hypertension.

Conclusion: Perimenopausal status was associated with the highest risk of hypertension even compared to postmenopausal women. Considering perimenopause may last months or years, monitoring and early intervention are crucial.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41]

- 국문 제목 :

이상적인 심혈관 건강 지표의 부모-자녀 일치: 2014-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영문 제목 :

Parents-offspring concordance of ideal cardiovascular health metrics: findings from the 2014-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저 자 :

Hoang Manh Thang¹⁾, 김현창¹⁾²⁾

- 소 속 :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We assessed the within-family concordance of the ideal cardiovascular health (CVH) and investigated to what extent parents and offspring shared similar CVH metrics. Methods: The study included of a total 1313 trios (father-mother-offspring) derived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ollowing Life's Simple 7 metrics, which have been developed by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ideal CVH was defined as having at least 5 ideal CVH metric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ith adjusted standard errors accounted for within-family clustering were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CVH and offspring's CVH. Results: In 2019, prevalence of the ideal CVH was 13.7% for father, 26.9% for mother, 44.3% for son, and 70.2% for daughter. Maternal and paternal ideal CVH was associated with 1.42 (95% CI: 1.09?1.84) and 1.45 (95% CI: 1.04-2.03) times more likely having ideal CVH in offspring, adjusted for age. Father-son concordance was highest for body mass index (OR 2.08; 95% CI 1.46?2.98) and cigarette smoking (OR 2.14; 95% CI 1.48?3.09), father-daughter concordance was highest for blood pressure (OR 3.06; 95% CI 1.64?5.73) and fasting blood glucose (OR 2.85; 95% CI 1.57?5.17). Mother-son concordance was highest for total cholesterol (OR 3.25; 95% CI 2.04?5.18) and cigarette smoking (OR 1.95; 95% CI 0.53?7.16). Notably, cigarette smoking showed exceptionally high concordance between mother and daughter (OR 19.73; 95% CI 3.71?104.78). Conclusion: Our study found that Korean people whose parents with better CVH had a greater chance of attaining ideal CVH.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42]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이상적인 심혈관 건강 달성의 성별 차이

- 영문 제목 :

Sex-difference in achieving ideal cardiovascular health according t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 저 자 :

Yang Yiyi, 김현창

- 소 속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It is known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cardiovascular health metrics (CVH) distribution between men and women, but it has been studied less whether the difference differs depending on socioeconomic conditions. This study assessed the sex-difference in achieving ideal CVH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yearly household income.

Methods

A total of 7,026 community dwellers (aged 30-64 years, 35% male) were analyzed from the Cardiovascular and Metabolic Diseases Etiology Research Center (CMERC) study. Ideal CVH was defined using Life's Simple 7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with some modification for the Korean population. Odds ratio for having ideal CVH and individual metrics in women compared to men were estimated b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tratified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household income.

Results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including socio-economic factors and depression, the od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for having ideal CVH was 4.07 [3.53-4.69] for female versus male. The corresponding odds ratio [95% CI] was 2.20 [1.32-3.68] in primary/middle school graduates, 3.77 [2.98-4.76] in high school graduates; and 4.52 [3.75-5.45] in college graduates or higher.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across household income: 3.83 [2.80-5.23], 4.42 [3.38-5.79], 3.89 [2.91-5.18] and 4.00 [3.06-5.26] from the lowest to highest quartiles, respectively.

Conclusions

Women have significantly higher odds for achieving ideal CVH compared to men, and the sex-difference was more prominent among people with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but remained constant across household income level.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43]

- 국문 제목 :

급성 A형간염 환자의 예후와 합병증 발생의 관련요인 분석

- 영문 제목 :

An Analysis of Association to the Prognosis and Complication of Patients with Acute HAV

- 저 자 :

이상혁, 이동한

- 소 속 :

질병관리청

- 초록 내용 :

목적 : A형간염 환자의 예후와 합병증 발생의 관련요인을 확인하고자 A형간염 환자와 일반인구집단의 A형간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위험도와 A형간염 환자의 기저질환별 합병증 발생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 A형간염 환자는 2002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중 주상병코드 B15, B15.0, 또는 B15.9로 1년내 2회 이상 외래 또는 입원한 환자로 정의하였다. 대조군은 일반인구집단을 1대20으로 매칭하였고 기저질환은 만성 B형간염(B18.1), 만성 C형간염(B18.2), 알코올성간질환(K7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간염(K73), 간의 섬유증 및 경변(K74)으로 선정하였다. 합병증은 A형간염 진단 이후 발생한 간이식과 사망으로 하였다. 관찰기간은 A형간염 진단일로부터 1년으로 하였다. 합병증 발생률은 10,000 인년발생률(person-year incidence rate)과 발생률 비(Incidence Rate Ratio, IRR)로 분석하였으며 합병증 발생위험도는 발생위험비(Hazard Ratio, HR)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A형간염 환자의 간이식 10,000인년(person-years)의 발생률은 0.02건이며 일반인구집단은 0.01건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간이식의 발생률 비(Incidence Rate Ratio, IRR)는 30대가 102.98로 가장 높았다. A형간염 환자의 사망 10,000인년 발생률은 30.26건이며 일반인구집단은 12.16건으로 분석되었으며 사망의 발생률 비는 10세미만의 연령층이 5.96으로 가장 높았다. A형간염 환자와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A형간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간이식 발생위험도가 56.97로 분석되었다. A형간염 환자에서의 기저질환별 간이식 발생위험도는 B형간염(B18.1)과 간의 섬유증 및 경변(K74)이 각각 9.58과 2.72로 높았으며 사망의 경우 간의 섬유증 및 경변(K74)과 알코올성 간질환 기저질환(K70)이 있는 환자가 각각 1.43과 1.23로 발생위험도가 높았다. 결론 : A형간염에 감염되면 일반인구집단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높았고 특히 비교적 건강한 연령대의 간이식과 사망의 합병증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만성 B형간염과 간의 섬유증 및 경변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선제적 예방접종이 지속되고 발생 분포가 가장 높은 20~40대 연령층이 자발적 예방접종을 하게하는 정책이 A형간염 합병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44]

- 국문 제목 :

가와사키병의 시공간 패턴에 관한 연구: 2008-2017년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여

- 영문 제목 :

Spatiotemporal patterns of Kawasaki disease in South Korea: using 2008-2017 national representative data

- 저 자 :

김지현¹⁾²⁾³⁾, 홍관¹⁾²⁾, Raquel Elizabeth Gomez Gomez¹⁾²⁾, 김수진¹⁾²⁾³⁾, 강민구¹⁾²⁾, Trishna Kisiju¹⁾²⁾, 천병철¹⁾²⁾³⁾

- 소 속 :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3) 고려대학교 대학원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 러닝헬스시스템융합전공

- 초록 내용 :

Background: Despite the etiology of Kawasaki Disease (KD) remains unknown, identifying spatiotemporal clusters of KD could support its hypothesis to be infectious disease. However, spatiotemporal clusters of KD have never been reported in Sou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spatiotemporal patterns of KD in South Korea using national representative data. Methods: We extracted epidemiologic-week (Epi-week) based KD case (ICD-10-CM code, M303) from 2008-201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 in municipal level. To determine whether spatial autocorrelation and municipal-level clusters exist, year, sex, and age group (<5, 5-9) stratified Global Moran's I statistics and LISA spatial scan statistics on KD incidence were conducted. Results: A total of 98,503 cases of KD were reported in 2008-2017 (aged <5: 72,562 cases [73.7%]). Mean diagnosis age was 4.2 ± 7.0 years, and male-to-female ratio was 1.39:1. Incidence among patients aged <5 increased since 2008; the highest in 2016 (396.78 per 100,000 population). KD had seasonality of winter and summer. Epi-week 46-52 was the most frequent season for cases aged <5, while Epi-week 1-5 was the most frequent season for cases aged 5-9. 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 was consistently reported in every stratum except for '2014-15year/female/age5-9' stratum. High-high clusters were consistently detected in the eastern part of South Korea in every stratum. Conclusions: South Korea had steady increase in KD incidence since 2008 and municipal-level clusters throughout 2008-2017. Our results support that environmental factors or infectious factors could be trigger of kawasaki disease.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대전광역시 코로나-19 델타변이 전파력 분석

- 영문 제목 :

Transmission dynamics of the delta variant of SARS-CoV-2 infections in Daejeon, South Korea

- 저 자 :

황하리¹⁾, 임준식²⁾, 송선아³⁾, Chiara Achangwa²⁾, 심우범¹⁾, 류석현²⁾, 김기호¹⁾

- 소 속 :

1) 대전광역시청 감염병관리과, 2)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초록 내용 :

Background: The delta variant of SARS-CoV-2 is now the predominant variant worldwide. However, its transmission dynamics remain unclear. Methods: We analyzed all cases in local clusters and temporal patterns of viral shedding using contact tracing data from 405 cases associated with the delta variant of SARS-CoV-2 between 22 June and 31 July 2021 in Daejeon, South Korea. Results: Overall, half of the case patients were aged under 19 years, and 20% were asymptomatic at the time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We estimated the mean serial interval as 3.26 days (95% credible interval 2.92, 3.60), and 12% of the transmission occurred before symptom onset of the infector. We identified six clustered outbreaks, and all were associated with indoor facilities. In 23 household contacts, the secondary attack rate was 63% (52/82). We estimated that 15% (95% confidence interval, 13-18%) of cases seeded 80% of all local transmiss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asopharyngeal swab samples, a virus shedding was identified not only in symptomatic patients but also in asymptomatic patients. Especially, the highest viral load was observed 2 days after symptom onset. The temporal pattern of viral shedding did not differ between children and adults ($P=0.48$). Conclusion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delta variant is highly transmissible in indoor settings and households. By identifying when the virus shedding is at its peak,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Rapid contact tracing, isolation of the asymptomatic contacts, and strict adherence to public health measures are needed to mitigate the community transmission.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COVID-19 중재가 결막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영문 제목 :

The effect of intervention of COVID-19 on the occurrence of conjunctivitis

- 저 자 :

김수진¹⁾²⁾, 김지현¹⁾²⁾, 홍관¹⁾, Raquel Elizabeth Gomez Gomez¹⁾, 강민구¹⁾, Kisiju Trishna¹⁾, 천병철¹⁾²⁾

- 소 속 :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 러닝헬스시스템융합전공

- 초록 내용 :

Background: Acute Hemorrhagic Conjunctivitis (AHC) and Epidemic Kerato Conjunctivitis (EKC) are the most common conjunctivitis occur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trend and occurrence of conjunctivitis in consideration of seasonality and see the effect with COVID-19 intervention. Methods: We collected AHC and EKC like illness weekly data from 1st week of 2015 to 38th week of 2021 in from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fectious Disease Portal. We used ITS analysis to check level change before and after the 9th week of 2020. Results: From 2015 to 2020 the AHC-like illness mean was $0.62(SD \pm 0.23)$, and in 2021 it was $0.36(SD \pm 0.12)$. And from 2015 to 2020 the EKC-like illness mean was $17.50(SD \pm 7.86)$, and in 2021 it was $4.21(SD \pm 0.84)$. Whole age of AHC and EKC showed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 decreasing direction, However, When stratified by age, level change significantly decreased at EKC age group of 7-19 years old ($p < 0.02$), and trend change decreased to marginal level at age group of over 20 years old ($p < 0.05$). Conclusions: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such as social distancing might have altered trends in outbreaks of conjunctiviti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ophthalmic infectious disease such as conjunctivitis should be monitored continuously during the pandemic.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47]

- 국문 제목 :

2020년 상반기 대구지역 코로나19 유행 시 공중보건학적 대응과 발전방안

- 영문 제목 :

Public Health Response and Development Plan During the COVID-19 Epidemic in Daegu in the First Half of 2020

- 저 자 :

이화진¹⁾, 김건엽¹⁾, 김종연²⁾, 감신¹⁾, 이경수³⁾, 이종정⁴⁾, 홍남수¹⁾, 황태윤³⁾, 백하나⁵⁾

- 소 속 :

1)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경북대학교병원, 3)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 초록 내용 :

목적: 코로나19 1차 유행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을 검토하고 공중보건 위기관리 모형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방법: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된 2020년 1월 20일부터 유행이 안정된 4월 말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였다. 역학적 현황과 주요 대응들을 살펴보고, 외국에서 개발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질병 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와 대구시에서 발표한 이차자료를 활용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모형 선정을 위한 문헌 검토 및 대구의 대응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와 실무진 대상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결과: 대구의 대응을 환자 발생 상황, 주요 방역정책의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준비기와 1~3기로 구분하였다. 준비기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일부터 대구의 첫 번째 환자 발생일 전까지로,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을 준비한 시기였다. 1기는 대구 첫 번째 환자 발생일부터이며, 특정 종교집단 신도들 대상의 전수검사 및 격리조치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를 만들고 추가적인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2기부터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고위험시설의 집단감염으로 사망을 감소에 역량을 집중시켰다. 유행이 안정화된 3기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한 시기였다. 평가를 위해 선택한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모형은 6개 영역과 15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 회복 탄력성 영역은 지역사회 대비와 회복, 사례 관리 영역은 위기대응 공조, 정보 관리 영역은 위기경보 및 정보 확산, 정보 공유, 대응과 완화 영역은 의료적 대응, 의료자원 관리, 비약물적 개입, 대응인력 안전과 건강, 초과병상 수요 관리 영역은 사망자 관리, 대규모 환자 관리, 의료수요 급증, 자원봉사자 관리, 생물학적 감시 영역은 검사역량 관리, 지역사회 감시 및 역학조사 운영의 역량들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결론: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협력으로 1차 유행은 빠르게 안정되었고 시민들,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은 능동적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다. 하지만 공중보건 위기 모형의 세부적인 역량들과 대구의 대응을 비교했을 때,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도출되었다. 향후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한국형 모형 수립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국문 제목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과 인공호흡기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에 대한 대중의 선호

- 영문 제목 :

Public preferences for priority setting criteria in allocation of vaccines and ventilators in the COVID-19 pandemic

- 저 자 :

이지수¹⁾, 도영경¹⁾²⁾

- 소 속 :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 초록 내용 :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제약 상황에서는 한정된 의료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결정은 도덕적 가치 판단과 결부되며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 대중의 선호를 파악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정된 의료자원 배분의 일반 원칙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으나, 의료자원의 특성에 따라 바람직한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다르다는 규범적 주장과 해외 실증연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백신과 인공호흡기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의료자원 배분에서 한국인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과 후에 국민들의 백신 배분 우선순위 설정 기준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 11월 수행된 1차 조사에 이어 2021년 10월 2차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전국 거주 성인 1,509명(1차), 1,240명(2차, 목표치)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령, 중증장애 여부, 국적을 포함한 16개(백신), 19개(인공호흡기) 우선순위 설정 기준 각각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1차 조사 결과에서 백신 배분 기준으로는 기저질환(67.9%), 타인에의 전파 가능성(62.6%), 국적(58.1%), 중증장애(55.5%), 향후 코로나19 치료에의 기여 가능성(55.2%) 순으로 동의의 비율이 높았다. 인공호흡기 배분 기준으로는 기저질환(63.0%), 감염 상황(56.7%), 중증장애(55.2%), 국적(50.5%) 순으로 동의의 비율이 높았으며, 회복 후 기대여명(27.1%), 회복 후 장애 발생 가능성(22.9%)에 대해서는 동의의 비율이 낮았다. 연령의 경우 백신과 인공호흡기 모두에 있어 30세보다는 60세가, 30세보다는 10세가 우선순위를 가짐이 관찰되었으나, 10세와 60세 사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백신과 인공호흡기 배분 공히, 접종 대상의 인종,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과거에 누린 삶의 기회와 경험을 배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20%에 미치지 못하였다. (2차 조사는 2021년 10월 1일 조사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이며 학술대회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49]

- 국문 제목 :

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와 독거 상태의 조절효과: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 영문 제목 :

Regional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 on the Depression of the Korean Elderl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Living Alone

- 저 자 :

김찬기, 장은지, 김창엽

- 소 속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Objectives: The disadvantaged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elderly not only directly affect their health, but also interact with other factors. In particular, the social relations of the elderly may have different aspects and subjective meanings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We examined how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 on depression differ according to status for living alone and residential area. Methods: We defined social relations as meeting with neighbors(MN), and investigated the effect on depression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panel data through the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GEE) model. In addition, we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tatus for living alone and performed subgroup analysis by dividing the subjects into large cities, rural areas, and medium-small cities. Results: MN was associated with reducing depression, and the size of the effect was larger in rural areas than in large cities.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tatus for living alone was significant only in rural areas.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MN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living alone was smaller than in the elderly living with others in rural areas. Conclusions: Interventions that support meeting with neighbors and facilitate interpersonal relations need to be implemented to promote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However, the effect may be different for the elderly in different socio-cultural environ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various contextual factors may interact with each other.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50]

- 국문 제목 :

코로나19 발생 전후 건강행태 및 우울감 특성 비교 - 2019-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용한 분석 -

- 영문 제목 :

Comparison of health behavior and depression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COVID-19

- 저 자 :

서영미, 박기수

- 소 속 :

경상국립대학교 보건대학원

- 초록 내용 :

배경 : 이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자연실험 상황을 이용하여 코로나19의 발생이 주민들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및 우울감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발생의 차이가 지역 간 우울감 및 건강행태에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방법 : 코로나19 발생 전(2019년)과 발생 후(2020년) 두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카이제곱검정),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우울감, 건강행태를 각각 포함할 것이며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상태를 보정변수로 포함하고 독립변수는 조사시기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지역 간 비교를 위해 2020년 경상남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기간(2020. 8.16. ~ 10.31.) 중 2020년 8월 31일 기점으로 경남지역 보건소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시: 10명 이상, 군: 5명 이상)과 적게 발생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 지역 간 주민들의 건강행태와 우울감이 차이가 있는지와 코로나19 발생이 이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에도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상태를 보정변수로 포함하고, 코로나19 발생률로 다량 발생지역과 드문 지역을 구분한 것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복합표본설계조사로 자료 분석시 가중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5.0을 사용하였다.

결과 : 코로나19 발생 전(2019년)과 발생 후(2020년) 경남지역 주민들의 건강행태 및 우울감을 비교를 위한 다중 로지스틱 결과(2020년 결과/2019년 결과), 건강행태 부분에서는 금연시도율(OR=0.395, P<0.001), 월간음주율(OR=0.813, P<0.001), 고위험음주율(OR=1.236, P<0.001), 걷기실천율(OR=1.504, P<0.001)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우울감 부분에서는 우울감경험률(OR=1.515, p<0.001), 우울증상유병률(OR=1.272, p=0.001)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후 발생률 차이(발생 많은 지역/발생 적은 지역)에 따른 2020년 경남지역 주민들의 건강행태 및 우울감 비교를 위해 다중 로지스틱 결과 건강행태 부분에서는 월간음주율(OR=1.111, p=0.017)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우울감 부분에서는 우울감경험률(OR=1.614, p<0.001), 우울증상유병률(OR=1.688, p<0.001)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결론 : 코로나19 발생은 경상남도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 및 우울감에 영향을 주었고 유행의 정도에도 건강행태 및 우울감의 지역 간 격차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건강 정책 개발을 위해 건강 문제를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로써 가치를 연구한다. 또한, 효과적인 관리사업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전 국민 건강 생활 습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대한예방의학회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과 해소를 위한 학술활동 촉진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음.



초록 등재번호 : [O-051]

- 국문 제목 :

한국의 개인, 가구, 지역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질병, 불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2019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중심으로

- 영문 제목 :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Individuals, Households, and Regions on Disease, Un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 저 자 :

김혜리(제1저자), 노민지(교신저자), 손미아(교신저자)

- 소 속 :

강원대학교 예방의학소속

- 초록 내용 :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가구별, 지역적 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각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의 차이가 지역 간의 차이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불건강과 질병 완화 삶의 질 개선 사업 방향에 제안을 줄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은 질병, 불건강,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구, 지역 요인을 찾고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19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결과 첫째, 개인 수준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육체적 노동자 직업일수록, 결혼 대비 이혼일수록, 경제 활동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삶의 질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가구 수준에서는 1세대에 비해 2, 3세대일수록 삶의 질과 건강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식생활 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삶의 질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 수준에서는 1인당 년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러한 연구는 건강불평등 완화에 있어 개인 요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가구, 지역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52]

- 국문 제목 :

한국의 개인별 위험요인과 지역적 요인이 인지장애 유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사회건강조사(2018-2019)를 중심으로

- 영문 제목 :

Effect of individual risk factors and regional factors on the prevalence of cognitive disorder in
Korea: the Community Health Survey (2018-2019)

- 저 자 :

노민지

- 소 속 :

강원대학교 예방의학과소속

- 초록 내용 :

이 연구의 목표는 개인의 사회경제인구학적 및 건강 요인과 건강 증진이 실천되는 공간인 지역의 사회구조적 맥락 요인에 있어 인지 장애 유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2018, 2019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연령이 40 이상인 대상자 452,335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인지장애 유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인구학적 및 건강 요인 변수는 카이제곱법을 수행하였고, 지역적 요인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 시군구변수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각각 5분위수로 범주화한 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인적 요인 변수와 지역적 요인 변수 모두 고려한 모델에서는 로지스틱 다수준분석을 통하여 요인들이 인지장애 유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개인적 요인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일 때, 고령일수록, 이혼/사별 경험자, 1인가구, 기초수급자, 저학력, 경제활동을 안 할 때, 사무직일 때, 주관적 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상태가 나쁠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우울감이 심할 때, 고혈압, 당뇨병이 있을 때, 사고 중독 경험이 있을 때, 영양표시를 활용할 때, 체중 증가 경험이 있을 때, 삶의질이 나쁠 때 인지장애 유병률이 높았다.($<.0001$) 지역적 요인에서는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지역, 전체 병원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 종사수가 낮은 지역, 지역안전등급이 낮은 지역, 물질적 결핍지수가 높은 지역에서 유병률이 높았으며($<.0001$) 생활폐기물배출량이 적은 지역, 폐수발생량이 적은 지역,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유병률이 낮았다.($<.0001$) 인지장애 유병은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에 모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지장애 질병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 단위의 요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의 관심이 필요하다.

- 이해상충여부 :

2021년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과 해소를 위한 학술활동 촉진 연구사업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O-053]

- 국문 제목 :

코로나19 유행 시기 초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건강 결정요인 연구 -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 영문 제목 :

Machine learning approaches to the determinants of excess deaths during COVID19 pandemic

- 저 자 :

김은아¹⁾, 조성일¹⁾²⁾

- 소 속 :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 초록 내용 :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의 질병 부담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지역별 초과 사망을 산출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결정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망률은 계절성 및 변동경향성을 지니므로 초과 사망 산출 시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도 월별 조사사망률을 모형에 적합하여 2020년도 기대값을 산출한 뒤, 실제 2020년도 관측치와의 차이를 초과 사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Lasso, Elastic net, Ridge regression 과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초과 사망에 대한 최적의 예측 요인을 선별하였다. 분석 결과, 250개 시, 군, 구 중에서 53개 지역은 초과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던 반면, 인구 10만명당 1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이 발생한 고위험 지역도 총 25개에 이르러 지역간 격차가 컸다. 지역사회의 건강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Elastic net 모형이 가장 적은 예측 오차를 보이는 최적의 예측 모형이었다. 해당 모형에서는 지역사회가 고령화 된 곳일수록, 필수진료과 의원이 적을 수록, 당뇨 및 고혈압 유병률이 높을수록 초과 사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팬데믹 시기의 초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의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2021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과 해소를 위한 학술활동 촉진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초록 등재번호 : [O-054]

- 국문 제목 :

2015년 담배가격인상정책 시행 이후, 금연 시도 및 성공 영향요인 탐색

- 영문 제목 :

ASSOCIATED FACTORS WITH ATTEMPT AND SUCCESS TO QUIT SMOKING: AFTER THE 2015 TAX POLICY IN KOREA

- 저 자 :

김슬기, 조성일

- 소 속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초록 내용 :

Objectives: Various tobacco control policies implemented worldwide to regulate smoking have proven effective. Lots of countries reduced smoking prevalence, but smoking remains a leading contributor.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identify associated factors with smoking behaviors, especially community-level measurements. Methods: Subjects were 41,605 men aged 19 and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in 2015 and answered that they were current smokers ($n = 37,271$) or past smokers whose smoking cessation period was less than one year ($n = 4,334$). Community-level variables were derived from the 2015 Korea Population and Housing survey. Results: Among the 41,605 male respondents, 16,567 (42.45%) smokers attempted to quit smoking within one year. Of those who attempt to quit smoking within the past year, 4,334 attempters succeed in quitting smoking. Compared to the highest education level, the lowest has the OR value of 0.80 (CI = 0.71, 0.90). Single showed the lower OR value of 0.90 (CI = 0.84, 0.97) than married people. As for the community socioeconomic status, the lowest group has a higher OR value of 1.45 (CI = 1.22, 1.72) compared to the highest. The higher prevalence of current smoking in the residential area has a lower OR value of 0.90 (CI = 0.83, 0.98). Conclusions: This study intended to find the associated factors with smoking-related behavior changes among Korean male smokers. Regional deprivation is associated with smoking cessation attempts. The prevalence of current smoking in the community was correlated with whether attempt and succeed to quit smoking.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CDA), Republic of Korea.

발표연제: E-포스터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발표연제: E-포스터

E-포스터 1 : 관리 1

좌장: 권근상 (전북의대)

코드	저자	소속	제목
P-001	Xuan Quy Luu ¹⁾ , 이경민 ¹⁾ , 전재관 ²⁾ , 서민아 ²⁾ , 정규원 ²⁾ , 최귀선 ¹⁾	1)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2)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가암검진 데이터를 이용한 대장암 검진이 대장암 환자의 장기 생존에 미치는 영향 평가
P-002	Thao Thi Kim Trinh ¹⁾ , 이윤영 ²⁾ , 이경민 ¹⁾ , 전재관 ¹⁾²⁾ , 서민아 ¹⁾²⁾ , 김열 ¹⁾²⁾ , 최귀선 ¹⁾²⁾	1)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2) 국가암관리 사업본부	코로나 발생 이전 및 발생 도중의 암검진 수검률 비교: 2019년, 2020년 국가암검진 수검행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P-003	노은정 ¹⁾ , 강희연 ²⁾ , 박진옥 ³⁾ , 김익한 ⁴⁾ , 강영호 ¹⁾²⁾	1)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3) 계명대학교 식품보건학부 공중보건전공 4)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학교실	우리나라 소지역별 암제거 기대수명과 지역별 건강 보험료와의 연관성
P-004	조하현 ¹⁾ , 이윤영 ¹⁾ , 서민아 ¹⁾²⁾ , 전재관 ¹⁾²⁾ , 최귀선 ¹⁾²⁾	1)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2) 국립암센터	국가 암 검진 자궁경부암 Pap smear와 HPV DNA 검진: 2019, 2020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Survey (KNCSS)
P-005	김세영 ¹⁾ , 김지연 ²⁾ , 강수진 ¹⁾ , 황승식 ²⁾	1)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조기감지 및 위기관리 의사소통: 스코핑 리뷰
P-006	조희숙 ¹⁾ , 이종선 ²⁾ , 정수미 ³⁾ , Dronina Yuliya ¹⁾ , 박양준 ¹⁾	1) 강원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2)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3)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농촌 중년여성 비만원인 진단을 위한 사회생태학적 모형 기반 탐색적 연구
P-007	임다솜 ¹⁾ , 이하늘 ¹⁾²⁾ , 표지희 ¹⁾²⁾ , 최은영 ¹⁾²⁾ , 이원 ³⁾ , 장승경 ⁴⁾ , 옥민수 ¹⁾²⁾⁵⁾	1)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2)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3)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4)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5)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국외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가이드라인 비교 검토
P-008	김태현 ¹⁾ , 신영전 ²⁾	1)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국내 의료공공성 담론의 변천: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P-009	표지희 ¹⁾²⁾ , 이하늘 ¹⁾ , 옥민수 ¹⁾²⁾³⁾	1)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아산의학융합원 의과학과 3)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지역사회 건강 환경에 관한 인식 및 경험: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활용한 질적 연구
P-010	황태윤 ¹⁾²⁾ , 박은진 ¹⁾ , 이상미 ¹⁾ , 윤현휘 ¹⁾ , 진광숙 ¹⁾ , 최다은 ¹⁾ , 최정인 ¹⁾ , 최윤정 ¹⁾	1)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2)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코로나19시대 비대면 영양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 실시간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례 -

E-포스터 2 : 관리 2

좌장: 이지혜 (을지대의)

코드	저자	소속	제목
P-011	김채봉 ¹⁾ , 윤석준 ²⁾	1) 고려대학교 보건학협동과정,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북한이탈주민의 사망과 자살 요인
P-012	이보미 ¹⁾ , 이강숙 ¹⁾²⁾ , 이다현 ¹⁾²⁾	1)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중·장년층에서 자아 효능감, 노후생활 인식 및 은퇴 준비와 심리적 안정감과의 관련성
P-013	이승철, 이루겸, 오창모, 오인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병 이용 행태와 간병비 차이
P-014	이민정 ¹⁾ , 신영전 ²⁾	1)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병상수급 불균형이 가용성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 지역 간 격차를 중심으로
P-015	황태윤 ¹⁾²⁾ , 이희숙 ¹⁾ , 이경미 ¹⁾ , 윤샘이 ¹⁾ , 최정인 ¹⁾ , 박은진 ¹⁾	1)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2)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코로나19 시대 「건강드림 대구」 비대면 시민건강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례
P-016	조훈 ¹⁾²⁾³⁾ , 이호희 ¹⁾ , 김동현 ⁴⁾ , 공인덕 ⁵⁾⁶⁾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재활치료학과 3)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유전체코호트연구소 4)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5)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생리학교실 6) 연세대학교 운동의학센터	걷기 관련 환경 요인들의 만족도 비교 연구
P-017	최민재 ¹⁾ , 이요한 ¹⁾²⁾ , 이은혜 ¹⁾ , Joshua Kirabo Sempungu ²⁾	1)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2)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지역박탈지수에 따른 전체 사망과 주요 10대 사인의 건강불평등 추이
P-018	전승연	중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건강사회경제학연구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계층간 흡연, 음주에 관한 건강격차 비교: 2017-2020 년 데이터 활용
P-019	박은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코로나19 이후 생활습관 변화: 지역수준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다수준 분석
P-020	황태윤, 김진희, 박은진, 소유정, 이미순, 진민정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실시간 온라인 시민건강강좌 운영 사례
P-021	황태윤 ¹⁾²⁾³⁾ , 김은주 ¹⁾ , 박은진 ¹⁾ , 이승희 ¹⁾ , 양경숙 ³⁾ , 장미나 ⁴⁾	1)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2)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4)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코로나19 시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례

E-포스터 3 : 관리 3		좌장: 장석용 (연세대)	
No	저자	소속	제목
P-022	차윤정 ¹⁾ , 이강숙 ¹⁾²⁾ , <u>이다현</u> ¹⁾²⁾	1)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코로나19 대응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P-023	최보은 ¹⁾ , 이강숙 ¹⁾²⁾ , <u>이다현</u> ¹⁾²⁾	1)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근로자의 신체활동 및 스트레스의 매일 흡연과의 관련성
P-024	이안나 ¹⁾²⁾ , <u>이강숙</u> ¹⁾²⁾³⁾⁴⁾ , 이다현 ²⁾³⁾ , 안혜주 ⁴⁾ , 이현경 ⁴⁾ , 김혜경 ⁴⁾⁵⁾ , 이자경 ⁴⁾⁶⁾ , 서홍관 ⁴⁾⁷⁾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학 4) 한국금연운동협의회 5)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 6)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7) 국립암센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여성흡연자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P-025	<u>배지은</u> ¹⁾ , 김철웅 ¹⁾²⁾ , 임효빈 ¹⁾ , 이승은 ¹⁾	1)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2)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금연 의도의 차이
P-026	표지희 ¹⁾²⁾ , <u>정혜란</u> ¹⁾²⁾ , 옥민수 ¹⁾³⁾	1)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아산융합의학원 의과학과 예방의학 3)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치매환자 주조호자의 돌봄 경험 관련 삶의 질 조사
P-027	<u>정윤희</u> ¹⁾²⁾ , 박유신 ¹⁾²⁾ , 박은철 ²⁾³⁾ , 장성인 ²⁾³⁾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살펴본 전염병이 발생한 연도들과 손 씻기 행태의 관계
P-028	<u>김진이</u> ¹⁾ , 홍지윤 ²⁾ , 손희정 ³⁾ , 신영진 ⁴⁾	1)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2) 건강보험연구원 3)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 4)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연구 및 정책평가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P-029	<u>민혜숙</u> , 문세람, 장윤미, 조인희, 전재현, 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병원 내 보건의료종사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혼합연구
P-030	<u>장지은</u> (공동1저자) ¹⁾ , 이두웅(공동1저자) ²⁾ , 서정환(공동교신저자) ³⁾ , 신재용(공동교신저자) ⁴⁾	1)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2)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코로나 대유행이 당뇨병환자의 당뇨합병증 수검에 미치는 영향
P-031	<u>박한울</u> ¹⁾ , 이강숙 ¹⁾²⁾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국 청소년의 가족구조와 건강 행동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도와의 연관성
P-032	<u>우경숙</u> ¹⁾ , 신영진 ²⁾	1) 한양대학교 건강과 사회 연구소 2) 한양대학교 예방의학	독일 법정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도 고찰 및 시사점
P-033	<u>최주희</u> ¹⁾ , 김창수 ²⁾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중간위험도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NOACs와 warfarin의 비용효과성 분석

E-포스터 4 : 환경 1

좌장: 배상혁 (가톨릭의대)

코드	저자	소속	제목
P-034	<u>Ulziikhishig Surenbaatar</u> ¹⁾ , 김병권 ¹⁾ , 손현진 ¹⁾ , 조성식 ²⁾ , 김권민 ³⁾ , 임현주 ³⁾ , 권정연 ³⁾ , 김기환 ⁴⁾ , 홍영습 ¹⁾³⁾	1)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3) 동아대학교 중금속노출 환경보건센터 4) (주)젠큐브플러스	폐금속광산 지역 주민의 비소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As3MT, GSTO1 유전자 다형성 연구
P-035	<u>Ulziikhishig Surenbaatar</u> ¹⁾ , 김병권 ¹⁾ , 손현진 ¹⁾ , 조성식 ²⁾ , 김권민 ³⁾⁵⁾ , 임현주 ³⁾ , 권정연 ¹⁾ , 김기환 ⁴⁾ , 홍영습 ¹⁾³⁾	1)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3) 동아대학교 중금속노출 환경보건센터 4) (주)젠큐브플러스 5)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	폐금속광산 지역 주민의 요 중 비소종별 농도와 노출요인 평가
P-036	<u>권정연</u> ¹⁾ , <u>Ulziikhishig Surenbaatar</u> ¹⁾ , 민재희 ¹⁾ , 김병권 ¹⁾²⁾ , 엄상용 ³⁾ , 조용민 ⁴⁾ , 김우진 ⁵⁾ , 김정웅 ⁶⁾ , 홍영습 ¹⁾²⁾	1)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동아대학교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3)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4) 서경대학교 나노화학생명공학과 5) 강원대병원 내과학교실 및 환경보건센터 6)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	오믹스 분석을 통한 환경보건취약지역 주민의 환경성질환 원인물질 추적 기술 개발 연구 사업단 소개
P-037	<u>최선경</u> ¹⁾ , 박채율 ¹⁾ , 정승훈 ¹⁾ , 이정하 ¹⁾ , 안연순 ²⁾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구미 불산사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만성건강영향 추적연구
P-038	<u>민재희</u>	동아대학교 중금속노출 환경보건센터	환경보건캠프 자료를 이용한 일반 인구집단 중금속 노출 수준
P-039	<u>김권민</u> ¹⁾²⁾ , 김나영 ²⁾ , 임현주 ²⁾ , 강민경 ²⁾ , 박경원 ³⁾ , 조성식 ²⁾⁴⁾ , 권정연 ⁵⁾ , 손현진 ²⁾⁵⁾ , 김병권 ²⁾⁵⁾ , 홍영습 ²⁾⁵⁾	1)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 2) 동아대학교 중금속 노출 환경보건센터 3) 동아대학교 신경과 4) 동아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5) 동아대학교 예방의학과	인지기능이 저하된 한국 고령자의 체내 중금속 농도 기준
P-040	<u>박민아</u> ¹⁾²⁾ , Fatima Nari ¹⁾²⁾ , 정원정 ¹⁾²⁾ , 박은철 ²⁾³⁾ , 장성인 ²⁾³⁾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직업 소음, 진동과 불안의 연관성
P-041	<u>엄상용</u> ¹⁾ , 김용대 ¹⁾²⁾ , 김현 ¹⁾²⁾	1)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암 진단 이후 미세먼지 노출이 암환자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암등록자료 기반 코호트 연구
P-042	<u>Nguyen Thi Cham</u> , 김선영	국립암센터, 암과학정책대학원	미세먼지 대기오염 자료에 따른 질병부담 추정결과의 차이

E-포스터 5 : 역학 1

좌장: 김창수 (연세의대)

코드	저자	소속	제목
P-043	Bolormaa Erdenetuya, 최승아	고려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여성에서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과 자궁경부암 검진 행태
P-044	안지수 ¹⁾ , 박소희 ²⁾ , 김희진 ³⁾⁴⁾ , 지선하 ³⁾⁴⁾	1)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통계학과 3)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4)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COVID-19의 기초감염재생산수 추정값 메타분석
P-045	홍관 ¹⁾ , 김지현 ¹⁾²⁾ , 김수진 ¹⁾²⁾ , Raquel Elizabeth Gomez Gomez ¹⁾ , Kisiju Trishna ¹⁾ , 강민구 ¹⁾ , 천병철 ¹⁾²⁾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 러닝헬스시스템융합전공	COVID-19의 급성 합병증으로서의 당뇨병의 발생
P-046	김은수 , 정은호, 신선경, 서해민, 방윤아, 김진, 남해성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ChAdOx1 nCoV-19 Vaccine 1차와 2차 접종 후 이상증상 경험 양상
P-047	박은혜 ¹⁾ , 하재영 ¹⁾ , 강수진 ²⁾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코로나19 예방 전략으로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P-048	김준형 ¹⁾ , 조수영 ¹⁾ , 최윤영 ¹⁾ , 하재영 ¹⁾ , 남희경 ¹⁾ , 민경덕 ²⁾ , 조성일 ¹⁾²⁾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분석 연구
P-049	우상욱 , 임지애, 강기석, 최동권, 서정은, 김진아, 정승희, 한대희, 최종혁, 최현준, 권호장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충남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인구학적 특성 분석
P-050	홍관 ¹⁾ , 김지현 ¹⁾²⁾ , 김수진 ¹⁾²⁾ , Raquel Elizabeth Gomez Gomez ¹⁾ , Kisiju Trishna ¹⁾ , 강민구 ¹⁾ , 천병철 ¹⁾²⁾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 러닝헬스시스템융합전공	유행성 이하선염의 시공간 역학 및 관련 지역 요인
P-051	최현준 , 임지애, 강기석, 최동권, 서정은, 김진아, 정승희, 한대희, 우상욱, 최종혁, 권호장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충청남도 카비페넨내성장내세균속군중(CRE) 감염증 발생률 및 사망추이(2018~2020)

코드	저자	소속	제목
P-052	이경수 ¹⁾ , 류남희 ²⁾ , 권기태 ³⁾ , 김건엽 ⁴⁾ , 김종연 ⁵⁾ , 박지혁 ⁶⁾ , 안준홍 ⁷⁾ , 이종호 ⁸⁾ , 이종정 ⁹⁾ , 장윤영 ¹⁰⁾ , 허지안 ¹¹⁾ , 홍남수 ⁴⁾ , 황준현 ¹²⁾ , 김상경 ¹³⁾ , 김유경 ¹⁴⁾ , 박성균 ¹⁵⁾ , 이재희 ¹⁶⁾ , 장순희 ¹⁷⁾ , 함지연 ¹⁸⁾ , 김태엽 ¹⁹⁾ , 민도식 ¹⁹⁾ , 안선우 ¹⁾ , 조영남 ¹⁾ , 허소진 ¹⁾	1)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교실 3)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4)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경북대학교병원 6)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7)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8)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9)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0)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11)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12)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3)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14)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15)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16) 대구동산병원 17) 대구파티마병원 진단검사의학과 1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19) 씨젠의료재단	코로나19 집단발생지역 일반 거주자 및 확진자 면역도 조사
P-053	차선화 ¹⁾ , 권상일 ¹⁾ , 정은영 ¹⁾ , 김유진 ¹⁾ , 김동현 ¹⁾ , 안순기 ¹⁾²⁾	1)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시민의 COVID-19 백신 접종 의도 영향 요인
P-054	안경환 ¹⁾ , 최윤수 ¹⁾²⁾ , 최보울 ¹⁾²⁾ , 박보영 ¹⁾²⁾	1) 한양대학교 건강과사회연구소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HIV감염자에서 암 발생 현황: 일반인구 집단과의 비교
P-055	강민정 ¹⁾ , 이경수 ²⁾	1)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코로나19 중증 악화 위험요인이 코로나19 염려, 정신건강, 의료이용행태 및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 흡연, 고혈압, 당뇨병을 중심으로
P-056	최동권, 권호장, 임지애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제조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
P-057	서정은, 임지애, 강기석, 최동권, 정승희, 한대희, 우상욱, 최현준, 김진아, 권호장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충남 코로나19 확진자의 재원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생존 분석
P-058	정승희, 강기석, 권호장, 임지애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항색포도알균 및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역학조사 집단발생 사례분석
P-059	이경민 ¹⁾ , LuuXuanQuy ¹⁾ , 전재관 ¹⁾²⁾ , 서민아 ²⁾ , 정규원 ²⁾ , 최귀선 ¹⁾²⁾	1)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2)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위내시경 검진의 위암 진단당시 병기에 미치는 영향 평가
P-060	홍유진 ¹⁾²⁾³⁾ , 성소슬 ¹⁾²⁾⁴⁾ , 고광필 ⁵⁾ , 김민아 ⁶⁾ , 이정은 ⁷⁾ , 지선하 ⁸⁾ , 권순석 ⁹⁾ , 박상민 ¹⁰⁾ , 류성호 ¹¹⁾ , 양선영 ¹²⁾ , 김정선 ¹³⁾ , 이상욱 ¹⁴⁾ , 박수경 ¹⁾²⁾³⁾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3) 서울대학교 의학과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5) 분당서울대학교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 6)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7)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8)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9)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11)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12)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13) 국립암센터 암역학예방연구부 14)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메타분석을 이용한 유방암과 그에 따른 생식요인들의 연관성 연구

E-포스터 7 : 역학 3			좌장: 임지선 (을지의대)
No	저자	소속	제목
P-061	문한빛 ¹⁾ , 김희진 ²⁾ , 심재용 ³⁾ , 강희철 ³⁾	1)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3) 연세대학교 의학과 가정의학교실	한국형 관상동맥 위험도와 인지기능 사이의 관계
P-062	이혜아 ¹⁾ , 박혜숙 ²⁾³⁾	1)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임상시험센터 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이화여자대학교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중년 성인의 당뇨 위험 예측 모델: 지역사회기반 코호트
P-063	Naharin Sultana Anni, 김현창	연세대학교 보건학과	고혈압에 대한 복부 지방 혈중 지수와 중성지방-포도당 지수의 상호 작용
P-064	양정호 ¹⁾ , 정지안 ¹⁾ , 권순석 ¹⁾ , 이용훈 ²⁾ , 최성우 ³⁾ , 류소연 ³⁾ , 남해성 ⁴⁾ , 박경수 ⁵⁾ , 김혜연 ⁶⁾ , 신민호 ¹⁾	1) 전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2)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3) 조선대학교 예방의학교실 4) 충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5) 목포중앙병원 심뇌혈관센터 6) 전남대학교병원 심뇌혈관센터	한국 성인에서 심방 세동과 사망률의 연관성: 동구 코호트 연구
P-065	김민경, 이해경, 권문진, 박재경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뇌질환연구과	한국 성인의 허리둘레-신장 비와 뇌졸중 발병위험 간의 연관성: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활용한 코호트 연구
P-066	김의정 ¹⁾²⁾ , 박현진 ¹⁾²⁾ , 최은정 ²⁾ , 이해아 ³⁾ , 박보미 ⁴⁾ , 김혜순 ⁵⁾ , 홍영선 ⁶⁾ , 정승연 ¹⁾⁷⁾ , 박혜숙 ¹⁾²⁾	1) 이화여자대학교 시스템헬스융합전공 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임상시험센터 4)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6)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7)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대학 식품영양학과	잠재적 계층분석을 활용한 청소년기 생활습관 유형화와 대사증후군 점수에 대한 연관성 분석 : 이화 출생코호트 기반
P-067	김민지 ¹⁾²⁾ , 우혜원 ²⁾³⁾ , 신민호 ⁴⁾ , 고상백 ⁵⁾ , 김현창 ⁶⁾ , 김유미 ¹⁾²⁾³⁾ , 김미경 ¹⁾²⁾³⁾	1)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보건통계학과 2) 한양대학교 건강과사회 연구소 3)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식이 철, 구리, 아연 섭취와 제 2형 당뇨병 위험의 연관성: 한국인유전체역학연구_농촌코호트
P-068	김영운 ¹⁾ , 구재욱 ²⁾ , 윤건 ¹⁾ , 이동훈 ¹⁾ , 최형석 ¹⁾ , 이유미 ²⁾	1)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2)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국의 성인 당뇨병 유병자에서 당뇨 유병 기간에 따른 생활 습관과 혈당 조절
P-069	공지숙 ¹⁾²⁾ , 우혜원 ¹⁾²⁾ , 김유미 ¹⁾²⁾³⁾ , 신민호 ⁴⁾ , 고상백 ⁵⁾ , 김현창 ⁶⁾ , 김미경 ¹⁾²⁾³⁾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양대학교 건강과 사회 연구소 3)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보건통계학과 4)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0세 이상 성인에서 DASH 식이 및 그 구성 요소와 고혈압의 전 향적 연관성
P-070	양나래 ¹⁾²⁾ , 김미경 ¹⁾²⁾ , 우혜원 ¹⁾²⁾ , 김유미 ¹⁾²⁾ , 신민호 ³⁾ , 고상백 ⁴⁾ , 김현창 ⁵⁾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양대학교 건강과 사회연구소 3)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직업의학연구소 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0세 이상 성인에서 견과류 섭취와 대사증후군 발생의 연관성
P-071	한지원	중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COVID-19 대유행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과 비만율의 계층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2017-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
P-072	송모세, 김현창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중년층 한국인의 앉아있는 시간, 신체활동, 그리고 HOMA-IR

E-포스터 8 : 역학 4			좌장: 이주미 (을지의대)
코드	저자	소속	제목
P-073	임성하 ¹⁾ , 이슬람 ¹⁾²⁾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모낭성 편평태선의 발생률 및 동반질환
P-074	도경이 ¹⁾ , 문숙 ²⁾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한국 노인의 구강불편감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
P-075	이현주 ¹⁾ , 장재승 ²⁾ , 안지현 ³⁾ , 김문영 ⁴⁾ , 박규상 ²⁾ , 안연순 ¹⁾ , 고상백 ¹⁾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생리학교실 3)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4)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초음파, MRI-PDFF, CNS로 진단된 NAFLD와 저근육량과의 연관성
P-076	이유진 ¹⁾ , 정선재 ²⁾	1) 연세대학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우울증상의 아형에 따른 저밀도지방단백질의 이질적 연관성
P-077	최민재 ¹⁾ , 이요한 ¹⁾²⁾ , 이은혜 ¹⁾ , Joshua Kirabo Sempungu ²⁾	1)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2)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경제적 어려움의 변화와 우울의 연관성: 종교의 완충효과 확인
P-078	박현진 ¹⁾²⁾ , 김의정 ¹⁾²⁾ , 최은정 ²⁾ , 전승희 ¹⁾²⁾ , 이원경 ³⁾ , 박주옥 ⁴⁾ , 박혜숙 ¹⁾²⁾	1) 이화여자대학교 시스템헬스융합전공 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예방관리과 4)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고령자 손상의 추세 및 역학적 특성
P-079	노은정 ¹⁾ , 강영호 ¹⁾²⁾	1)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우리나라 비육체직과 육체직간 사망불평등: 국민건강영양조사-사망원인통계 연계자료 분석
P-080	이성희 ¹⁾ , 최은정 ¹⁾ , 김의정 ¹⁾³⁾ , 박현진 ¹⁾³⁾ , 이해아 ²⁾ , 박혜숙 ¹⁾³⁾	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이대목동병원 임상시험 센터 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헬스케어&엔지니어링 학과	한국 소아청소년에서 혈중요산농도와 체질량지수의 궤도 모형이 간효소 수치에 미치는 영향
P-081	김은샘 ¹⁾ , 이윤환 ¹⁾ , 윤지혜 ¹⁾ , 원장원 ²⁾ , 김미지 ³⁾ , 장숙량 ⁴⁾	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3)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4)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노인 대상 조사항목 개발
P-082	김경민 ¹⁾ , 정현숙 ²⁾ , 임현우 ²⁾	1)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청소년 남녀에서의 게임 스트리밍 사용은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 발생의 예측요인인가? : 12개월 추적
P-083	남희경 ¹⁾ , 강희원 ²⁾ , 강수진 ²⁾ , 전성희 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서울시 집값지수와 우울증의 상관관계
P-084	김세영 ¹⁾ , 최승아 ²⁾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한국 여성에서의 중증 전자간증의 연령별 위험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
P-085	김지은, 성주현, 이수지	서울대학교	데이터의 공정성: 개념과 지표의 역학적 이해
P-086	홍지연 ¹⁾²⁾ , 김미경 ¹⁾²⁾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양대학교 지역사회보건연구소	식이섭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만성질환 위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P-087	김진형 ¹⁾ , 신영전 ²⁾	1)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 발생률과 위험요인



- 국문 제목 :

국가암검진 데이터를 이용한 대장암 검진이 대장암 환자의 장기 생존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영문 제목 :

Effect of colorectal cancer screening on long-term survival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Results of the Korea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 저 자 :

Xuan Quy Luu¹⁾, 이경민¹⁾, 전재관²⁾, 서민아²⁾, 정규원²⁾, 최귀선¹⁾

- 소 속 :

1)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2)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 초록 내용 :

Background The Korea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KNCSPP) provides fecal-immunochemical (FIT) based colorectal cancer (CRC) screening for Koreans aged ≥ 50 year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ong-term survival effects of CRC screening based on the screening history and screening interval. **Methods** The study cohort was obtained by linking three national databases, including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KNCSPP database, and Death Certificate. We included 32,509 CRC patients diagnosed in 2008-2009, who underwent CRC screening via the KNCSPP between 2004 and 2009. The patients were followed-up until 2019, and their survival was assessed according to their CRC screening history.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was used to compare time to deaths among CRC patients according to CRC screening history,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Results** Of 32,509 patients, 20,022 (61.5%) patients were alive by the end of 2019. Long-term survival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screened patients (68.2%) than non-screened (57.2%) individuals. Compared with never-screened patients, the hazard ratio (HR) for CRC-specific death in screened patients was 0.77 (95% CI, 0.73-0.80). Lowest HR was observed in screened, localized CRC patients (HR, 0.48; 95% CI, 0.42-0.56); HR for CRC-specific death was the lowest within 12 months of diagnosis (HR, 0.70; 95% CI, 0.66-0.74), following which, the HRs increased with increasing time interval. **Conclusions** CRC screening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avorable prognosis of CRC patients aged 50-79 years. The effects on long-term survival according to interval time was the best among individuals screened within one year before diagnosis.

- 이해상충여부 :

The authors declare that there is no conflict of interest.

- Acknowledgement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in-Aid for Cancer Research and Control from the National Cancer Center of Korea (#1910231). The author XQL express his appreciation for the education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 Education Program (NCCRI-NCCI 52210-52211, 2021)" of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 국문 제목 :

코로나 발생 이전 및 발생 도중의 암검진 수검률 비교: 2019년, 2020년 국가암검진 수검행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 영문 제목 :

Changes in cancer screening before and during COVID-19: Findings from the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Survey 2019 and 2020

- 저 자 :

Thao Thi Kim Trinh¹⁾, 이윤영²⁾, 이경민¹⁾, 전재관¹⁾²⁾, 서민아¹⁾²⁾, 김열¹⁾²⁾, 최귀선¹⁾²⁾

- 소 속 :

1)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2) 국가암관리 사업본부

- 초록 내용 :

Background: COVID-19 pandemic has negatively affected every aspect of medical care. However,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influence of the pandemic on cancer screening. In this study, we aimed to explore the potential differences in change of cancer screening by geographic region before and during the pandemic in South Korea. Methods: We used the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Survey in 2019 and 2020. We assessed the changes in cancer screening rate (percentage point-pp) for stomach, colorectal, breast, and cervical cancer by subtracting the screening rate to the rate in 2019.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cancer screening rates at the national and 16 provincial level after the COVID-19 outbreak. Results: The screening rates within one year for four types of cancer decreased during the pandemic (stomach: -5.1pp, colorectal: -3.8pp, breast: -2.5pp, and cervical cancer: -1.5pp). In metropolitan areas, the likelihood of undergoing screening tests during the pandemic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before for stomach (OR = 0.66, 95%CI: 0.56-0.76), colorectal (OR = 0.63, 95%CI: 0.50-0.79), and breast cancer (OR = 0.75, 95%CI: 0.60-0.94). Further, the likelihood of undergoing stomach cancer screening during the pandemic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before in urban areas (OR = 0.81, 95%CI: 0.70-0.94), while it was higher in rural areas (OR = 1.54, 95%CI: 1.10-2.16). Conclusion: Since the COVID-19 pandemic began, the cancer screening rate has decreased significantly, especially in large cities. Public health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cancer screening rates.

- 이해상충여부 :

The authors declare that there is no conflict of interest.

- Acknowledgemen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in-Aid for Cancer Research and Control from the National cancer center of Korea(#1910231-1)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 Education Program (NCCRI·NCCI 52210-52211, 2021)" of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 국문 제목 :

우리나라 소지역별 암제거 기대수명과 지역별 건강 보험료와의 연관성

- 영문 제목 :

Cancer-free Life Expectancy in Small Administrative Areas in Korea and Its Associations with Reg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 저 자 :

노은정¹⁾, 강희연²⁾, 박진욱³⁾, 김익한⁴⁾, 강영호¹⁾²⁾

- 소 속 :

1)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3) 계명대학교 식품보건학부 공중보건전공, 4)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To determine the priorities and resource allocation of community cancer-related health policies, it is necessary to measure cancer-related health indicators. This study calculated cancer-free life expectancy (LE) at the eup/myeon/dong level in Korea and analyzed its association with reg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METHODS** We used aggregate data from the 2008-2017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Cancer-free LE was calculated by applying Sullivan's method to mortality and cancer prevalence by age group and sex in 3,396 eups/myeons/dongs. Correl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ancer-free LE and reg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RESULTS** Fig1. National distributions of cancer-free LEs in 3,396 eups/myeons/dongs Fig2. Correlations of standardized health insurance premium with cancer-free LE in 3,396 eups/myeons/dongs **CONCLUSION** - Cancer-free LE in eups/myeons/dongs of metropolitan areas tended to be higher than in non-metropolitan areas. However, some eups/myeons/dongs of non-metropolitan areas showed quite a high cancer-free LE, especially for females. - The association of cancer-free LE by eup/myeon/dong with reg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more prominent for males than females. - This work makes a meaningful contribution by presenting new and firsthand summary measures of cancer-related health across small areas in Korea. - The results will help authorities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local cancer management projects in small administrative areas and determine regional priorities for implementing cancer control policie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04]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국가 암 검진 자궁경부암 Pap smear와 HPV DNA 검진: 2019, 2020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Survey (KNCSS)

- 영문 제목 :

Estimating cervical cancer screening for Pap smear test and HPV DNA test in Korea: 2019, 2020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Survey (KNCSS)

- 저 자 :

조하현¹⁾, 이윤영¹⁾, 서민아¹⁾²⁾, 전재관¹⁾²⁾, 최귀선¹⁾²⁾

- 소 속 :

1)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2) 국립암센터

- 초록 내용 :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screening participation by Pap smear, HPV DNA, any test (either Pap smear or HPV DNA), and Co-test (both Pap smear and HPV DNA). Results: Co-test screening rates with recommendations were 10.0% in 2019, 10.4% in 2020. Women with highest incomes [adjusted odds ratio (aOR) = 1.53, 95%CI: 1.05-2.23], HPV vaccination [aOR = 3.30, 95%CI: 2.40-4.53], and regular doctor [aOR = 1.23, 95%CI: 1.00-1.51] were much more likely to undergo co-testing. Conclusions: Cervical cancer screening participation rate was associated with household income, HPV vaccine, regular doctor. Our results demonstrate the socioeconomic barriers to cervical cancer screening faced by vulnerable people and suggest a need for greater efforts to develop cancer screening policies and interventions to overcome these barrier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조기감지 및 위기관리 의사소통: 스코핑 리뷰

- 영문 제목 :

Early Event Detection and Risk Management for Water and Foodborne Disease: A Scoping Review

- 저 자 :

김세영¹⁾, 김지연²⁾, 강수진¹⁾, 황승식²⁾

- 소 속 :

1)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초록 내용 :

연구배경: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위생 상태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자주 나타나진 않지만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인구집단으로 감염되어 보건학적 중요성이 높다. 첫째, 기후·기온변화로 인한 홍수 및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강수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부분에서 악영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야기한다. 둘째, 다양한 식품가공 방법과 유통 범위의 확대로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여름에는 집단 식중독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을 스코핑리뷰 방법론을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주요 검색어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위기관리’, ‘의사소통’, ‘가이드라인’ 등의 단어를 조합하여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질문으로 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조기감지 및 대응과 관련된 연구동향은 무엇인지, 2) 조기 감지 및 보고를 위한 주요한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으로 무엇이 있는지, 3) 이 과정에서의 한계점은 무엇인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포함기준은 1) 국문, 영문으로 출판된 문헌, 2)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출판된 문헌, 3)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4) 원문에 접근가능 문헌, 5) OECD 국가이다. 기대결과: 연구 결과 중복 문헌을 제외하고 1차 스크리닝 결과 2739개의 문헌이 선정되었다. 궁극적으로 국내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수인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조기감지 및 의사결정을 위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질병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농촌 중년여성 비만원인 진단을 위한 사회생태학적 모형 기반 탐색적 연구

- 영문 제목 :

Exploratory study on the obesity among middle-aged women in rural areas based on the socio-ecological model

- 저 자 :

조희숙¹⁾, 이종선²⁾, 정수미³⁾, Dronina Yuliya¹⁾, 박양준¹⁾

- 소 속 :

1) 강원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2)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3)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초록 내용 :

Background: A rise in rural obesity has been identified all over the world, and South Korea is no exception. In particular, an explicit tendency that obesity has been growing in the middle-aged female population in rural areas is identified. Thu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auses of obesity amongst middle-aged women in rural areas through a socio-ecological approach and propose strategic direction.

Methods: This study was built on an amalgamation of methods. For the quantitative aspect, secondary data and geo-spatial analysis were used, while focus group interviews and official documents reviews were conducted as a qualitative approach.

Results: Low level in physical activity shows higher obesity than Moderate (OR=0.60, $p<0.05$) and High level (OR=0.60, $p<0.05$), besides those who do not use food labels have a higher obesity rate (OR=1.65, $p<0.05$) than those use food labels. I county has double times higher than Y county regarding to the number of fast-food outlets. The causes of obesity derived from focused group interviews are divided into four: (1) Low self-efficacy and cautiousness on obesity, (2) group culture and absence of partners, (3) limitation to access food diversity and exercise facility, (4) health budgetary services and lack of leisure programmes. Moreover, it manifested I county has poor conditions when it comes to public resources such as bicycle roads, public leisure centres, and the budget on health services.

Conclusion: We discovered various factors of obesity amongst middle-aged women living in rural areas. Therefore, multilevel endeavours should be run parallelly, when addressing obesity issue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9P330500#)

- 국문 제목 :

국외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가이드라인 비교 검토

- 영문 제목 :

A Comparative Study on 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 Guidelines Abroad

- 저 자 :

임다솜¹⁾, 이하늘¹⁾²⁾, 표지희¹⁾²⁾, 최은영¹⁾²⁾, 이원³⁾, 장승경⁴⁾, 옥민수¹⁾²⁾⁵⁾

- 소 속 :

1)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2)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3)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4)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5)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목적: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한 후 대응 절차를 담은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는 의료분쟁 감소, 환자와 의료진 간 관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외국의 가이드라인들을 검토하여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수행 이유, 수행 사건 유형, 시기와 장소,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 비교, 확인해 보았다.

방법: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여러 나라들 중 영국(Being open), 캐나다(Canadian Disclosure Guidelines), 호주(Australian Open Disclosure Guideline), 미국(Communication and Optimal Resolution Toolkit, CANDOR)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검토의 용이성을 위하여 4개국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가이드라인의 전문을 연구진 2인이 함께 번역, 검토하였다. 검토한 내용을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5W1H (Why, When, Who, Where, What, How)로 분류하였다. 이후 전체 연구진이 해당 분류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확정지었다.

결과: 총 4개국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몇 개의 공통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였다. 둘째로, 사건 유형에 따라 수행되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종류와 시기에 대해 기술되었다. 셋째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관여하는 팀의 구성원에 대해 안내하였다. 넷째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수행하는 장소 선정과 해야하는 말과 피해야하는 말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수행을 위해 의료진과 기관이 구축해야 하는 체계와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영국, 호주, 캐나다에 비해 미국은 좀 더 상세한 소통하기 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특히, 환자안전사건에 직접 연관된 의료진을 위한 심리적지지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하였다.

결론: 외국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환자안전사건 대응에 있어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절차 마련과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국내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경험 평가 문항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국내 의료공공성 담론의 변천: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 영문 제목 :

Changes in domestic medical public discourse: using Text Mining and Network Analysis

- 저 자 :

김태현¹⁾, 신영전²⁾

- 소 속 :

1)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 초록 내용 :

한국은 정부책임 하에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여 재원을 공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반면, 의료공급체계는 민간 병의원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수익성 위주의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현행 국민건강 보험체계로는 고령화시대의 급증하는 노인진료비를 막기 역부족이며,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은 고령화와 COVID-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의 등장, 보험기금 한계 위기에 봉착한 한국의 보건의료질서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양적, 질적 상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나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병원의 병상 수 71.4%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 수 비중은 10.2%로 민간 의료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향후 공공이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 형성을 위해 한국 보건의료제도가 민간중심, 영리중심으로 발달하게 된 역사적 경로를 시기별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의료공공성 담론의 변천을 고찰하고자 한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2021년까지 시기별로 아카이브 검색이 가능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의료공공성 관련 기사를 352건 추출하였으며, 분석에 적절하도록 선택 및 배제 과정을 거쳐 143개 문헌을 최종 선정하였다. (분석은 현재 진행 중임)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지역사회 건강 환경에 관한 인식 및 경험: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활용한 질적 연구

- 영문 제목 :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health environment: a qualitative study using photovoice methodology

- 저 자 :

표지희¹⁾²⁾, 이하늘¹⁾, 옥민수¹⁾²⁾³⁾

- 소 속 :

1)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아산의학융합원 의과학과,
3)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목적: 이번 연구에서는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건강 환경에 관한 인식 및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책입안자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 및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법: 이번 연구는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시범사업’ 연구 영역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거주자 1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2020년 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약 2개월 간 2회의 교육, 5회의 좌담회, 1회의 영상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직접 찍은 사진과 사진기록지, 5차례의 좌담회 전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4개의 상위범주와 11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좋지만 아쉬운 삼호동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삼호동의 건강환경’, ‘삼호동 개선을 위한 조그마한 노력’, ‘더 나은 삼호동을 위한 개선점’으로 범주화되었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호동은 고령인구가 많이 사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도보 및 교통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단지 내 어두운 거리는 참여자들의 오후 활동을 망설이게끔 하였고, 미흡한 교통 환경은 의식주를 해결해가며 살아가는 당연한 일상을 어렵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삼호동 지역 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고, 이는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더 나은 삼호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호동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건강 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주자의 시각에서 건강 환경에 관한 심층적인 의견을 알아보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이번 연구 지역주민의 건강 환경 문제의 관심도를 높여 건강증진 사업 내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실천적 함의를 갖기도 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10]

- 국문 제목 :

코로나19시대 비대면 영양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 실시간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례 -

- 영문 제목 :

Development of untact nutrition education program in the era of COVID - A online experience program operation case -

- 저 자 :

황태윤¹⁾²⁾, 박은진¹⁾, 이상미¹⁾, 윤현휘¹⁾, 진광숙¹⁾, 최다운¹⁾, 최정인¹⁾, **최윤정¹⁾**

- 소 속 :

1)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2)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연구배경] 당은 섭취가 과할 경우 여러 만성질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섭취 제한이 필요한 영양 성분으로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3~5세 유아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가 하루 총열량의 10.1%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기준(10%)을 초과하였고 특히, 2명 중 1명(44.9%)이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식생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또한, 가공식품 중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가 가장 많아 식습관이 형성되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목적] 대구시 시민건강놀이터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으로 대면 서비스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당류 섭취 줄이기 「과일맛 우유만들기」 실시간 온라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참여기관의 만족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시대 비대면 영양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과일맛 우유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은 대구시 시민건강놀이터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은 관내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KIT 6종(멸균우유, 용기, 식용색소, 에센스오일, 각설탕, 안내문), 홍보물, 기관 만족도조사 설문지 등을 우편 발송 등으로 미리 제공하고 ZOOM을 이용하여 '건강생활실천 영상시청 3종(10분), 덜 달게 먹기 영양교육(5분), 과일맛(바나나, 딸기맛) 우유만들기 체험(15분)'을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체험프로그램이다. [연구결과]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47개 기관에서 137회, 2,524명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만족도조사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재신청 의향에 93.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97.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고찰 및 결론] 시민건강놀이터 「과일맛 우유만들기」 실시간 온라인 체험프로그램은 코로나19시대 다중집합 이용시설 등의 제한으로 보건교육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전문가가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좋은 운영 사례이나 식생활 습관 개선 여부 등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 추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북한이탈주민의 사망과 자살 요인

- 영문 제목 :

Factors for the all-cause death and suicide for North Korean refugee

- 저 자 :

김채봉¹⁾, 윤석준²⁾

- 소 속 :

1) 고려대학교 보건학협동과정,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배경: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33,752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환경적 변화와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과 자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망과 자살로 인한 요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연구DB와 통계청 사망 원인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탈주민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4,279명이었다. 관찰기간(2003~2018)에 사망자를 제외한 생존자 중에서 건강보험자격 상실 또는 이민 등으로 인한 1,427명과 입내원일수가 '0'인 448명 제외, 남한 입국 시 나이로 만 19세 미만 10,053명을 제외한 총 22,3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 자살(KCD-7 사망원인 코드: 'X60-X84')로 인한 사망이었다.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남한 거주기간, 찰슨동반지수 등)을 비롯하여 사망과 자살에 관련된 동반질환(comorbidities)을 통제하면서 콕스회귀분석(cox regression analysis)하였고, Crude 회귀분석 이외에 단계적(stepwise regression analysis) 모형1부터 모형3까지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AS를 이용하였다. 결과: 북한이탈주민 성인 중 남성은 21.93% (4,901명), 여성은 78.07% (17,450명)로 남한 거주기간은 1년 미만 8.6%, 2-4년 17.08%, 5-9년 40.36%, 10년 이상은 33.68% 이었다. 전체 22,351명 중에서 사망자 비율은 1.84% (412명),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0.2% (45명) 이었다. 사망(all-cause death) 모형(Model 3)에 대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의 사망 위험도가 높았고 의료급여수급자(1.406, 1.334-1.481), CCI 3점 이상(1.596, 1.513-1.684), 만성폐질환(1.335, 1.298-1.374), 만성간질환(1.130, 1.098-1.163), 만성신장질환(1.196, 1.149-1.244), 악성종양(1.151, 1.070-1.231), 심뇌혈관질환(1.239, 1.201-1.278) 이었다. 자살로 인한 사망(death of suicide) 모형(Model 2)에 대한 결과, 여성(0.848-0.821), 의료급여수급자(1.408, 1.337-1.482), CCI 3점 이상(2.061, 1.969-2.158), 주요우울장애(1.087, 1.049-1.125), 불안장애(1.131, 1.096-1.167), 수면장애(1.160, 1.126-1.195) 이었다. 고찰 및 결론: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은 남한의 중요한 공중보건문제 중에서 하나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망과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자살의 영향 요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및 질병으로부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의료자원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중·장년층에서 자아 효능감, 노후생활 인식 및 은퇴 준비와 심리적 안정감과의 관련성

- 영문 제목 :

The association of self-efficacy, awareness of aged life, and retirement preparation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ged

- 저 자 :

이보미¹⁾, 이강숙¹⁾²⁾, 이다현¹⁾²⁾

- 소 속 :

1)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본 연구는 중·장년층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로 자아효능감, 노후생활 인식, 은퇴 준비에 대해 살펴보고, 변인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은퇴교육에 참여한 공무원과 공기업직원이 포함된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 285명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심리적 안정감은 공무원과 전문직군에서,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관분석에서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효능감은 .94로 가장 큰 관련이 있었으며, 은퇴준비는 .91, 노후생활 인식은 .88의 관련성을 보였다. 은퇴 준비와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 관계는 .91, 노후생활 인식은 .86으로 측정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노후생활 인식과 자아효능감은 은퇴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은퇴준비를 매개로한 자아효능감, 노후생활 인식은 심리적 안정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자아 효능감과 노후생활 인식이 은퇴 준비를 매개로 높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공적연금을 이용한 은퇴 준비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자아효능감과 노후생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병 이용 행태와 간병비 차이

- 영문 제목 :

Differences in care use behaviors and care expense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 저 자 :

이승철, 이루겸, 오창모, 오인환

- 소 속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배경 : 간호간병 서비스 등을 통해 간병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되고 있음에도, 간병비는 여전히 환자에게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간병비에 대한 분석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에서 유급 간병인 고용 여부 및 간병비의 차이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의 간병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병 이용 행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의료패널조사 2016-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30,958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및 간병비 및 유급 간병인 고용 여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t-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간병비를 지불한 65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총 간병비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간병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유급 간병인 고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유급 간병인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5.2% vs 2.1%, $p<.001$). 유급 간병인 고용 여부에는 성별, 연령 등의 다른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장애 여부가 관련성을 보여,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유급 간병인을 고용하는 오즈비가 2.75배로 나타났다(95% CI=2.24-3.38).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입원 건당 총 간병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장애인은 1,907,415원 비장애인은 1,430,967원을 입원 간병비로 사용하였다($p=.033$). 간병비에도 장애 여부가 관련성을 보여, 성별, 연령 등 다른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은 581,352원의 간병비를 더 지출하였다($p=.04$)

결론 : 장애인의 높은 질병부담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병상수급 불균형이 가용성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 지역 간 격차를 중심으로

- 영문 제목 :

The effect of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of hospital beds on unmet availability-related medical needs: Focused on regional disparities

- 저 자 :

이민정¹⁾, 신영전²⁾

- 소 속 :

1)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배경 :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는 접근성, 보장성 등 의료시스템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지만, 미충족 의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자원의 분배는 의료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병상은 의료인력과 장비의 공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의료자원의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병상수급의 불균형으로 의료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따라서 의료자원의 수급불균형으로 미충족 의료사태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역별 병상의 수요-공급(이하 수급)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개인/가구/지역변수를 통제하는 모형에서 병상의 수요-공급의 차이가 가용성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적정 병상의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방법 :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응답자 218,254명을 성(남/여)·연령별(청년/중년/노년)로 구분한 개인과 27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가용성 미충족 의료이며 Levesque의 의료이용 모델에서 도달할 수 있는 능력(대기/운영시간/예약/교통)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병상수급 유형이며, 필요 병상 수는 총입원의료일수, 병상 이용률(85%), 건강보험/의료급여환자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수요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함을 가정하기 위해 환자의 유출입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지역별 필요 병상 추정치와 공급병상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수급불균형지수로 적정/과잉/부족 지역을 분류하고 7년간의 변화추이를 확인하였다. 지역 간 병상의 분배수준은 Coulter의 비형평성 계수법으로, 특성별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은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개인-가구-지역 특성은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지역별 병상의 수급불균형이 가용성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다수준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결과 : 필요한 병상수와 실제 총 병상수는 모두 7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며, 총 공급병상은 필요병상의 약1.2배 수준이었다. Coulter-비형평계수는 '거의 형평' 수준이었으나 12년 2.42에서 18년 2.53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가용성 미충족의료 경험자는 932명(13.1%)으로, 우울경험 혹은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10.91%(7,033명)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에서 2.39%(2,420명)로 가장 낮았다. 개인·가구변수를 통제한 다수준모형(모형3)에서는 병상수급이 적절한 지역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15]

- 국문 제목 :

코로나19 시대 「건강드림 대구」 비대면 시민건강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영문 제목 :

Case of Operation of Non-face-to-face Citizen Health Leader Training Program in 「Healthy Dream Daegu」 in the era of COVID-19

- 저 자 :

황태윤¹⁾²⁾, 이희숙¹⁾, 이경미¹⁾, 윤샘이¹⁾, 최정인¹⁾, 박은진¹⁾

- 소 속 :

1)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2)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시대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대구시 시민건강놀이터에서는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건강행태 개선과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대구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비대면 건강드림 시민건강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시민건강놀이터 비대면 시민건강리더 양성 프로그램은 2021년 5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우수이용자 101명을 대상으로 콜센터를 통한 신청자 접수, 대상자 선정, 스마트 체중계 등 교육용품 4종 및 리플릿 등 교육자료 10종 등 건강 꾸러미 배부, 건강리더 활동 등의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대면 건강리더 양성 교육 등이 불가함을 고려하여 기존 시민건강놀이터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기적인 혈압·혈당 측정, 싱겁게·골고루 먹기, 매일 30분 이상 신체활동 실천하기'의 활동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12주차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연구결과] 비대면 시민건강리더 활동은 ①건강리더 활동 전·후 건강행태 비교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평가 실시 ②주차별 건강정보 바로알기 이론교육 제공 ③활동미션 실천을 위한 주간·월간 건강관리일지 실천표 작성 ④건강 핸드북 3권 지인에게 홍보 및 전달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비대면 시민건강리더 운영을 위하여 12주차 건강 핸드북 작성 실천 기간 동안 주 1회 SMS을 통한 주차별 건강정보 제공 확인 및 건강일지 작성을 독려하였고, 월 1회 건강 핸드북 작성 및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전화상담 안내 및 필요 시 건강·영양·운동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시 상담을 실시하였다. [고찰 및 결론] 코로나 19 시대 시민건강놀이터 우수이용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된 비대면 시민건강리더 양성 프로그램은 추후 시민건강리더 활동 기간 종료 후 건강 핸드북 회수를 통해 활동목표 실천에 따른 우수참여자 선정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 전·후 건강행태 변화, 생활습관 개선 여부, 만족도 등 분석을 통해 비대면 시민건강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16]

- 국문 제목 :

걷기 관련 환경 요인들의 만족도 비교 연구

- 영문 제목 :

Satisfaction with the walking-related environmental factors during COVID-19 in South Korea

- 저 자 :

조훈¹⁾²⁾³⁾, 이호희¹⁾, 김동현⁴⁾, 공인덕⁵⁾⁶⁾

- 소 속 :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재활치료학과,
3)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유전체코호트연구소, 4)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5)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생리학교실, 6) 연세대학교 운동의학센터

- 초록 내용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of the urban and rural areas regarding the walking environment-related factors during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This online-based cross-sectional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a mobile health app. Overall, 1,032 local residents participating in a mobile health care program of a public health center were classified into the urban (n=481, 46.6%) and rural areas (n=551, 53.4%). The Walkability Checklist, including demographic information, was employed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 participants were satisfied with the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walking through a chi-square test and 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Both urban and rural areas were most likely to be unsatisfied with the walking comfort (adjusted OR: 24.472, 95% CI: 14.937-40.096). Regarding the walking comfort aspects, the urban and rural areas had the highest odds of dissatisfaction with the poor landscape (Needed more grass, flowers, or trees; aOR: 13.561, 95% CI: 3.619-50.823) and messy streets (Dirty, lots of litter or trash; aOR: 29.045, 95% CI: 6.202-136.015), respectively. The latter were more discontented with the walking environment as compared to the former. In order to promote walking activities at the community level, it is necessary focus on the walking comfort, and, in particular, to implement effort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지역박탈지수에 따른 전체 사망과 주요 10대 사인의 건강불평등 추이

- 영문 제목 :

Ten-year trends in all-cause and cause-specific mortality by area deprivation in South Korea, 2005-2015

- 저 자 :

최민재¹⁾, 이요한¹⁾²⁾, 이은해¹⁾, Joshua Kirabo Sempungu²⁾

- 소 속 :

1)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2)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목적: 본 연구는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사망률의 추이를 확인하고 지역박탈지수에 따른 사망률의 불평등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사망원인통계, 인구센서스 2005, 2010, 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망률을 산출하기 위해 사망자는 전체사망과 통계청 발표 10대 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인구는 각 연도별 연앙인구로 하였다. 2005년 인구를 표준인구로 연령 표준화사망률을 산출하였다. 지역박탈지수 산출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2005, 2010, 2015년 별로 각각 산출하였으며, 각 연도별로 4분위로 구분하였다. 박탈지수별 사망률을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박탈지수 분위별로 연령표준화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하였으며, 절대불평등과 상대불평등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건강불평등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사망률의 변화는 인구 10만 명당 157명(31%)이 감소하였다. 대부분 10대 주요사인에서 감소가 나타났지만, 감소량이 가장 큰 질환은 뇌혈관 질환으로 54.7%가 감소하였다. 반면, 폐렴의 경우 사망률이 89.5% 증가하였다. 지역박탈지수에 따른 사망률에 차이는 2005, 2010년, 2015년 모두 지역박탈지수가 높을수록 지역의 사망률이 높았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사망률의 변화를 지역박탈지수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지역박탈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의 사망률의 감소는 인구 10만 명당 185명이었으며, 지역박탈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152명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사망률의 격차가 감소하였지만, 변화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폐렴의 경우 사망률의 증가폭이 지역박탈지수가 높을수록 증가폭 또한 높았다. 불평등 지표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전체사망의 절대불평등은 감소하였지만, 상대불평등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폐렴 사망률은 상대불평등과 절대불평등 모두 증가하였다. 결론: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경제나 사회적인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지역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으로 불평등의 감소가 나타났지만, 일부 질환에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건강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18]

- 국문 제목 :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계층간 흡연, 음주에 관한 건강격차 비교: 2017-2020 년 데이터 활용

- 영문 제목 :

Comparison of Health Gap on Health Behaviors Between Classes in Community Health Survey: 2017-2020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 저 자 :

전승연

- 소 속 :

중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건강사회경제학연구소)

- 초록 내용 :

1. 연구배경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체로 건강관련 행위들(흡연, 운동, 식생활 등), 의료 서비스 이용(접근성과 서비스의 질), 스트레스 노출정도, 심리사회적 지원(사회적 통합), 거 주지 환경 등이 언급 되었다. (Adler, 1999; Seeman, 2001; Williams, 1995)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은 구조적으로 건강 관련행위(health behavior)를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 건강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불평등의 격차가 심하였으며(Mackenbach, 1997; Kunst, 2005; Dowd, 2007)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건강행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대유행이 일반인구집단에서 계층간 건강행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추이를 밝히는 것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인 교육수준에 따른 흡연과 음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독립 변수 교육수준, 직업,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와 건강 및 질병, 건강 관련 행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을 변수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육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 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정의하여 3분위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 현재 흡연자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피운 사람 중에서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 응답자)을 현재 흡연자로 정의하였다. 월간 음주자 음주의 정의는 월간 음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월간 음주자 정의를 적용 했다. 최근 1년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을 위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을 남녀로 나누어 분석 하였으며 조사연령은 19-44세, 45-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각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흡연율, 음주율의 차이(prevalence difference, PD), 흡연율 비, 음주율 비(prevalence ratio, PR), 경사불평등지수(Slope index of inequality, SII), 상대불평등지수(Relative index of inequality, RII)를 계산하였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코로나19 이후 생활습관 변화 : 지역수준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다수준 분석

- 영문 제목 :

Changes in lifestyle after COVID-19: multilevel analysis on socioeconomic factors in community level

- 저 자 :

박은주

- 소 속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 초록 내용 :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영향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생활과 그로인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수면시간 등의 생활습관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생활습관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지역사회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률이 3-4배 높았다. 따라서 코로나19에서의 회복을 위해서 개인적 접근뿐 아니라, 지역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에 변화를 미치는 요인을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 응답자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세부적 일상생활 변화 중 신체활동, 수면시간, 음주, 흡연 문항의 응답보기를 점수화하여 부정적 변화/비슷함/ 긍정적 변화로 각각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개인수준 요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지역수준 요인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multilevel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맥락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ICC와 OR, CI 구간을 제시하였다. 결과: 현재 분석 중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코로나19에 의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실시간 온라인 시민건강강좌 운영 사례

- 영문 제목 :

The case of operating online 'Citizen health class' customized for COVID-19 era.

- 저 자 :

황태윤, 김진희, 박은진, 소유정, **이미순**, 진민정

- 소 속 :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 초록 내용 :

[연구배경]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대면 서비스의 제한으로 건강정보 습득 및 자가건강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구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채널을 통한 근거기반 건강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게 되었다.

[연구목적]

대구시 시민건강놀이터는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민건강지원센터로,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부터 실시된 대면 시민건강강좌의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강의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접속이 가능한 맞춤형 실시간 온라인 시민건강강좌로 전환·운영하여 대구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자가건강 관리 능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사례는 2021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8회간 시민건강놀이터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좌 송출 및 영상 업로드 방법으로 운영된 실시간 온라인 시민건강강좌에 대한 실시간 강좌 참여인원, 이벤트 참여인원, 실시간 시청자 질문·채팅 및 유튜브 업로드 영상 조회수, 영상 시청자 성별 및 연령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시민건강놀이터 온라인 시민건강강좌의 실시간 평균 강좌 참여인원은 112.3명, 이벤트 평균 참여인원 48.8명, 업로드 된 영상의 조회수('21. 9월 기준)는 평균 1,139회로 조사되었다. 시민건강강좌 시청자 현황은 에러가 발생한 2회를 제외한 16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 46.6%, 여자 53.4%, 연령대는 65세 이상 64%, 35~44세 21%, 45~54세 10% 순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강좌의 시청자 질문은 평균 4.7건이었고 실시간 채팅 내용은 질환에 대한 질문 및 강좌가 건강생활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온라인 건강강좌 이전 대비 시민건강놀이터 유튜브 구독자 수가 12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및 결론]

시민건강놀이터 실시간 온라인 시민건강강좌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지속적인 건강정보의 습득이 가능하므로, 많은 시민들에게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자가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추후 시민건강강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온·오프라인 동시진행으로 위드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21]

- 국문 제목 :

코로나19 시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례

- 영문 제목 :

customized publicity case for the promotion of citizen's health during covid-19 era

- 저 자 :

황태윤¹⁾²⁾³⁾, 김은주¹⁾, 박은진¹⁾, 이승희¹⁾, 양경숙³⁾, 장미나⁴⁾

- 소 속 :

1)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2)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4)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 초록 내용 :

[연구배경]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대면 서비스의 제한은 건강정보 습득 및 자가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연구목적] 대구시 시민건강놀이터는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민건강지원센터로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부터 실시된 대면 시민건강강좌의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강의를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없이 접속이 가능한 맞춤형 실시간 온라인 시민건강강좌로 전환·운영하여 대구시민의 건강 관심도 제고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사례는 2021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8회간 시민건강놀이터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좌 송출 및 영상 업로드 방법으로 운영된 실시간 온라인 시민건강강좌에 대한 실시간 강좌 참여인원, 이벤트 참여인원, 실시간 시청자 질문·채팅 및 유튜브 업로드 영상 조회수, 영상 시청자 성별 및 연령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시민건강놀이터 온라인 시민건강강좌의 실시간 평균 강좌 참여인원은 112.3명, 이벤트 평균 참여인원 48.8명이었고 업로드 된 영상의 조회수('21. 9월 기준)는 평균 1,139회로 조사되었다. 시민건강강좌 시청자 현황은 에러가 발생한 2회차를 제외한 16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 46.6%, 여자 53.4%, 연령대는 65세 이상 64%, 35~44세 21%, 45~54세 10% 순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강좌의 시청자 질문은 평균 4.6건이었고 실시간 채팅 내용은 강좌에 대한 질문 및 강좌가 건강생활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온라인 건강강좌 이전 대비 시민건강놀이터 유튜브 구독자 수가 12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및 결론] 시민건강놀이터 실시간 온라인 시민건강강좌 운영 사례를 통해 살펴본 비대면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지속적인 건강정보의 습득이 가능하여 추후 지속적인 온라인 시민건강강좌의 운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한다면 코로나19 시대 대구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코로나19 대응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 영문 제목 :

Effect of job stress on job exhaustion in COVID-19 response nurses with mediated effects of resilience

- 저 자 :

차윤정¹⁾, 이강숙¹⁾²⁾, 이다현¹⁾²⁾

- 소 속 :

1)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1개의 대학병원과 경기도 남부지역 의료원(수원, 안성, 이천) 코로나19 대응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코로나19 확진자/의심환자 격리병동, 코로나19 격리 중환자실)에서 교대 근무한 간호사 271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소진, 그리고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회복탄력성이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소진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3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으로 검증했으며,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재검증하였다. 회귀분석 1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는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beta = -.397, p < .001$), 설명력은 21.6%로 나타났다($F = 12.114, p < .001$). 2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직무소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beta = .513, p < .001$), 설명력은 26.9%로 나타났다($F = 16.166, p < .001$). 3 단계에서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은 종속변수인 직무소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eta = -.459, p < .001$). 즉, 3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인 β 값이 .331($p < .001$)로, 2단계 β 값인 .513($p < .001$)보다 감소되어 회복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값은 0.434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43% 설명하고 있으며 본 회귀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는 0.513, 간접효과는 회복탄력성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의미하며 크기는 0.182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 소진의 75%는 직접적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회복탄력성을 통한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25%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간호사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통한 개인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 외에 조직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대처와 직무 소진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근로자의 신체활동 및 스트레스의 매일 흡연과의 관련성

- 영문 제목 :

Association of physical activity and social stress with daily smoking in workers

- 저 자 :

최보은¹⁾, 이강숙¹⁾²⁾, 이다현¹⁾²⁾

- 소 속 :

1)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연구 목적: 한국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다양한 담배 제품 사용과 매일 흡연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를 활용하여 3,191명의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일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매일 흡연은 50대보다 40대(OR=1.41, CI=1.15-1.73), 30대(OR=1.89, CI=1.53-2.34), 20대(OR=2.66, CI=2.06-3.43)로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인 경우(OR=1.76, CI=1.37-2.27), 대졸 이상보다 고졸(OR=1.95, CI=1.62-2.33)로 중졸 이하(OR=1.13, CI=0.88-1.44)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OR=0.81, CI=0.68-0.95),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OR=1.46, CI=1.23-1.73), 전자담배(E-cigarette)를 사용하는 경우(OR=3.37, CI=2.41-4.69), 가열 담배(Heat-Not-Burn Cigarette) 사용 경험에 있는 경우 매일 흡연 가능성이 높았다(OR=2.89, CI=1.95-4.27). 결론: 매일 흡연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신체활동, 스트레스, 전자담배, 가열 담배 사용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더욱 다양해지는 신종담배 출현에 대비하여 보다 나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여성흡연자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 영문 제목 :

The Utilization of National Tobacco Cessation Services among Female Smokers and the Need for a Gender-Responsive Approach

- 저 자 :

이안나¹⁾²⁾, 이강숙¹⁾²⁾³⁾⁴⁾, 이다현²⁾³⁾, 안혜주⁴⁾, 이현경⁴⁾, 김혜경⁴⁾⁵⁾, 이자경⁴⁾⁶⁾, 서홍관⁴⁾⁷⁾

- 소 속 :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학, 4) 한국금연운동협의회, 5)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 6)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7) 국립암센터

- 초록 내용 :

Despite the steadily increasing prevalence of female smoking, gender-responsive tobacco cessation services have not been widely provided worldw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tobacco cessation services among female tobacco product users in Korea from a national perspective. We performe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663 female smokers; 11.0% of female smokers had used government-supported smoking cessation services. A logistic regression model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utilization of smoking cessation services and a history of pregnancy and childbirth, depression, current use of heated tobacco products and multiple tobacco products, parental smoking status and receiving advice to quit. With regard to the motivation ruler, those in their 50s reported a higher importance than those in their 20s. Weight gain concerns when quitting smoking were the lowest among the participants aged 19?29. The need to develop gender-specific smoking cessation programs is the highest among the participants aged 39?49 and the lowest among those aged 19?29. This study suggests several factor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national health services among female smokers. Further studies considering gender-specific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gender-responsive tobacco cessation support are needed.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25]

- 국문 제목 :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금연의도의 차이

- 영문 제목 :

Differences in Intention to Quit Smoking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tatus

- 저 자 :

배지은¹⁾, 김철웅¹⁾²⁾, 임효빈¹⁾, 이승은¹⁾

- 소 속 :

1)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2)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1개월 이내 금연의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2019)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현재 일반담배(궐련)을 피운다고 응답한 성인 현재흡연자 1,082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1개월 이내 금연의도 여부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형태, 종사상지위, 스트레스 인지 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비만여부, 음주여부, 우울증상 여부, 하루 평균 흡연량을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6.0을 사용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분석 지침에 따라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여 층화변수는 분산추정통, 집락변수는 조사구, 표본 가중값은 건강 설문 및 검진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금연의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복합표본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비차비와 95%신뢰구간, p값을 이용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1개월 이내 금연의도 관련 요인 분석 결과, 성별, 하루 평균 흡연량이 1개월 이내 금연의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여성은 남성보다 1개월 이내 금연할 계획이 약 68% 낮았으며 ($OR=0.32$, 95% $CI=0.16-0.64$), 하루 평균 흡연량이 10개 이하인 사람보다 10-19개비인 사람은 1개월 이내 금연의도가 57%, 20-29개비인 사람은 74% 낮았다(10-19개비 $OR=0.43$, 95% $CI=0.26-0.70$, 20-29개비 $OR=0.26$, 95% $CI=0.13-0.54$). 본 연구의 관심 변수였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경우, '직업형태' 변수만 경계 영역 수준에서 유의하였고($p<0.1$), 무직에 비해 비육체노동군에서 1개월 이내 금연의도가 1.7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1.72$, 95% $CI=0.74-4.00$).

논의 및 고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 1개월 이내 금연의도 간의 관련성은 '직업형태' 변수에 한해 경계 영역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1개월 이내 금연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하루 평균 흡연량이 많은 중증고도 흡연자와 여성 흡연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금연 중재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26]

- 국문 제목 :

치매환자 주조호자의 돌봄 경험 관련 삶의 질 조사

- 영문 제목 :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Care Experience of Dementia Patient's Caregivers

- 저 자 :

표지희¹⁾²⁾, 정혜란¹⁾²⁾, 옥민수¹⁾³⁾

- 소 속 :

1)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아산융합의학원 의과학과 예방의학,
3)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배경: 치매환자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을 돌보아야하는 주조호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의 주조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및 주조호자의 특성과 돌봄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돌봄 형태에 따라 조호자의 부양부담감과 삶의 질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상 및 방법: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의 주조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치매환자와 주조호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거주지, 성별, 연령 등), 돌봄 형태(동거여부, 조호기간 등), 조호비용 관련 부양부담감, 주조호자의 삶의 질 수준 등 치매환자와 주조호자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개인별 응답의 차이를 보고자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조호 형태에 따라 조호자의 부양부담감, 삶의 질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주조호자 300명 중 240명(80%)은 조호비용에 대한 부양부담감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가 집(73.8%)이 아닌 병원, 요양 시설(92.9%) 등에 거주하는 경우 조호자가 부양부담감을 경험할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value<0.001). 주조호자와 치매환자의 동거 여부에 따른 부양부담감 경험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부양부담감을 높은 비율(동거함: 79.8%, 동거하지 않음: 80.1%)로 경험하였다(P -value: 0.952). 주조호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면 주조호자의 성별과 치매환자의 동거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성별: P -value=0.012, 동거여부: P -value=0.003). 또한 조호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호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 수준이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연령: P -value: 0.013, 조호기간: P -value=0.009).

고찰 및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조호자들이 조호비용 관련 부양부담감을 경험하였으며, 조호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특성과 돌봄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호자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조호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감소되는 만큼 대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27]

- 국문 제목 :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살펴본 전염병이 발생한 연도들과 손 씻기 행태의 관계

- 영문 제목 :

Association between years with the incidence of communicable diseases focused on COVID-19 pandemic and hand hygiene among adults in South Korea

- 저 자 :

정윤화¹⁾²⁾, 박유신¹⁾²⁾, 박은철²⁾³⁾, 장성인²⁾³⁾

- 소 속 :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배경] 법정감염병의 발생률은 증가하는 추세며, 2020년의 10만 명당 발생률은 281.6명이다. 2015년의 중동호흡기증후군, 2017년의 성홍열, 2019년의 A형 간염과 2020년의 코로나19는 그해에 많이 발생한 전염병이다. 손 씻기는 전염병의 약 70%를 예방하며, UNICEF는 전염병 예방관리로 손 씻기를 권고한다. 그러나 손 씻기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다. 또한 국민들은 올바른 손 씻기의 방법 인지(90.0%)에 비해 실천이 저조하다(72.4%). 이에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연도들과 손 씻기 행태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코로나19가 범유행한 2020년의 손 씻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 지역사회건강조사 5개년('13, '15, '17, '19, '20) 자료를 사용하였다. 총참여자는 1,034,422명이며, 연도별 손 씻기를 다항 로지스틱으로 회귀분석하였다. 손 씻기는 4개의 질문(식사 전/용변 후/외출 후/세정제를 사용한 손 씻기)을 ROC 분석하여, 빈번한 손 씻기의 절단점을 구하였다. 연도와 주관적 건강수준의 상호작용분석에 따른 손 씻기와 코로나19의 예방법과 관련한 손 씻기를 추가 분석하였다. [결과] 빈번한 손 씻기의 전체 분율은 44.7%였다. '자주 손 씻기'의 연도별 OR(95% CI)은 2013년을 기준할 때, 2015년 1.04(1.01-1.07), 2017년 1.02(0.99-1.05), 2019년 1.05(1.02-1.08), 2020년 2.48(2.41-2.55)였다. '항상 손 씻기'의 연도별 OR(95% CI)도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3.58(3.48-3.68)이었다. '여성'과 '코로나19 발병률이 높은 지역'은 빈번한 손 씻기의 경향이 높았다. 2020년의 OR(95% CI)은 여성이 3.52(3.42-3.63), 코로나19 발병률이 높은 지역이 3.86(3.58-4.15)이었다. '연도'와 '주관적 건강수준'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로는, 2020년 주관적 건강이 좋을 때 '외출 후 손 씻기'의 OR(95% CI)은 1.11(1.08-1.15)이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가 분석 결과, '거리두기 실천'의 OR(95% CI)은 '자주 손 씻기'에서 1.36(1.29-1.42), '항상 손 씻기'에서 1.64(1.58-1.71)이었다. [고찰 및 결론] 연도가 증가할수록 손을 자주 씻는 경향이 강했으며, 코로나19가 범유행한 2020년의 경향성은 더욱 컸다. 전염병과 손 씻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손 씻기 증진을 통한 전염병 예방 정책 발전이 필요하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소중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질병관리청에 감사드립니다.



초록 등재번호 : [P-028]

- 국문 제목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연구 및 정책평가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영문 제목 :

Systematic Review on the Evaluation of Drug Utilization Review

- 저 자 :

김진이¹⁾, 홍지윤²⁾, 손희정³⁾, 신영전⁴⁾

- 소 속 :

1)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2) 건강보험연구원, 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

4)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한국은 2010년도부터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검증된 의약 정보를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제도화하여 운영 중이다. 일부에서 DUR 관련 연구와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편적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DUR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문제점과 정책적 제언의 도출이 필요하다. 국내 DUR 관련 연구 동향과 정책평가에 대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진행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DUR 문제점과 정책 제언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연구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021년 3월까지 출간된 국내·외 문헌을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진행하여 선택기준에 부합하는 31개 문헌을 최종 선정하였다. 설문 조사, 질적 연구, 고시항목 비교, DUR 코드와 기재 사유 분석 등 DUR 시행에 관한 결과를 관찰하지 않은 16개 문헌은 제외하였다. 질 평가를 진행한 15편(48.3%) 문헌에 대해 비뚤림 위험평가를 진행한 결과, 비뚤림 점수는 1.83점(1~4점)으로 전반적으로 질적 수준이 높았다. 기존 연구들의 평가 영역은 효용성(21편, 58.3%), 편이성(6편, 16.7%), 환류성(5편, 13.9%), 만족도(6편, 16.7%) 였다(중복허용).

DUR 정책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영역/부분은 효용성 영역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의 감소, 약물이상반응 감소 결과를 보인 문헌이 15편(78.9%)이었으며, 사용자들은 DUR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였다(4편, 66.7%).

만족도 영역에서 전산시스템 사용 불편(5편, 10.9%), 업무 과다(4편, 8.7%), 타 기관 연락체계 불편(4편, 8.7%)의 문제점과 편이성과 환류성 영역에서 각각 예외사유 코드 선택의 불편(3편, 6.5%), 모니터링 미 시행(3편, 6.5%)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추가 연구주제는 환자 건강 결과(3편, 7.1%)였고, 추가 정책과제는 환류성 영역에서 환자 정보공유(5편, 11.9%), 모니터링 시행과 추가행위(4편, 9.5%)와 편이성 영역에서 코드항목수정(4편, 9.5%) 이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DUR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체계적 문헌 분석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DUR 정책이 효용성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성과를 보이거나 편이성, 환류성, 만족도 면에 개선이 필요하고 환자 건강 결과에 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DUR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획, 시행, 평가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체계적 문헌고찰, Drug Utilization Review, DUR, Systematic Review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병원 내 보건의료종사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혼합연구

- 영문 제목 :

The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mong frontline healthcare work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 저 자 :

민혜숙, 문세람, 장윤미, 조인희, 전재현, 성호경

- 소 속 :

국립중앙의료원

- 초록 내용 :

Background: The appropriate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associated with caring for patient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PE usage among frontline healthcare workers (HCWs) and explore facilitators and obstacles to select an appropriate type of PP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in two phases with 121 nurses in three isolation wards and one intensive care unit, which were dedicated to the patients with COVID-19.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were carried out in May 2021. Results: The participants were generally confident in recognizing the PPE type by task (93.1%); however, they were less aware of the details of usage such as the specific PPE type for aerosol-generating procedures (14.7%). More participants choose long-sleeved gowns (98.0%) than coveralls with shoe covers (33.3%) in usual nursing care. Barriers to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PPE were related to the lack of a more well-founded, clear and specific, timely-updating, and uniform guideline, and the negative experience related to the PPE use during the MERS epidemic. The active role o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based on objective evidence and trust was the main facilitator for optimizing PPE use as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guideline. Conclusion: As new information on COVID-19 continues to emerge, the up-to-date and specific PPE guideline with evidence should be prepared in Korea. The spread of accurate information, the role of accountable leadership, and the active communication under positive organizational culture are important for the proper use.

- 이해상충여부 :

The authors have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to disclose.

- Acknowledgement :

We thank Dr. Myoung-don Oh,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or inspiring this study. We also would like to thank all healthcare workers involved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atients with COVID-19 in Korea.



- 국문 제목 :

코로나 대유행이 당뇨병환자의 당뇨합병증 수검에 미치는 영향

- 영문 제목 :

Diabetes complication scree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저 자 :

장지은^{(공동1저자)¹⁾}, 이두웅^{(공동1저자)²⁾}, 서정환^{(공동교신저자)³⁾}, 신재용^{(공동교신저자)⁴⁾}

- 소 속 :

1)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2)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Covid-19 outbreak influences getting diabetes complication screening in Daegu increased in 2020 compared with previous years.

Methods: To test this, the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2010-2020) with a total of 41,042,757 participants' data were used for this study. Considering that there was a Covid-19 pandemic in Daegu at the beginning of the 2020, participants in Daegu classified as the case group and the participants in other regions (except Capital region, Gyeongbuk) classified as the control group.

The primary outcomes were getting an HbA1c test, fundus examination, and kidney disease screening. A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change in diabetes complication screening before the Covid-19 outbreak (2010-2019) vs. after the Covid-19 epidemic (2020).

Results: The Covid-19 epidemic wa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decreased getting diabetes complication screening after adjusting socio-economic factors (HbA1c tests: OR =0.52, 95% CI=0.36 - 0.76, Fundus examination: OR =0.75, 95% CI=0.61 -0.93, Kidney disease screening: OR =0.78, 95% CI=0.63 - 0.96).

Conclusion: Covid-19 outbreak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patients undergoing HbA1c Test, fundus examination, and kidney disease screening.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한국 청소년의 가족구조와 건강 행동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도와의 연관성

- 영문 제목 :

The association of family structure with health behavior, mental health,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 저 자 :

박한울¹⁾, 이강숙¹⁾²⁾

- 소 속 :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Adolescence is a period during which physical, social, and mental abilities are rapidly developed, and during this time the family environment plays an important role.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s, mental health, and academic achievement by family structure may affect future families, income, and employmen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family structure with health behaviors, mental health, and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adolescents. Method: Data from the 2018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were analyzed. The study sample was comprised of 59,096 adolescents. Logistic regression, t-tests, and a variance analysis of a complex sample general linear model were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family structure with health behaviors, mental health,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P < 0.05$. Results: Non-intact families (single-mother families, single-father families, and restructured families) had significantly higher odds of smoking a cigarette, drinking a sip of alcohol, internet use, physical activity, and sexual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issues such a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perceived stress, and poor perceived health status than intact families (two-parent families). Also, non-intact famili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low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compared to intact ones.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family structure is a significant factor in adolescent health behavior, mental health,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Adolescents who experience a transition in their family structure may be more vulnerable to health risks and exhibit lower academic achievement than those in an intact family.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32]

- 국문 제목 :

독일 법정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도 고찰 및 시사점

- 영문 제목 :

Review and Implications on Out-of-Pocket Limit policy of Germany

- 저 자 :

우경숙¹⁾, 신영전²⁾

- 소 속 :

1) 한양대학교 건강과 사회 연구소, 2) 한양대학교 예방의학

- 초록 내용 :

연구 목적: 진료비 상한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 연구는 독일의 법정의료보험의 본인부담제도 및 진료비 상한제도의 관리 운영 체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운영 방식: 1) 제도 도입: 독일의 본인부담상한제도는 2003년 보건의료현대화법에 따른 법정의료보험료 인하 및 진료비 본인부담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 2) 관리 운영: 법정의료보험조합인 다수의 질병금고는 법정본인부담금 상환 및 면제 기준에 근거하여 진료비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적용 대상: 18세 이상의 법정의료보험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처방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에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며 급여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진단 및 치료 서비스인 '비급여 서비스(IGeL)'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상한액 산정 근거: 본인부담 한도액은 피보험자 및 가족 구성원의 연간 생계 소득과 1년 동안 지불한 총 본인부담금에 근거하여 매년 평가된다. 5) 상한액 한도에 대한 규정: 일반적으로 가구 총소득의 2%수준으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같은 일부 피보험자의 진료비 상한 금액은 총소득의 1%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론: 독일은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금액 설정 시 다양한 가족 유형 및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피보험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기본 연금 및 보조금 등의 소득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기요양, 장애등급 및 의료적 평가에 근거한 만성질환자 상한제 특별 규정 등의 운영방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차등하는 한국 본인부담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중간위험도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NOACs과 warfarin의 비용효과성 분석

- 영문 제목 :

Cost-effectiveness of NOACs and warfarin for treatment of atrial fibrillation patients with intermediate stroke risk group

- 저 자 :

최주희¹⁾, 김창수²⁾

- 소 속 :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shown cost-effectiveness of Non-vitamin K antagonists oral anticoagulants (NOACs) compared to warfarin for the treatment of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AF), few studies have reported cost-effectiveness of NOACs in patients with intermediate stroke risk. In this study, using national representative data, we investigated cost-effectiveness of NOACs and warfarin in non-valvular AF patients with intermediated stroke risk. The Markov Chain model was used to evaluate the cost-effectiveness, and the transition probability was set to be one-year. We identified 7,413 newly diagnosed non-valvular AF patients over 18 years of age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from August 1, 2016 to July 31, 2019. Intermediate stroke risk group was defined based on the CHA2DS2-VASc score (1 or 2). The total cost of warfarin, rivaroxaban, apixaban, and edoxaban was \$2,874, \$5,761, \$5,151, and \$5,851, respectively. the gained Quality-adjusted life years (QALYs) were 10.8 3, 10.95, 11.10, and 10.99 years, respectively. The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ICER) of warfarin, rivaroxaban, apixaban, edoxaban is \$29,743.99, \$8426.71 and \$18,483.55, respectively. In Monte-carlo simulation, performed for sensitivity analysis, Edoxaban did not robust, but in the case of Apixaban and Rivaroxaban, robust results were shown. Our findings represented that Apixaban showed the best treatment for intermediate stroke risk group and rivaroxaban also showed cost-effectiveness compared to warfarin.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34]

- 국문 제목 :

폐금속광산 지역 주민의 비소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As3MT, GSTO1 유전자 다형성 연구

- 영문 제목 :

As3MT and GSTO1 Polymorphisms Influencing Arsenic Metabolism in residents living near abandoned metal mines in South Korea

- 저 자 :

Ulziikhishig Surenbaatar¹⁾, 김병권¹⁾, 손현진¹⁾, 조성식²⁾, 김권민³⁾, 임현주³⁾, 권정연³⁾, 김기환⁴⁾, 홍영습¹⁾³⁾

- 소 속 :

1)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3) 동아대학교 중금속노출 환경보건센터, 4) (주)젠큐브플러스

- 초록 내용 :

Purpose: 폐금속광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요 중 비소 종 농도를 측정하여 관련 노출 요인 및 비소 대사 관련 유전자들의 다형성이 인체 비소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Methods: 4개의 폐금속광산 지역의 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LC/ICP-MS을 이용하여 As3+, As5+, MMA, DMA의 4개 비소종을 정량 분석하였다. 유전자 MTHFR E429A, GSTO1 A140D, AS3MT M287T와 같은 3가지 유전자 변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Result: 대상자의 34.7%는 남성, 65.3%는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0.7 ± 10.9 세로, 체질량지수의 평균은 24.4 ± 3.44 kg/m²이었다. 거주 지역 내 생산되는 쌀을 절반 이상 섭취하는 경우 절반 미만을 섭취하는 군에 비하여 요 중 iAs 농도가 높았다. 최근 1일 내 해산물을 섭취한 군의 요 중 DMA 농도가 해산물을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다. GSTO1 A140D 유전자의 이형접합형이 wild형 및 동형접합형에 비하여 무기비소 및 유기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THFR E429A 유전자의 이형접합형/동형접합형이 wild형에 비해서 요 중 무기비소 농도가 높았다. Conclusion: 폐금속광산 지역 주민의 요 중 무기비소의 노출 요인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쌀 섭취로, 유기비소의 노출 요인은 해산물 섭취로 분석되었다. GSTO1 A140D 유전자의 이형접합형은 MMA와 DMA이 농도의 증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35]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폐금속광산 지역 주민의 요 중 비소종별 농도와 노출요인 평가

- 영문 제목 :

Urinary Arsenic Species Concentration and Exposure Factors in Residents living near Abandoned Metal Mines

- 저 자 :

Ulziikhishig Surenbaatar¹⁾, 김병권¹⁾, 손현진¹⁾, 조성식²⁾, 김권민³⁾⁵⁾, 임현주³⁾, 권정연¹⁾, 김기환⁴⁾, 홍영습¹⁾³⁾

- 소 속 :

1)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3) 동아대학교 중금속노출 환경보건센터, 4) (주)젠큐브플러스, 5)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

- 초록 내용 :

Objectives: 폐금속광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요 중 비소 종 농도를 측정하여 관련 노출 요인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Methods: 2007년 환경부가 실시한 폐금속광산 예비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폐금속광산지역 중에서 4개의 폐금속광산 지역의 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LC/ICP-MS을 이용하여 요 중 As3+, As5+, MMA, DMA의 4개 비소종을 정량 분석하였다. Result: 대상자의 34.7%은 남성, 65.3%은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0.7 ± 10.9 세로, 체질량지수의 평균은 24.4 ± 3.44 kg/m²이었다. 거주 지역 내 생산되는 쌀을 절반 이상 섭취하는 경우 절반 미만을 섭취하는 군에 비하여 요 중 무기비소 농도 및 PMI가 높았다. 최근 1일 내 해산물을 섭취한 군의 요 중 DMA 농도 및 SMI 수치가 해산물을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다. Conclusion: 폐금속광산 지역 주민의 요 중 무기비소의 노출 요인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쌀 섭취로, 유기비소의 노출 요인은 해산물 섭취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폐금속광산지역 주민의 비소노출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영향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오믹스 분석을 통한 환경보건취약지역 주민의 환경성질환 원인물질 추적 기술 개발 연구 사업단 소개

- 영문 제목 :

Introduction of Forensic Research via Omics Markers in environmental health vulnerable area(FROM) study

- 저 자 :

권정연¹⁾, Ulziikhishig Surenbaatar¹⁾, 민재희¹⁾, 김병권¹⁾²⁾, 엄상용³⁾, 조용민⁴⁾, 김우진⁵⁾, 김정웅⁶⁾, 홍영습¹⁾²⁾

- 소 속 :

1)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동아대학교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3)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4) 서경대학교 나노화학생명공학과, 5) 강원대병원 내과학교실 및 환경보건센터, 6)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

- 초록 내용 :

배경: 환경성질환의 발생과 관련하여 노출 이후의 각 단계별 바이오마커의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며 정확한 환경노출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 노출 생체지표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질환을 추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및 질환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고, 기술을 고도화하여 환경성질환자 및 환경보건 취약지역에 실증 적용하고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방법 및 결과: 환경보건 취약지역(제련소, 폐광, 산단 지역 등) 및 대조군지역을 선정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환경성질환 의심질환자(신장질환, 암, 호흡기질환, 천식 등)의 생체시료를 확보하여 노출 및 질환과 연관된 특이 바이오마커를 개발, Multi-OMICS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역학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보한 생체시료는 냉동 분리한 후 실험실로 이송하여 시료의 적합성 검증을 수행한다.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해 중금속 및 환경유해인자 분석, 부가체 분석을 수행하고 후성 유전체, 전사체, 단백질체, 대사체의 오믹스 분석이 각각 실험실에서 진행된다. 바이오마커 발굴하여 환경성질환 예측력 및 진단 정확도 산출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환경보건평가의 공공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로 인해 환경성질환 발생위험도 평가 및 환경보건 취약지역의 건강영향평가에 개발된 바이오마커를 적용 검증하여 환경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의 고도화하고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성질환 연관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적인 기여도 가능할 것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본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입니다.(2021003320005)



- 국문 제목 :

구미 불산사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만성건강영향 추적연구

- 영문 제목 :

A follow-up study of chronic health effects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fter the Gu-mi Hydrofluoric acid accident

- 저 자 :

최선경¹⁾, 박채율¹⁾, 정승훈¹⁾, 이정하¹⁾, 안연순²⁾

- 소 속 :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구미불산사고 후 노출지역과 대조지역 주민의 건강보험자료를 추적하여 만성 건강 영향 감시방법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함. 불산 사고 기간을 중심으로 구미시 4개 노출지역(고농도 노출지역 2개, 중등농도 노출지역 1개, 저농도 노출지역 1개)의 전체 외래 및 상병코드 T59, J02, R00-R09, H10, H16, F00-F48에 대한 표준화외래이용비를 산출함. 분석 결과 전체외래와 F40-F48의 경우 고농도 및 중농도 노출지역에서 의료이용이 사고시 가장 높았다가 이후 사고 이전 상태로 환원되어 사고로 인한 건강영향이 의료이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T59의 경우 사고기간을 제외하고 사고로 인한 의료이용이 없었으나 저노출 지역의 경우 사고 전후에도 T59로 의료이용하는 건수가 지속되어 불산사고 이외의 기타 기체, 연무 및 물김의 중독 작용으로 외래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음.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Environment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through?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or Project), fund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MOE)(2017001970001)



초록 등재번호 : [P-038]

- 국문 제목 :

환경보건캠프 자료를 이용한 일반 인구집단 중금속 노출 수준

- 영문 제목 :

Exposure Level of Heavy Metals in General Population using Environmental Health Camps

- 저 자 :

민재희

- 소 속 :

동아대학교 중금속노출 환경보건센터

- 초록 내용 :

환경보건센터 사업의 일환인 환경보건캠프는 다양한 지역의 일반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환경보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국 각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참여자에 대해서 생체 중금속 농도를 평가하여 제공하며, 고노출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고노출자 관리 및 전국민 노출 수준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캠프에 참여한 일반 인구집단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 및 지역별 추이를 파악하여 노출 수준의 평가 및 바이오모니터링의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한다. 환경보건캠프 참가자 중 참여를 희망한 성인 641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노출검사를 실시하였다. 혈중 납의 노출 수준은 서울(n=125) $1.11 \pm 0.47 \mu\text{g/L}$, 부산(n=235) $1.10 \pm 0.49 \mu\text{g/L}$, 경기(n=66) $1.62 \pm 0.59 \mu\text{g/L}$, 경남(n=215) $1.25 \pm 0.71 \mu\text{g/L}$ 이었고, 혈중카드뮴의 노출수준은 서울 $0.70 \pm 0.40 \mu\text{g/L}$, 부산 $0.78 \pm 0.38 \mu\text{g/L}$, 경기 $0.97 \pm 0.45 \mu\text{g/L}$, 경남 $1.07 \pm 0.84 \mu\text{g/L}$ 의 값이 나타났으며, 혈중 수은의 노출수준은 서울 $2.98 \pm 1.94 \mu\text{g/L}$, 부산 $2.75 \pm 1.73 \mu\text{g/L}$, 경기 $2.88 \pm 1.60 \mu\text{g/L}$, 경남 $3.66 \pm 2.33 \mu\text{g/L}$ 이었다. 고노출자 관리의 기준은 국제적인 참고치를 근거로 혈중 납 $5 \mu\text{g/L}$, 혈중 카드뮴 $2 \mu\text{g/L}$, 혈중 수은은 $5.8 \mu\text{g/L}$ 를 적용하였다. 초과자 분포에서 서울은 혈중 카드뮴 1명(0.8%), 혈중 수은 11명(8.8%), 부산은 혈중 카드뮴 1명(0.4%), 혈중 수은 11명(4.6%), 경기는 혈중 카드뮴 1명(1.5%), 혈중 수은 3명(4.5%)의 고노출자가 나왔다. 경남은 혈중 납 1명(0.5%), 혈중 카드뮴 16명(7.4%), 혈중 수은 29명(13.5%)로 타 지역에 비해 기준치 초과자가 많았다. 본 캠프사업의 자료는 임의표본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국민 환경보건사업의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환경보건자료로 판단된다. 향후 참여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보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캠프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국민 노출수준 평가와 고노출자 관리를 통한 국민노출수준 저감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39]

- 국문 제목 :

인지기능이 저하된 한국 고령자의 체내 중금속 농도 기준

- 영문 제목 :

Cut-off Point of Concentration Heavy Metals in the Body for Korean Old Adults with Cognitive decline

- 저 자 :

김권민¹⁾²⁾, 김나영²⁾, 임현주²⁾, 강민경²⁾, 박경원³⁾, 조성식²⁾⁴⁾, 권정연⁵⁾, 손현진²⁾⁵⁾, 김병권²⁾⁵⁾, 홍영습²⁾⁵⁾

- 소 속 :

1)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 2) 동아대학교 중금속 노출 환경보건센터, 3) 동아대학교 신경과, 4) 동아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5) 동아대학교 예방의학과

- 초록 내용 :

[Background]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화로 인한 질환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질환인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포함한 인지 장애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환경화학물질로 분류되는 중금속은 신경독성물질로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한국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인지기능 저하와 다수의 체내 중금속의 관련성에 대한 정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성화 지어진 개인의 인지 기능 영역에서 체내의 다양한 중금속 농도를 비교하며, 한국인 특성에 맞는 기준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Methods] 150명의 고령자를 모집하였으나 그 중 13명이 탈락 하여 총 13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대면 설문을 통해 성별, 나이, 학력, 가족력 및 인지기능을 평가 하였으며, 인지기능 평가 항목은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Digit span test (DST), Korean boston naming test (KBNT), Rey complex figure test (RCFT), Seoul verbal learning test (SVLT), Korean color word stroop test (KCWST)을 조사 하였다. 또한 체내 중금속 농도 수준의 평가는 혈액과 요 중 비소, 알루미늄, 크롬, 망간, 코발트, 니켈, 철, 구리, 아연, 납을 조사하였다. [Results] 인지기능 평가와 체내 중금속 농도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KBNT ($P<0.01$) 및 MMSE ($P<0.05$)가 알루미늄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군등 사 분위 한 알루미늄 농도와 KBNT점수는 Q4 그룹에서 3.598 (CI 1.193-10.849)배 높게 나타났으며, MMSE점수는 1.946 (CI 0.660-5.735)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체내 중금속 알루미늄 농도가 $20.17\mu\text{g/L}$ 이상이면 KBNT 점수가 저하 될 수 있다고 나타났으며, $11.71\mu\text{g/L}$ 이하면 MMSE의 점수가 저하 될 수 있다고 나타났다. [Conclusion] 체내 알루미늄 농도는 MMSE와 KBNT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특히, 체내의 알루미늄 축적 농도가 높을수록 언어 기능이 저하 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져 중금속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내에 알루미늄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40]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직업 소음, 진동과 불안의 연관성

- 영문 제목 :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noise and vibration and anxiety in the South Korean working population: A cross-sectional study

- 저 자 :

박민아¹⁾²⁾, Fatima Nari¹⁾²⁾, 정원정¹⁾²⁾, 박은철²⁾³⁾, 장성인²⁾³⁾

- 소 속 :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Although occupational exposure to noise and vibration is common, its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is poorly understoo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exposure to noise and vibration and anxiety among Korean workers. Data from the 5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conducted in 2017 were used.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ir level of exposure, and anxiety was assess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and anxiety. Overall, 45,241 participa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likelihood of anxiety increased in both males and females when exposed to both occupational noise and vibration (males: odds ratio (OR) = 2.25, confidence interval [CI] = 1.77?2.87; females: OR = 2.17, CI = 1.79?2.61). The association between the varying degrees of noise, vibration, and combined exposure showed a dose?response relationship among males. This study revealed that occupational noise and vibration exposure is associated with anxie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re detailed regulations regarding occupational noise and vibr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ensure a safer environment for workers.

- 이해상충여부 :

none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암 진단 이후 미세먼지 노출이 암환자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암등록자료 기반 코호트 연구

- 영문 제목 :

Effect of exposure to particulate matter after diagnosis on cancer survival: results of a Chungbuk Regional Cancer Registry-based cohort study

- 저 자 :

엄상용¹⁾, 김용대¹⁾²⁾, 김현¹⁾²⁾

- 소 속 :

1)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 초록 내용 :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Group 1, IARC)이며, 많은 연구에서 암 발생 및 사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암 진단 이후의 암 환자의 미세먼지 노출이 암환자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북지역 암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암 진단이후 미세먼지 노출과 암 생존율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충북지역 암발생자 중 미세먼지 노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암 진단 이후 1년 이상 생존한 44,432명이었었다. 미세먼지(PM10) 노출 수준은 암 환자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생존 여부를 추적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생존자는 32,734명(73.7%)이었으며 사망자는 11,698명(26.3%)으로 확인되었다. 암환자의 평균생존기간은 67.7개월이었으며, 암 생존자와 사망자의 평균생존기간은 각각 76.1개월, 44.1개월이었다. 암 생존자의 미세먼지(PM10) 월평균 농도는 $47.7 \mu\text{g}/\text{m}^3$ 로 사망자 $52.6 \mu\text{g}/\text{m}^3$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1표준편차($5.2 \mu\text{g}/\text{m}^3$) 높아질 때마다 모든 원인 사망위험은 3.42배(95% 신뢰구간: 3.33-3.51)증가하였으며, 이는 암진단연령, 성별, 암병기 등 잠재적인 교란변수에 대한 층화분석에서도 동일한 양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암 진단이후 미세먼지 노출이 암 환자의 생존기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리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노출 저감 등의 환경적 예방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42]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미세먼지 대기오염 자료에 따른 질병부담 추정결과의 차이

- 영문 제목 :

Role of different data sources of particulate matter to estimate health impacts in South Korea

- 저 자 :

Nguyen Thi Cham, 김선영

- 소 속 :

국립암센터, 암과학정책대학원

- 초록 내용 :

Background: Despite the increased attention given to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of air pollution, uncertainties still exist due to sources of exposure data. Purpose: We investigated the roles of three commonly-applied particulate matter (PM) data sources in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 which is an epidemiologic measure widely used to assess the public health impact of exposures in populations. Methods: We assessed long-term exposure to PM_{2.5} as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in 2016 using three data sources: 1) measurements from regulatory monitoring networks, 2) predictions from a local prediction model developed based on regulatory monitoring data, and 3) predictions from a global prediction model developed along with satellite-derived PM_{2.5} estimates. For each of data source, we computed the province - PAF attributable to PM_{2.5} using district-averages of PM, district-level populations, and relative risk obtained from previous studies for each health outcome which were conducted in South Korea and are generalizable for Korean population. Results: Among three data sources, the PAF calculated based on local PM_{2.5} prediction was the highest for all health outcomes: 0.35 (95% Confidence interval [CI]: 0.33-0.35), 0.34 (0.33-0.35), and 0.35 (0.17-0.47) for cardiovascular disease (CVD), stroke, and lung cancer mortality. Measurements-based and satellite-derived PM_{2.5} gave lower PAF: 0.23 (0.22-0.24), 0.22 (0.22 - 0.23), and 0.23 (0.1 ? 0.32), and 0.32 (0.3-0.33), 0.31 (0.3-0.32), and 0.32 (0.15 ? 0.43), respectively. Conclusions: Future studies should be cautious about applying global exposure estimates to local health impact analyse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우즈베키스탄 여성에서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과 자궁경부암 검진 행태

- 영문 제목 :

Human papillomavirus knowledge and cervical cancer screening performance among Uzbekistan women

- 저 자 :

Bolormaa Erdenetuya, 최승아

- 소 속 :

고려대학교

- 초록 내용 :

자궁경부암은 우즈베키스탄 여성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이지만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 대한 지식 정도와 자궁경부암의 검진 행태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HPV감염에 대한 지식과 실제 검진 행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20년 12월에 타슈켄트의 3개 보건 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한 20~59세 여성 445명을 대상으로 HPV 감염에 대한 지식 정도와 실제 자궁경부암 검진 행태에 대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지식 측정에는 Roik등이 러시아어로 개발한 13문항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고, 불충분한 자궁경부암 검진 행태로 1) 일생에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와 2) 최근 2년 내에 받은 적이 없는지를 조사하였다. HPV 감염에 따른 지식 점수(맞게 응답한 문항 수 합계)와 검진 행태간의 연관성을 보정된 상대위험도를 통해 추정하였다. 참가자의 중앙 연령은 38세였으며 대부분은 기혼자, 경산부, 중등 교육 이하 교육을 받았다. 지식 점수의 중앙값은 13점 만점에 10점이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일생에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없는 여성은 36.9%였으며, 일생에 적어도 한번의 검진을 받은 경우라도 35.2%는 최근 2년 이내에 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다. 성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일생 동안 검진을 받지 않았을 확률이 낮았으며(보정된 상대위험도=0.43, 95% 신뢰구간: 0.24, 0.78), 2년 이내 검진을 받은 적이 없을 확률이 낮았다(0.54, 95% 신뢰 구간: 0.29, 0.98) 지속적으로 낮았다. 대학을 졸업한 여성은 2년 이내에 검진을 받은 적이 없을 확률이 낮았다(0.63, 95% 신뢰구간: 0.40, 0.99). 연령과 출산력, 결혼 여부, HPV 지식 점수는 자궁경부암 검진 행태와의 연관성이 유의한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일군의 우즈베키스탄 여성에서 HPV 지식 점수와 자궁경부암 검진 행태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HPV 지식 수준을 높이는 전략이 자궁경부암 검진 행태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44]

- 국문 제목 :

COVID-19의 기초감염재생산수 추정값 메타분석

- 영문 제목 :

Basic reproduction number estimate of COVID-19 : A meta-analysis

- 저 자 :

안지수¹⁾, 박소희²⁾, 김희진³⁾⁴⁾, 지선하³⁾⁴⁾

- 소 속 :

1)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통계학과,
3)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4)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 초록 내용 :

배경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였다. 이 폐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으로 명명되었다.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면 정확한 감염력(transmissibility)을 평가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 기초감염재생산수(R_0 , basic reproduction number)가 초기 감염력을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대상 및 방법 : COVID-19의 기초감염재생산수 값을 메타분석을 통해 추정값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 문헌 검색은 Pubmed와 Scopus을 이용하였으며, 검색어로는 'R0', 'COVID-19', 'basic reproduction number'를 AND 혹은 OR로 조합하였으며, 2021년 3월 14일 최종 검색을 완료하였다. 문헌 1차 선택/배제 과정에서는 검색된 연구들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394개의 문헌들을 배제하였고, 1차 선정된 문헌의 개수는 156개였다. 2차 선택/배제 과정에서는 156개 논문의 전문(full text)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30개의 문헌을 선택하였다. 30개의 문헌에서 63개의 R_0 값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각 국에서 유행 초기의 환자 발생자료로부터 계산된 값을 확인하였다. 결과 : R_0 추정값은 3.15(95% 신뢰구간 : 2.87 ~ 3.44, $p < 0.01$)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연구들 간의 이질성 검정 결과, 연구들 간의 높은 이질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chi^2=10498.95$, $df=62$, $p<0.00001$, $I^2=99.4\%$). 높은 이질성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하위그룹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대륙으로 구분하였다. 아프리카 (2.320) < 남아메리카 (2.322) < 아시아 (2.78) < 유럽 (3.95) < 북아메리카 (4.14)의 대륙별 R_0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고찰 및 결론 : 유행 초기 보고를 메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방역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 시점에서 한 명의 COVID-19 확진자는 평균 3.15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향후 COVID-19의 세대기(generation time)와 잠복기(window period) 등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 COVID-19 백신의 항체 형성을 및 효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45]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COVID-19의 급성 합병증으로서의 당뇨병의 발생

- 영문 제목 :

New-Onset Diabetes as an Acute Complication of COVID-19: a National Population Cohort Analysis

- 저 자 :

홍관¹⁾, 김지현¹⁾²⁾, 김수진¹⁾²⁾, Raquel Elizabeth Gomez Gomez¹⁾, Kisiju Trishna¹⁾, 강민구¹⁾, 천병철¹⁾²⁾

- 소 속 :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 러닝헬스시스템융합전공

- 초록 내용 :

Background: Diabetes is one of the complications of COVID-19, but this is hard to be revealed with cross-sectional studies since it is also known as the major predisposing factor for high-risk COVID-19.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risk of new-onset diabetes after COVID-19 through a population follow-up study. Methods: All COVID-19 confirmed cases from January 20 to June 4, 2020, were matched with their health screening data. Controls were selected as the people who received the PCR test for COVID-19 and showed negative results and followed up until July 19, 2020. We selected the outcome as the diagnosis of diabetes (ICD-10, E10 ? E14). People who were diagnosed with diabetes in the past five years were excluded. After performing a log-rank test between groups, adjusted incidence rate and hazard ratio were estimated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ing. Age, sex, region, family histories, income,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such as hypertension, alcohol consumption, cigarette smoking, and BMI were adjusted. Results: A total of 6,247 COVID-19 patients and 143,594 controls without diabetes in the past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The number of new-onset diabetes were 759 (12.15%) in COVID-19 patients and 3,465 (2.41%) in controls ($P < 0.01$). The adjusted incidence of diabetes was 15.34 and 11.18 per 100 person-year, respectively. The adjusted hazard ratio of diabetes was 2.97 (95% CI: 2.44 ? 3.63). Conclusion: Since COVID-19 patients showed a higher incidence of new-onset diabetes in a short-time follow-up, we should consider diabetes as one of the possible complications of COVID-19.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ChAdOx1 nCoV-19 Vaccine 1차와 2차 접종 후 이상증상 경험 양상

- 영문 제목 :

Adverse Events after the First and Second Dose of ChAdOx1 nCoV-19 Vaccination in Daejeon

- 저 자 :

김은수, 정은호, 신선경, 서해민, 방윤아, 김진, 남해성

- 소 속 :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초록 내용 :

2020년 1월 우리나라 COVID-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유행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응하여 대전광역시에서도 2021년 3월부터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자 등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에 대해 ChAdOx1 nCoV-19 (이하 AZ) 또는 BNT162b2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였다. 이들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에 대한 국내 보고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Z 1차와 2차 접종 후 이상 증상의 분포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AZ 1차와 2차 예방접종후 이상증상 경험 여부, 이상증상 후 대처방법, 이상증상 종류 및 추가 예방접종 의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모집단은 2021년도 1분기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대상자인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종사자 및 입원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고위험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을 포함하였다. 대전광역시 소재하는 대상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2021년 3월 22일~3월 29일 기간과 2021년 6월 18일~7월 4일 기간 각각 동일 모집단에 대해 단면 연구 설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방접종 후 831명과 2차 예방접종 후 361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웹기반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은 AZ 1차 접종 후 87.5%, 2차 접종 후 59.3%로 1차 접종 후 이상증상 발생비율이 더 높았다. 예방접종 후 6~11시간대 (1차 42.5%, 2차 24.7%)와 12~23시간대(1차 22.8%, 2차 10.5%)에서 대부분 이상증상이 시작하였다. 이상증상 종류는 예방접종 후 3일전 접종부위 통증(1차 90.0%, 2차 67.0%), 피로감(1차 61.6%, 2차 39.6%), 발열(37.5도 이상) (1차 45.1%, 2차 15.2%) 등을 주로 호소하였으며, 3일 이후에도 접종부위 통증(1차 66.1%, 2차 28.8%), 피로감(1차 28.8%, 2차 17.7%), 발열(1차 9.4%, 2차 3.9%) 등을 주로 호소하였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상반응 발생비율이 낮았다. 2차 예방접종 의향은 80% 이상,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67.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방접종 전에 백신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파악하여 상담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과 대전광역시의 국고보조금사업비(과제번호 2020-0458-02)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초록 등재번호 : [P-047]

- 국문 제목 :

코로나19 예방 전략으로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 영문 제목 :

Time to consider ventilation as an essential preventive strategy for cluster infection of COVID-19:
A Scoping Review

- 저 자 :

박은혜¹⁾, 하재영¹⁾, 강수진²⁾

- 소 속 :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 초록 내용 :

Growing evidence of SARS-CoV-2 suspended in the air as well as cluster infection cases unexplained by close contact or droplets has been accumulated. Although the role of ventilation in lowering the risk of COVID-19 transmission has been highlighted, there is still little pragmatic information for facilities on how to ventilate properly. In this scoping review, we aimed to map evidence on ventilation-related research in the context of COVID-19 cluster infections.

We conducted a scoping review by searching three databases: PubMed, Scopus, and Google Scholar for studies published between 2020 and 2021. Publications should be included the following category terms: ventilation, airborne transmission, cluster infections, daily activity-related indoor facilities (e.g., schools, workplace, sport and recreation, restaurants, place of worship, and other social events).

A total of 14 studies were included in our analysis. Our review indicates that transmission through aerosol (airborne transmission) possibly occurs under certain conditions in indoor environments: the emission rate (singing, speech, etc.) of the infected person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temperatures, relative humidity, sunlight, and airflows). Ventilation is an effective way to lower the risk of infection, where the air exchange rate (AER) is key. However, the ventilation method may vary depending on the activities of peop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Our findings suggest that in addition to the recommendation for promoting ventilation, developing guidelines for different facility types, including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s crucial and should be considered to reduce the risk of air transmission in indoor environments.

- 이해상충여부 :

- Acknowledgement :

이 연구는 2021년도 질병관리청 정책연구과제 "집단사례별 위험도 기준·평가 및 공기역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유행역학조사 방법론 개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초록 등재번호 : [P-048]

- 국문 제목 :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분석 연구

- 영문 제목 :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distancing using present population data in Seoul

- 저 자 :

김준형¹⁾, 조수영¹⁾, 최윤영¹⁾, 하재영¹⁾, 남희경¹⁾, 민경덕²⁾, 조성일¹⁾²⁾

- 소 속 :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 초록 내용 :

[연구배경]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거리두기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중심으로 유행 시기에 따른 이동량 감소를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카페, 음식점이 밀집되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Hot place)”를 중심으로 유행 시기에 따라 이동감소량을 확인하고, 이동감소량과 코로나19 유효접촉률(Effective contact rate)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은 서울시 핫플레이스로, 선행연구에서의 정의와 커피전문점이 100개 이상인 동을 바탕으로 선정한 10개 자치구의 62개 동이며, 동일 자치구의 나머지 108개 동을 주거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대상 기간은 2차 유행(2020년 8월 8일~10월 11일)과 3차 유행(2020년 11월 12일~2021년 2월 14일) 시기이다. 이동변화량은 서울시 생활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Paired-t검정을 통해 두 지역의 이동변화량을 비교하였다. 이후 지역 및 시기별 단순회귀모형을 활용하여

SEIR(Susceptible-Exposed-Infectious-Removed) 모델을 통해 산출한 유효접촉률과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잔차의 자기상관이 확인된 모형은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을 적합하였다. [연구결과] 핫플레이스와 주거지역 이동변화량 차이의 범위는 8.8%p~12.2%p로 핫플레이스에서 더 감소했고, 2차 유행보다 3차 유행에서 이동량이 더 감소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핫플레이스의 회귀계수는 2차 유행에서 0.47(95% CI: 0.01—0.93), 3차 유행에서 0.62(95% CI: 0.22—1.02)로 핫플레이스의 이동변화량이 유효접촉률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주거지역은 2차 유행에서 0.13(95% CI: -0.84—1.10), 3차 유행에서 0.18(95% CI: -0.98—0.61)으로 유효접촉률과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고찰 및 결론] 핫플레이스에서 거주지역보다 이동량이 크게 감소하고 이는 유효접촉률과도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카페, 음식점 등)에서의 사회적 모임 혹은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 정책은 효과가 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 3차 유행 시기 모두 유효접촉률과 핫플레이스 지역의 이동감소량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이동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49]

- 국문 제목 :

충남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인구학적 특성 분석

- 영문 제목 :

Demographics of COVID-19 foreign patients living in Chungcheongnam-do in the 4th Wave
COVID-19 Pandemic

- 저 자 :

우상욱, 임지애, 강기석, 최동권, 서정은, 김진아, 정승희, 한대희, 최종혁, 최현준, 권호장

- 소 속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 초록 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며 우리나라 거주 중인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15%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21.9.2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충남 또한 외국인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8주차('21.9.12~9.18)에 43.7%로 가장 높은 외국인 확진 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남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감염경로를 분석하였다. 충청남도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현황('21.9.26. 기준)을 기준으로 28~38주차('21.7.04~9.18) 기간 내 코로나19 RT-PCR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확진자를 대상으로 엑셀(Excel)을 활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28주차~38주차('21.7.04 ~ 9.18) 기간 동안 발생한 충남 체류 외국인은 총 1,154명이다. 전체 확진자 중 남성은 758명(65.7%), 여성은 396명(34.3%) 발생하였으며, 연령별로 0-9세 37명(3.2%), 10-19세 55명(4.8%), 20-29세 453명(39.3%), 30-39세 360명(31.2%), 40-49세 160명(13.9%), 50-59세 63명(5.5%), 60-69세 25명(2.2%), 70세 이상 0명(0%)이었다. 국가별로(상위 10개 국가) 베트남 237명(20.5%), 카자흐스탄 220명(19.1%), 우즈베키스탄 153명(13.3%), 태국 134명(11.6%), 중국 93명(8.1%), 러시아 71명(6.2%), 네팔 48명(4.2%), 인도네시아 33명(2.9%), 캄보디아 28명(2.4%), 몽골 22명(1.9%) 순으로 발생하였다. 감염경로별로 지표환자 접촉자 441명(38.2%), 직장(사업장) 229명(19.8%), 지표환자 206명(17.9%), 해외유입 109명(9.4%), 타지역 확진자 접촉 104명(9.0%), 교육시설 34명(2.9%), 식당 8명(1.8%), 휴게음식점 8명(0.7%), 유흥시설 2명(0.2%) 순으로 발생하였다. 충남 외국인 확진자 수 및 비율은 28주차 15명(6.5%), 29주차 34명(11.4%), 30주차 26명(9.8%), 31주차 40명(12.3%), 32주차 45명(11.0%), 33주차 130명(25.8%), 34주차 123명(28.0%), 35주차 177명(35.7%), 36주차 184명(34.2%), 37주차 177명(28.0%), 38주차 187명(43.7%)순으로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 외국인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고 외국인 확진자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 결측값 1명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50]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유행성 이하선염의 시공간 역학 및 관련 지역 요인

- 영문 제목 :

Spatio-temporal epidemiology of mumps and regional risks: a national-level spatial analysis

- 저 자 :

홍관¹⁾, 김지현¹⁾²⁾, 김수진¹⁾²⁾, Raquel Elizabeth Gomez Gomez¹⁾, Kisiju Trishna¹⁾, 강민구¹⁾, 천병철¹⁾²⁾

- 소 속 :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 러닝헬스시스템융합전공

- 초록 내용 :

Background: Mumps is in Korea's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though there are still epidemics, especially in young age. The study's objectives are to establish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umps and suggest the predicting factors. Methods: We extracted cases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between 2013 and 2017. Age-specific incidence rate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were evaluated. We tested for spatial autocorrelation by Moran's I statistics with Delaunay triangular links. Simultaneous autoregressive model for cumulative incidence of mumps using triangular links was used to predict cumulative incidence with region specific factors. Results: A total of 219,149 (85.12 per 100,000) were diagnosed and 23,805 (9.25 per 100,000) were hospitalized. Weekly cumulative incidence showed two epidemics every year, between weeks 20-25 and 40-45. Cumulative incidence of ages 10-19 was the highest, 332.21 per 100,000 people, followed by 300.75 per 100,000 people in ages 0-9. Geographical distribution showed clusters of epidemics, and Moran's I statistics was 0.304 with a p-value <0.01. The Simultaneous autoregressive model estimated the mean age and hospital resources of each region as prediction factors for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umps. Conclusions: Mumps is common in children and peaks in summer and winter. Additionally, there are geographical clusters in epidemics, and the effect of region factors such as mean age and hospital resources are suspected.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51]

- 국문 제목 :

충청남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발생률 및 사망추이(2018~2020)

- 영문 제목 :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Incidence and Mortality Chungcheongnam-do, in South Korea 2018~2020

- 저 자 :

최현준, 임지애, 강기석, 최동권, 서정은, 김진아, 정승희, 한대희, 우상욱, 최종혁, 권호장

- 소 속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 초록 내용 :

「2020 감염병감시연보」에 따르면 충남의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이하 CRE) '19년 대비 발생률은 28.8%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CRE 발생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충청남도의 CRE 발생률과 사망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국내 감염병감시연보,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사망원인통계 데이터와 주민등록연앙인구에 사용된 연도별 데이터(2018~2020)를 활용하였다. 2020년 충남의 CRE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4.3명으로 이는 국내 CRE발생률 34.9명보다 낮았다. 연도별 발생률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10.8명, 11.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 충남의 신고된 CRE 발생수는 각각 230건, 236건, 30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20년 충남 성별 발생수(발생분율)는 남성 165건(56.4%), 여성은 139건(45.7%) 발생하였다. 충남의 연령별 발생수(발생분율)는 70대 204건(67.1%), 60대 43건(14.1%), 50대 29건(9.5%), 0~49세 28건(9.2%) 발생했다. 충남 시군별 발생수는 천안시 동남구 132건(43.4%), 천안시 서북구 68건(22.4%) 홍성 18건(5.9%)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시도는 서울, 경기, 부산이었으며, 충남은 17개 시도 중 6번째로 적게 나타났다. 충남 사망자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3건, 1건, 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를 통해 2018년부터 충남 CRE 발생현황과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별) 등 국내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패턴을 확인했지만, 월별 발생현황과 사망추이에서는 유사한 패턴을 찾지 못했다. 충남 CRE 환자의 발생 및 사망자의 특성 및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며,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충남 또는 타시도 CRE 예방 및 감시관리 정책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52]

- 국문 제목 :

코로나19 집단발생지역 일반 거주자 및 확진자 면역도 조사

- 영문 제목 :

Seroepidemiological study of COVID-19 outbreak region in Korea

- 저 자 :

이경수¹⁾, 류남희²⁾, 권기태³⁾, 김건엽⁴⁾, 김종연⁵⁾, 박지혁⁶⁾, 안준홍⁷⁾, 이종호⁸⁾, 이중정⁹⁾, 장윤영¹⁰⁾, 허지안¹¹⁾, 홍남수⁴⁾, 황준현¹²⁾, 김상경¹³⁾, 김유경¹⁴⁾, 박성균¹⁵⁾, 이재희¹⁶⁾, 장순희¹⁷⁾, 함지연¹⁸⁾, 김태엽¹⁹⁾, 민도식¹⁹⁾, 안선우¹⁾, 조영남¹⁾, 허소진¹⁾

- 소 속 :

1)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교실, 3)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4)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경북대학교병원, 6)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7)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8)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교실, 9)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0)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11)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12)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3)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14)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15)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교실, 16) 대구동산병원, 17) 대구파티마병원 진단검사의학과, 1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19) 씨젠의료재단

- 초록 내용 :

배경: 본 연구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코로나19 항체 보유 조사와 집단 내 면역정도, 무증상감염을 포함한 감염규모를 추정하여 향후 코로나19 방역대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인, 의료종사자, 접촉자 등의 항체보유율의 조사를 통하여 인구집단별 맞춤형 코로나19 방역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일반 성인과 미성년자의 경우 대구광역시와 경상지역 건강검진센터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후 잔여혈청을 성별, 연령군별, 지역별 발생률 등 고려하여 수집(성인 1,789명, 소아 558명)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종사자(301명)는 2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연구에 동의하는 사람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항체조사는 대구시 다수의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 확진자의 검사 후 잔여혈청을 수집(총 396명, 혈청검체 1,048개)하였다. 결과: 일반성인의 지역별 항체검사는 대구 1,613명 중 13명(0.81%), 경산 176명 중 4명(2.27%) 양성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항체검사는 30대 6명(2.22%), 50대 4명(1.05%), 40대 3명(0.85%), 60대 2명(0.72%), 70대 이상 1명(0.44%), 20대 1명(0.35%)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총 558명 중 1명(0.18%)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의료종사자의 경우 검사대상자 301명 중 1명(0.33%)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검사한 2개 대학병원 의료종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직종은 간호사 비율이 A병원은 54.6%, B병원은 66.4%로 나타났고, 중환자실 근무 비율은 B병원이 45.7%, A병원 25.9%였으며, 90일 이상 근무자 비율 역시 B병원 51.7%, A병원 35.7%였다. 확진자의 경우 총 1,048개에서의 항체양성률은 약 85%였으며, 증상발현일로부터의 경과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주일 이내의 경우 약 33.6%, 2주차에 약 80.5%, 3주차에 97.4% 이후 95%이상의 양성률을 보였다. 2개 이상의 연속적인 검체가 확보된 환자(119명)의 항체검사 분석 결과, 증상발현일로부터 1~5주 사이에 항체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찰 및 결론: 대구광역시 전역과 경상북도 경산시 지역의 일반인(성인, 미성년자, 의료종사자)의 항체양성률은 1% 미만으로 집단면역을 논하기가 어렵고, 방역대책에서도 95% 이상의 거의 대부분의 인구집단이 코로나19 감염의 감수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기존의 거리두기와 조기발견을 통한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53]

- 국문 제목 :

대전시민의 COVID-19 백신 접종 의도 영향 요인

- 영문 제목 :

Factors influencing the COVID-19 vaccination among Daejeon Metropolitan Citizens

- 저 자 :

차선희¹⁾, 권상일¹⁾, 정은영¹⁾, 김유진¹⁾, 김동현¹⁾, 안순기¹⁾²⁾

- 소 속 :

1)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 충남대학교병원

- 초록 내용 :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전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전국민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망설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생산한 대전시민 건강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조사 시점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시민 1,320명을 연구집단으로 설정하였고, 기저 질환이 없는 비질환군(1,053명)과 기저 질환이 있는 질환군(267명)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백신 접종 의향 유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의 건강행동모형에 기반하여 선행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가능성 요인(직업 유무, 소득수준, 건강보험유형, 정부 신뢰), 욕구 요인(주관적 건강수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백신 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88.3%는 백신 접종 의향이 있었고, 비 질환군과 질환군 모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비질환군: OR=1.59; 95% CI=1.28-1.98; 질환군: OR=2.86; 95% CI=1.39-5.85),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비질환군: OR=0.84; 95% CI=0.72-0.98; 질환군: OR=0.62; 95% CI=0.46-0.83),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높을수록(비질환군: OR=1.29; 95% CI=1.12-1.48; 질환군: OR=1.75; 95% CI=1.39-2.31) 백신접종 의향이 높았다. 한편 질환군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OR=0.31; 95% CI=0.10-0.95) 백신 접종 의향이 낮았다. 논의 및 결론 정부의 신뢰는 사람들의 백신접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백신수급대안 및 백신접종피해보상제도 등의 운영이 중요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 요인들이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코로나19 심리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집단은 백신 접종 전후 세심한 건강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54]

- 국문 제목 :

HIV감염자에서 암 발생 현황: 일반인구 집단과의 비교

- 영문 제목 :

Incident cancer i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ed people in Korea: Compared with Korean population

- 저 자 :

안경환¹⁾, 최윤수¹⁾²⁾, 최보율¹⁾²⁾, 박보영¹⁾²⁾

- 소 속 :

1) 한양대학교 건강과사회연구소,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배경: HIV 감염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이차 질환의 발병위험이 높으며, 암 발생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로 인해 HIV 감염자의 생존율은 개선되었고, HIV 감염자의 고령화는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켰다. 미국에서는 HIV 감염자의 고령화로 AIDS 비정의 암(non-AIDS defining cancer)이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전립선암, 폐암, 비호지킨림프종 순으로 흔하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근에는 HIV 환자 군을 대상으로 일반 암 질환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국내 HIV 감염자의 암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AIDS 정의 암 및 비정의 암에 대한 발병률에서 일반인구 집단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의 HIV 감염자 자료와 통계청 홈페이지의 일반인구 집단 자료를 이용하였고, 100,000인년 기준 표준화 발생비(SIR, Standardized incidence ratio)를 계산했다. 연구 결과: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등록된 14,565명의 15세 이상 HIV 감염자를 추적하였다. 총 추적 기간은 남성이 89,052.5년, 여성이 11,856.2년이며, 그중 709명(남성 614명, 여성 95명)의 감염자에서 암이 발생했다. HIV 감염자와 일반인구 집단을 비교했을 때, 전체 암 발생률은 HIV 감염 남성에서 2.53배, 여성에서 1.92배 증가했다($P < 0.001$). 남성은 AIDS 정의 암인 카포시육종($SIR=627.7[n=46]$), 비호지킨림프종($SIR=31.17[n=178]$)과 AIDS 비정의 암인 뇌종양($SIR=3.24[n=9]$), 호지킨림프종($SIR=25.43[n=14]$), 간/담관/췌장암($SIR=1.52[n=63]$), 폐암($SIR=1.65[n=44]$), 구강암($SIR=2.66[n=15]$), 전립선암($SIR=2.96[n=25]$), 항문암($SIR=111.0[n=28]$)에서, 여성은 AIDS 정의 암인 자궁경부암($SIR=6.25[n=13]$), 비호지킨림프종($SIR=22.92[n=1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추적 기간에 국내 HIV 감염자는 남성의 8.4%, 여성의 10.2%에서 암이 발생하였다. 남성 HIV 감염자를 65세를 기준으로 두 연령군으로 나누었을 때, 15~64세 HIV 감염자의 전체 암 발생률은 일반인구 집단보다 2.95배 증가했다. 결론: HIV 감염자를 일반인구 집단과 비교했을 때, HIV 감염자에서 암 발생에 증가한 표준화 발생비가 관찰되었다. HIV는 산정특례제도가 있어 확진된 감염자의 전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HIV 감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암 발생, 유병 및 예후를 포함한 질병 부담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해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55]

- 국문 제목 :

코로나19 중증 악화 위험요인이 코로나19 염려, 정신건강, 의료이용행태 및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 흡연, 고혈압, 당뇨병을 중심으로

- 영문 제목 :

The Effect of Risk Factors for Severe COVID-19 on COVID-19 Concerns, Mental Health, Health Care Utilization and COVID-19 Preventive Behavior: Focusing on Smoking,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 저 자 :

강민정¹⁾, 이경수²⁾

- 소 속 :

1)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배경: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 발생한 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모든 국가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소강과 유행을 반복하며 장기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우울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은 코로나19 감염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병원 방문을 감소시켜 미충족 의료가 증가하였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와 정신건강, 의료이용행태, 예방행위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악화 확률이 높아 걱정과 불안이 특히 높을 수 있는 고위험군(고령자, 만성질환자,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중증 악화 위험 요인에 해당되는 질환 특성을 지닌 성인의 코로나19 염려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중증 악화 위험요인이 코로나19 염려, 정신건강, 의료이용행태 및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24,461명을 분석하였다. 질환(흡연,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성인의 코로나19 염려(감염 염려, 죽음 염려, 주위비난 염려, 건강취약자 염려, 경제적 피해 염려)를 확인하고 정신건강(스트레스, 우울), 의료이용행태(미충족의료) 및 코로나19 예방행위(방역수칙 실천, 거리두기 실천, 손 씻기 실천)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코로나19 염려 특성(ref.미염려)과 질환 특성(ref.질환 미보유)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인지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염려하는 경우(OR 1.322, $p<0.001$),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OR 1.614, $p=0.042$) 유의하게 높았다. 우울감 경험률은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OR 1.760, $p<0.001$) 유의하게 높았다. 방역수칙 실천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을 염려하는 경우(OR 1.498, $p<0.00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염려하는 경우(OR 1.239, $p=0.014$) 유의하게 높았다. 거리두기 실천율은 코로나19 감염을 염려하는 경우(OR 1.261, $p<0.001$),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죽음을 염려하는 경우(OR 1.436, $p<0.00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염려하는 경우(OR 1.207, $p<0.001$) 유의하게 높았다. 손 씻기 실천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을 염려하는 경우(OR 1.357, $p<0.001$),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죽음을 염려하는 경우(OR 1.277, $p<0.001$) 유의하게 높았다. 코로나19 예방행위에서 질환 특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및 결론: 코로나19 중증 악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염려와 정신건강, 의료이용행태에서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었다면, 코로나19 예방행위에서는 질환 특성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염병 발생 시 특히 취약한 집단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의료이용 등과 관련된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56]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제조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

- 영문 제목 :

Cases of Community Infection due to the Occurrence of COVID-19 Confirmed Cases in the Manufacturer

- 저 자 :

최동권, 권호장, 임지애

- 소 속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 초록 내용 :

Chungcheongnam-do announced that as of 00:00 on September 26, 2021, 871 people were confirmed in Dangjin city out of 8,961 confirmed cases of Covid-19 in Chungcheongnam-do. In particular, there were 714 patients in 2021, an increase of 82% compared to 2020. Of these, 480 have been confirmed since July, accounting for 67.2% of all confirmed cases in 2021, and the fourth epidemic in Dangjin started spreading through foreign groups in early July. Therefore, we would like to share the part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epidemiology of 49 confirmed cases related to manufacturer A, which occurred in early July.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suggest the importance and implications of the exposure risk level and management plan fo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 workplaces and human resources office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57]

- 국문 제목 :

충남 코로나19 확진자의 재원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생존 분석

- 영문 제목 :

Factors associated with the Length of Hospital Stay(LoS) of COVID-19 Patients i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Using Survival Analyses

- 저 자 :

서정은, 임지애, 강기석, 최동권, 정승희, 한대희, 이상욱, 최현준, 김진아, 권호장

- 소 속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 초록 내용 :

배경 및 목적: 2021년 7월 4차 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병상 배정을 비롯한 의료자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 코로나19 확진자의 특성에 따라 재원 기간(또는 퇴원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의 재원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2020년 2월 21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총 13개월) 내 충남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관내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과 충청남도 코로나19 확진자 관리현황 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종속변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의 재원 기간이었다. 재원 기간에 따른 두 집단의 생존율을 추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생존함수 분석 및 로그 검정(Log-rank test)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비례위험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결과: 충남 코로나19 확진자 총 1,576명 중 퇴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우측 절단된 대상은 25명이었다. 전체 확진자의 연령 평균(중앙값)은 47세(49세)였으며, 유증상자와 기저질환자는 각각 57%, 37%였다. 재원 기간 평균(중앙값)은 17일(14일)이었으며, 14일 이상인 입원자는 57%(898명)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행태 변수를 보정하여 Cox 비례위험회귀분석 결과, 재원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서는 감염경로(HR=1.31, 95% CI: 1.03-1.66; ref.=지역사회 발생), 증상 중 발열(HR=0.82, 95% CI: 0.73-0.93; ref.=없음), 기침(HR=0.88, 95% CI: 0.78-0.99; ref.=없음), 후각 소실(HR=1.50, 95% CI: 1.11, 2.02; ref.=없음), 기저질환 중 악성 신생물(암)(HR=1.53, 95% CI: 1.02-2.30; ref.=없음), 신경계 질환(HR=0.56, 95% CI: 0.42-0.75; ref.=없음),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HR=2.08, 95% CI: 1.03-4.18; ref.=없음)이었다.

결론: 해외 유입 확진자일수록, 발열, 기침, 후각 소실 증상을 가질수록, 기저질환 유형 중 악성 신생물(암), 신경계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있는 확진자일수록 재원 기간이 길어질 위험률이 높았다. 본 연구는 재원 기간을 단축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의료체계 운영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로서의 그 의의가 있으며, 재원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에 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이해상충여부 :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과제(과제번호 2018-P3301-01)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58]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항색포도알균 및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역학조사 집단발생 사례분석

- 영문 제목 :

S. aureus and EPEC Case analysis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 outbreak occurrence

- 저 자 :

정승희, 강기석, 권호장, 임지애

- 소 속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 초록 내용 :

Waterborne and food-borne infectious diseases such as diarrhea, should be prevented from spreading through prevention and early recognition, prompt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response. Seek and share preventive management measures through outbreaks of waterborne and foodborne infectious diseases at military units in Chungcheongnam-do, 2021. On-sit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at the public health center,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were collected using a mobile survey sheet provided by CNCIDC. In addition, general characteristics, clinical symptoms, epidemic curves, and food intake were analyzed using the program developed by CNCID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cidence of cases was 14.3 % and the incidence of patients was 2.1 % (47 out of 329 exposed). The main clinical symptoms, in this case, were diarrhea cases 47 (100%), abdominal pain 26 cases (55.3%), nausea cases 10 (21.3%), vomiting cases 2 (21.3%), others cases 2 (4.3%), and 1 case of chills (2.1%) [multiple responses]. The result of food intak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meaningful menu or drinking water, and that people with symptoms occurred after eating hamburgers and chicken. According to laboratory tests, seven of the patients with symptoms and two cooks at hamburger companies were found to have S.aureus and EPEC. The patient's symptoms were consistent with the incubation period of the pathogen, and the clinical symptoms were vomiting, diarrhea, so they were consistent with symptoms of the pathogen. Therefore, the pathogens were confirmed S. aureus and EPEC, which were presumed to be contagious by the cooks of hamburger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59]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위내시경 검진의 위암 진단당시 병기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영문 제목 :

Effect of endoscopy screening on stage at gastric cancer diagnosis: results of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me in Korea

- 저 자 :

이경민¹⁾, LuuXuanQuy¹⁾, 전재관¹⁾²⁾, 서민아²⁾, 정규원²⁾, 최귀선¹⁾²⁾

- 소 속 :

1)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2) 국가암관리사업본부

- 초록 내용 :

Background: Since 2002, the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KNCSPP) has provided gastric cancer screening to reduce a burden of gastric cancer.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KNCSPP by comparing differences in stage at diagnosis of gastric cancer according to the screening history and screening methods. Methods: Using linkage data from the Korean Central Registry and the KNCSPP, we included 56,673 patients older than 41 years who were newly diagnosed with gastric cancer between 2016 and 2017. According to gastric cancer screening history, we conducted 1:1 matching by age group, sex and socioeconomic status to avoid potential confounders. Results: In comparison to never-screened patients, the odds of being diagnosed with localized gastric cancer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endoscopy screened patients (OR: 3.22; 95% CI: 2.90-3.58) and UGIS-screened patients (OR: 1.52; 95% CI: 2.90-3.58). The OR for being diagnosed with localized gastric cancer were highest among those who underwent gastric cancer screening three times or more (OR 3.94; 95% CI 3.56-4.36). Conclusion: Ever screened patient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have early stage gastric cancer than never screened patients. By gastric cancer screening methods, more localized gastric cancers were found by endoscopic screening than screening by UGI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메타분석을 이용한 유방암과 그에 따른 생식요인들의 연관성 연구

- 영문 제목 :

Reproductive factors and breast cancer risks in Korean Cohort Consortium: A meta-analysis

- 저 자 :

홍유진¹⁾²⁾³⁾, 성소슬¹⁾²⁾⁴⁾, 고광필⁵⁾, 김인아⁶⁾, 이정은⁷⁾, 지선하⁸⁾, 권순석⁹⁾, 박상민¹⁰⁾, 류성호¹¹⁾, 양선영¹²⁾, 김정선¹³⁾, 이상욱¹⁴⁾, 박수경¹⁾²⁾³⁾

- 소 속 :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3) 서울대학교 의학과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4) 서울대학교 의과학과, 5) 분당서울대학교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
6)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7)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8)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9)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11)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12)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13) 국립암센터 암역학예방연구부,
14)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It is well known that breast cancer (BC) is a main risk for women and its association between reproductive and exogenous hormone factors have already undergone many progres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d the BC and related reproductive factors in Korean Cohort Consortium (KCC) by using meta-analysis. Methods: We designed a protocol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BC and reproductive factors and individual studies published until August,31,2020 were selected by eligibility criteria and searching strategy. The available data analysis for the additional Korean data were analyzed by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or logistic regression. Summary relative risks were estimated by random effect model. Subgroup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study design. Results: Earlier menarche age (≤ 14 years), later menopause age (≥ 53 years), nulliparous women, lower parity (1 time), later age at first childbirths (≥ 30 years), never breastfeeding, ever-used oral contraceptive and hormone replacement therapy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BC (summary RR: 1.39, 1.36, 1.28, 2.11, 1.42, 1.42, 1.10 and 1.50). For ever-used oral contraceptive, the association had opposite direction in cohort studies (summary RR: 0.91). Conclusion: Even though this study suggests that reprodu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BC in Korean population have similar trend with previous studies, but this will be a meaningful study that can provide significant diagnostic evidence for Korean women.

- 이해상충여부 :

The researcher claims no conflicts of interest

- Acknowledgement :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Korean Foundation for Cancer Research. (Grant Number. CB-2017-A-2) and a grant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021).



- 국문 제목 :

한국형 관상동맥 위험도와 인지기능 사이의 관계

- 영문 제목 :

Associations between Korean coronary heart disease risk score and cognitive function in dementia-free Korean elderly

- 저 자 :

문한빛¹⁾, 김희진²⁾, 심재용³⁾, 강희철³⁾

- 소 속 :

1)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3) 연세대학교 의학과 가정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Dementia is the greatest health challenge in the world. Given the lack of optimal treatments for dementia, Identifying modifiable risk is very crucial.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at high cardiovascular risk burden assessed by Korean coronary heart disease risk score(KRS) was associated with cognitive decline in dementia-free Korean elderly. Methods) Study sample were comprised of 5,633 dementia-free Korean elderly who participated in the biennial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medical examination. Cardiovascular risk burden is assessed by KRS. KRS was categorized into tertiles(Lowest, Intermediate, Highest). Cognitive function was assessed by KDSQ-C.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stimate β -coefficient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the associations between cardiovascular risk burden and cognitive function. Weight, height, stroke, heart disease, dyslipidemia history,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engagement were adjusted. Results) Compared with the lowest tertile of KRS in women, the intermediate tertile in women was associated with cognitive decline ($\beta = 1.399$ 95% CI 1.111 to 1.761). Compared with the lowest tertile of KRS in all subjects, the intermediate tertile in all participants was associated with cognitive decline ($\beta = 1.277$ 95% CI 1.075 to 1.517). Conclusion) The high cardiovascular risk burden had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cognitive decline than low cardiovascular risk group. Korean coronary risk prediction model may serve as a diagnostic tool to identify high-risk dementia groups. This study highlight the need to control cardiovascular risk factors to prevent dementia.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중년 성인의 당뇨 위험 예측 모델: 지역사회기반 코호트

- 영문 제목 :

A model for predicting diabetes in middle-aged adults: Findings from a community-based prospective cohort study in Korea

- 저 자 :

이혜아¹⁾, 박혜숙²⁾³⁾

- 소 속 :

1)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임상시험센터, 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이화여자대학교 시스템헬스융합전공

- 초록 내용 :

Objective: Using community-based cohort data from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we developed and validated a diabetes prediction model for the middle-aged general population. Methods: Data from 7,727 diabetes-free subjects aged 40-69 years were divided 7:3 into derivation (n=5,409) and validation (n=2,318) cohorts for model validation. Using the derivation cohort, for candidate predictors, a prediction model was built using a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with stepwise selection. Discrimination and calibration were assessed for model performance. The model performance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Framingham model for diabetes, which consists of parental history of diabetes, body mass index (BMI), hypertension, and levels of fasting blood glucose, triglycerides,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 chart of the 8-year risk of developing diabetes is also presented. Results: Over 8 years, 8.5% and 7.8% of subjects developed diabetes in the derivation and validation cohorts, respectively. The significant predictors selected were hemoglobin A1c level, BMI, hypertension, triglyceride level, and current smoking. The area under the curve (AUC) of the new prediction model was 0.80 (95% CI 0.78-0.82) in the derivation cohort and 0.79 (95% CI 0.76-0.83) in the validation cohort, differing from the Framingham model (derivation cohort, AUC 0.71, 95% CI 0.68-0.74; validation cohort, AUC 0.71, 95% CI 0.66-0.75). The calibration of the new prediction model, but not the Framingham model, was also satisfied. Conclusions: Compared with the Framingham model, the new prediction model for diabetes selected the hemoglobin A1c level and smoking as significant predictors and exhibited better performance.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o. 2021R1A2C1003176). It had no role in the design, analysis or writing of this article.



- 국문 제목 :

고혈압에 대한 복부 지방 혈증 지수와 중성지방-포도당 지수의 상호 작용

- 영문 제목 :

Association of the abdominal adiposity indexe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triglyceride-glucose index on hypertension: The Cardiovascular and Metabolic Diseases Etiology Research Center (CMERC) cohort

- 저 자 :

Naharin Sultana Anni, 김현창

- 소 속 :

연세대학교 보건학과

- 초록 내용 :

Background: Our study aimed to elucidate the association of the abdominal adiposity indexe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triglyceride-glucose (TyG) index on hypertension in the middle-aged Korean population. Methods: This study used the baseline data of the Cardiovascular and Metabolic Diseases Etiology Research Center (CMERC) cohort.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CT) scan results were used to quantify three adiposity indexes: visceral fat area (VFA), subcutaneous fat area (SFA), and the visceral-to-subcutaneous fat ratio (VSR). TyG index had calculated using the standard equation.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adiposity indexes and hypertension, we us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The additive interaction effects were measure by the relative excess risk of interaction (RERI) as well as interactions on a multiplicative scale between each adiposity index and TyG index. Results: Higher VFA, VSR levels have a relatively higher prevalence of hypertension in men and women (p for trend was <0.01). There were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VFA and TyG index on the multiplicative scale in men ($p = 0.030$). In addition, the combined measures of the high VFA and TyG index, as well as the high VSR and TyG showed an additive interaction in men ($RERI = 0.56$, 95% confidence interval (CI) = $0.44 ? 0.68$ for VFA), and ($RERI = 1.51$, 95% CI = $0.60 ? 2.44$ for VSR), but not in women. Conclusion: We observed additive and multiplicative interactions between the TyG index and VFA, and VSR on hypertension prevalence in me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early prevention of hypertension through lowering the visceral fat, serum triglyceride, and blood glucose level.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64]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한국 성인에서 심방 세동과 사망률의 연관성: 동구 코호트 연구

- 영문 제목 :

Association between atrial fibrillation and mortality in Korean adults: The Dong-gu Study.

- 저 자 :

양정호¹⁾, 정지안¹⁾, 권순석¹⁾, 이용훈²⁾, 최성우³⁾, 류소연³⁾, 남해성⁴⁾, 박경수⁵⁾, 김혜연⁶⁾, 신민호¹⁾

- 소 속 :

1) 전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2)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3) 조선대학교 예방의학교실,
4) 충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5) 목포중앙병원 심뇌혈관센터, 6) 전남대학교병원 심뇌혈관센터

- 초록 내용 :

Introduction: Atrial fibrillation (AF)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mortality from heart failure and stroke. In this study, the association was investigated between AF and risks and incidence of all-cause and cause-specific death in Korean adults. Method: This study included a total of 9,030 subjects from the Dong-gu Study. The deaths were confirmed by December 31, 2019, through the data link with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F was confirmed with medical history and electrocardiogram.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was used to assess the association between AF and all-cause mortality. Cause specific hazard model and subdistribution hazard model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AF and stroke, heart disease, cancer, and other cause specific mortality. Results: During a follow-up of 10.2 ± 2.3 years, 1,390 participants died. The prevalence of AF was 1.9%. AF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hazard ratio (HR) 2.96 [95% CI 1.32-2.22]). AF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stroke mortality (Subdistribution hazard ratio (SHR) 3.77 [95% CI 1.94-7.33]) and heart disease mortality (SHR 4.14 [95% CI 2.35-7.30]). However, AF was not associated with the risk of death from cancer and other cause. Conclusions: Considering competing risk and potential confounder, AF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ll-cause mortality and the risk and incidence of death from stroke and heart disease.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한국 성인의 허리둘레-신장 비와 뇌졸중 발병위험 간의 연관성: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활용한 코호트 연구

- 영문 제목 :

Association between waist-to-height ratio and incident stroke in Korean adults aged 40-69 years: a cohort study in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 저 자 :

김민경, 이해경, 권문진, 박재경

- 소 속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뇌질환연구과

- 초록 내용 :

Objective: There is paucity of data on the association between waist-to-height ratio (WHtR) and stroke in Korean population. We aim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of WHtR with incident stroke in Korean adults. Methods: We conducted a longitudinal study using data from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Ansan and Ansung study. A total of 8,625 participants were included in this analysis. The WHtR was divided into 2 categories as 'no risk' (<0.5) and 'high risk' (≥ 0.5). The other anthropometric indices were defined as based 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criteria. A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was performed to calculate the adjusted hazard ratios (HR)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 for the risk of stroke according to WHtR and other anthropometric indices. Results: During follow-up period (mean 13.1 years, median 15.6 years), a total of 448 cases of incident stroke occurred. After adjusting for multiple confounding variables, abdominal measurements showed positive associations, and especially WHtR was strongly related with incident stroke (WHtR, HR: 1.47, 95% CI: 1.17-1.84). No association between WHtR and stroke risk was affected by various demographic and lifestyle factors (p for interaction > 0.05). Among participants with general overweight or obesity (body mass index ≥ 23 kg/m²), higher WHtR has an increased risk of incident stroke compared with lower WHtR. Conclusion: We observed that higher WHtR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strok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tR can be considered as a good and simple indicator of identifying high-risk populations for stroke and of evaluating stroke risk.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study was funded by Research of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NI-025-01).



- 국문 제목 :

잠재적 계층분석을 활용한 청소년기 생활습관 유형화와 대사증후군 점수에 대한 연관성 분석 : 이화 출생코호트 기반

- 영문 제목 :

Identification and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ce health related behaviors type and metabolic syndrome scores using Latent Class Analysis: the Ewha Birth and Growth Study

- 저 자 :

김의정¹⁾²⁾, 박현진¹⁾²⁾, 최은정²⁾, 이혜아³⁾, 박보미⁴⁾, 김혜순⁵⁾, 홍영선⁶⁾, 정승연¹⁾⁷⁾, 박혜숙¹⁾²⁾

- 소 속 :

1) 이화여자대학교 시스템헬스융합전공, 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임상시험센터, 4)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6)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7) 이화여자대학교 산산업대학 식품영양학과

- 초록 내용 :

[연구배경] 청소년기는 주도적으로 건강관련 습관을 확립하는 시기이며 성인기로의 이행시기로서 성인기 심혈관질환의 이행에 중요한 관련이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신체활동과 식생활이 대사증후군 유병확률에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생활습관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화 영아 성장 출생 코호트에서 추적관찰된 만 13-15세의 청소년 대상자 총 249명의 생활습관 유형에 대한 잠재적 집단 유형을 확인하고, 각 생활습관 유형별 집단이 대사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생활습관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신체활동, 식이, 식습관 관련 요인에 대하여 잠재적 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도출된 각 생활습관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유형이 염증지표, 대사증후군 점수(cMet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AS 9.4(SAS Institutes, Cary, NC,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2개의 지표로 구성된 대상자의 생활습관 요인을 바탕으로 잠재적 계층분석을 수행한 결과, 3개의 잠재적 계층유형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요인별 특성에 따라 부정적 생활습관형, 비활동적 생활습관형, 긍정적 생활습관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각 생활습관 유형에 따라 대사증후군 점수(cMetS, Continuous metabolic syndrome score)의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부정적 생활습관 유형은 긍정적 생활습관 유형에 비해 대사증후군 점수에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연령, 성별, 가구 소득수준을 보정하였을 때도 $p < 0.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잠재적 계층분석을 통해 청소년기의 여러 생활습관 특성을 반영한 잠재적 생활습관 유형을 나누고, 긍정적 생활습관 유형에 비해 부정적 생활습관 유형이 대사증후군에 유의한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각 요인에 대한 해당 시기의 적절한 개입 및 중재가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본 초록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NRF-2020R1F1A1062227)



- 국문 제목 :

식이 철, 구리, 아연 섭취와 제 2형 당뇨병 위험의 연관성: 한국인유전체역학연구_농촌코호트

- 영문 제목 :

Prospective associations of dietary iron, copper and zinc intakes with type 2 diabetes risk among adults aged ≥ 40 years :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_the Cardiovascular Disease Association Study (CAVAS)

- 저 자 :

김민지¹⁾²⁾, 우혜원²⁾³⁾, 신민호⁴⁾, 고상백⁵⁾, 김현창⁶⁾, 김유미¹⁾²⁾³⁾, 김미경¹⁾²⁾³⁾

- 소 속 :

1)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보건통계학과, 2) 한양대학교 건강과사회 연구소, 3)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Abnormal metabolism of iron, copper, and zinc may lead to type 2 diabetes (T2D). Unlike iron, there were limited studies on the association of dietary copper and zinc intakes with T2D risk. This study aimed to examine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dietary intakes of iron (total, vegetable, and animal iron), copper, and zinc and T2D risk. A total of 16,666 participants aged ≥ 40 years without T2D were included. Dietary intakes of iron, copper, and zinc were calculated from a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FQ) collected in the baseline and revisits. The incidence rate ratios (I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were estimated by the modified Poisson regression model with a robust error estimator. The cumulative average intakes were statistical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T2D risk in animal iron and copper intakes for men but zinc for both men and women (IRR=1.38, 95%CI=1.02-1.85 in the highest quartile compared with the lowest quartile, P-trend=0.0052 for animal iron; IRR=1.70, 95%CI=1.27-2.28, P-trend=<.0001 for copper; IRR=1.52, 95%CI=1.14-2.03, P-trend=0.0013 for zinc in men; IRR=1.71, 95%CI=1.32-2.23, P-trend=<.0001 for zinc in women). Interestingly, using the most recent dietary intake, the associations with T2D risk became stronger, compared with using baseline intake and cumulative average intake, and its association of total and vegetable iron intakes appeared significantly positive even in both men and women. The present study findings indicated that dietary copper and zinc intakes, as well as animal iron, may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isk of T2D, especially the most recent intake before the diagnosis of T2D.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4-E71004-00, 2005-E71011-00, 2006-E71009-00, 2007-E71002-00, 2008-E71004-00, 2009-E71006-00, 2010-E71003-00, 2011-E71002-00, 2012-E71007-00, 2013-E71008-00, 2014-E71006-00, 2014-E71006-01, 2016-E71001-00, 2017N-E71001-00) and was supported by 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SIT) (No. NRF-2020R1A2C1004815).

- 국문 제목 :

한국의 성인 당뇨병 유병자에서 당뇨 유병 기간에 따른 생활 습관과 혈당 조절

- 영문 제목 :

Lifestyle and Glycemic Control According to the Diabetes Duration Among Korean Adults with Diabetes Mellitus

- 저 자 :

김영운¹⁾, 구재욱²⁾, 윤건¹⁾, 이동훈¹⁾, 최형석¹⁾, 이유미²⁾

- 소 속 :

1)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2)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Aims: Although lifestyle modification and anti-diabetic treatment are important factors for glycemic control, the reported level of self-management for glycemic control does not reach the recommendations among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DM). We aimed to evaluate lifestyle and glycemic control according to the DM recognition and duration among Korean adults with DM.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2014 - 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data. A total of 1,698 adults aged 30 - 65 with DM were selected and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DM duration—unrecognized (n=747), <5 years (n=433), and ≥5 years (n=518).

Results: Participants with BMI ≥ 30 kg/m², hypertension, dyslipidemia, and high-risk drinkers were the highest in the unrecognized group, and the level of walking exercise was the lowest in the ≥5 years group. Glycemic control rate (HbA1c <6.5%) was 26.6%, 29.0%, and 13.9% in the unrecognized, <5 years, and ≥5 years group, respectively (p<0.001). In the unrecognized group, glycemic control was associated with high-risk alcohol drinking (OR=2.03, 95% CI=1.11 - 3.70), and high-level physical activity (OR=0.51, 95% CI=0.29 - 0.89). In the <5 years group, control rate was associated with low BMI (<23kg/m², OR=2.69, 95% CI=1.05 - 6.88), anti-diabetic medication (OR=2.55, 95% CI=1.08 - 6.04), and strength exercise (OR=2.01, 95% CI=1.10 - 3.68). In the ≥5 years group, control rate was associated with high-level physical activity (OR=2.01, 95% CI=1.00 - 4.05).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M recognition and duration when planning and providing a self-management program for patients with DM.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69]

- 국문 제목 :

40세 이상 성인에서 DASH 식이 및 그 구성 요소와 고혈압의 전향적 연관성

- 영문 제목 :

Prospective associations of the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DASH) diet and its components with Hypertension in adults aged 40 years and older

- 저 자 :

공지숙¹⁾²⁾, 우혜원¹⁾²⁾, 김유미¹⁾²⁾³⁾, 신민호⁴⁾, 신동훈⁵⁾, 고상백⁶⁾, 김현창⁷⁾, 김미경¹⁾²⁾³⁾

- 소 속 :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양대학교 건강과 사회연구소,
3)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보건통계학과, 4)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계명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6)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A higher score of the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DASH) diet has been associated with lower hypertension in Western populations. However, it was unclear in Asian populations.

Aim: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s of the DASH diet and its components with incidence risk of hypertension in the KoGES_CardioVascular disease Association Study (CAVAS).

Methods: A total of 10,943 participants over 40 years of age who did not have hypertension were enrolled. Cumulative average DASH and its eight components were calculated based on repeated food frequency questionnaires. Using a modified Poisson regression model, we estimated incidence rate ratios (I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for hypertension.

Results: Over 57,252 person-year of follow-up, there were 2,202 incident cases of hypertension. DASH diet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in the multivariable analysis (fourth quartile (Q4) vs. first quartile (Q1): IRR=0.68, 95% CI: 0.56-0.83 in men; 0.84, 0.71-0.995 in women). Among the DASH components, fruits consumption was significantly inversely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in both men and women (IRR=0.57 in men and 0.79 in women and both p-trend <0.05). The favorable associations on dairy products, nuts and soy, and whole grains are more evident in men than women. However, low red meat consumption was rather positively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in both men and women (1.26 in men and 1.21 in women).

Conclusions: A modified DASH may be inversely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risk, but all DASH components may not be beneficial for hypertension risk, depending on dietary cultures of study populations.

- 이해상충여부 :

A modified DASH may be inversely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risk, but all DASH components may not be beneficial for hypertension risk, depending on dietary cultures of study populations.

- Acknowled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4-E71004-00, 2005-E71011-00, 2006-E71009-00, 2007-E71002-00, 2008-E71004-00, 2009-E71006-00, 2010-E71003-00, 2011-E71002-00, 2012-E71007-00, 2013-E71008-00, 2014-E71006-00, 2014-E71006-01, 2016-E71001-00, 2017N-E71001-00) and was supporte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o. NRF-2020R1A2C1004815).



- 국문 제목 :

40세 이상 성인에서 견과류 섭취와 대사증후군 발생의 연관성

- 영문 제목 :

Prospective association of dietary nut consumption and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among adults aged 40 years or older

- 저 자 :

양나래¹⁾²⁾, 김미경¹⁾²⁾, 우혜원¹⁾²⁾, 김유미¹⁾²⁾, 신민호³⁾, 고상백⁴⁾, 김현창⁵⁾

- 소 속 :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양대학교 건강과 사회연구소, 3)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직업의학연구소, 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Purpose: The metabolic syndrome (MetS) has been well known to be associated with increased incidence or mortality of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The prevention of MetS can be efficient strategy to reduce disease burden due to cardiometabolic diseases. Nut consumption may play a preventive role against Met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rospective association between peanut, almond, and fine nut consumption and MetS risk in adults aged ≥ 40 years from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_the Cardiovascular Disease Association Study (KoGES_CAVAS). Methods: A total of 11,390 participants who did not have MetS were included. Cumulative average nut consumption was calculated using repeated food-frequency questionnaires. The incidence rate ratios (I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were estimated by the modified Poisson regression model with a robust error estimator. Results: We observed 2,416 incident cases of MetS over 58,815 person-years of follow-up. The average nut consumption of ≥ 1 serving/week (median=1.8 servings/week [27g/week]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MetS incidence risk in both men and women (IRR=0.74, 95% CI=0.59-0.93, p for trend=0.0098 for men; IRR=0.54, 95% CI=0.44-0.65, p for trend <.0001 for women) compared with the lowest (<1/month). These significantly inverse associations remained, irrespective of strata of covariates (all p-values for interaction > 0.05). Conclusion: The consumption of peanuts, almonds, and/or pine nuts at least 15g per week may be beneficial for the prevention of the incidence of Met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71]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COVID-19 대유행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과 비만율의 계층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2017-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

- 영문 제목 :

Effect of COVID-19 Pandemic on the Gap Between Moderate and Higher Physical Activity Rates and Obesity Rates

- 저 자 :

한지원

- 소 속 :

중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연구제목 COVID-19 대유행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과 비만율의 계층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2017-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 연구배경 covid-19대유행으로 인해 일상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신체활동이 줄고 비만율은 증가했을 것이다.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년대 비 4.9%p 감소했고 비만율(자가보고)은 3년전 대비 2.7%p증가 했다. covid-19대유행으로 인한 신체활동율 감소와 비만율의 증가는 일반인구집단에서 계층간 지역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 및 방법 2017,2018,2019,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한 연도별 추이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시행. 각 연도별 약 23만명.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자가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 시행.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과 비만율 (자가보고)의 계층간 차이를 보기 위해 경사 불평등지수(Slope index of inequality), 상대 불평등 지수(Relative index of inequality)를 계산함. 결과 분석중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72]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중년층 한국인의 앉아있는 시간, 신체활동, 그리고 HOMA-IR

- 영문 제목 :

Sitting time, Physical activity, and HOMA-IR in middle-aged Korean

- 저 자 :

송모세, 김현창 (교신저자)

- 소 속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 초록 내용 :

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dependent and joint effects of sitting and physical activity on insulin resistance in healthy middle-aged Korean adults.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included 7,648 participants aged 30 to 64 years from the Cardiovascular and Metabolic Diseases Etiology Research Center study baseline enrollment (December 2013 to February 2018). Both sitting time and physical activity time were measured using a Korean version of the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hort form, and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IR) was calculated with plasma fasting glucose and fasting insulin which were measured with venous puncture.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d multiple logistic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estimate the association between sitting time and physical activity on HOMA-IR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Result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of sitting time as continuous variable with HOMA-IR (β , p-value = 0.002, $\langle .0001$) after full-adjusted model, and physical activity time was also associated with HOMA-IR, continuously (β , p-value = -0.007, $\langle .0001$). About joint effects with sitting time and physical activity time on HOMA-IR, high sitting time (≥ 49 h/week) was more likely to have risk of insulin resistance compared with low sitting time (≤ 25 h/week) within insufficiently active or inactive group in physical activity (OR, 95% confidence interval = 1.28, [1.07-1.54]). But there seemed not appear the interactions between sitting time and physical activity time on HOMA-IR (p for interaction in PA model = 0.975, p for interaction in MVPA model = 0.853).

Conclus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both sitting time (ST) and physical activity (PA) are associated with insulin resistance, independently. Therefore, sitting time is not the same as physical inactivity (SI), and both are important factors for human health.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모낭성 편평태선의 발생률 및 동반질환

- 영문 제목 :

Incidence and Comorbid Disease of Lichen Planopilaris: A Korean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 저 자 :

임성하¹⁾, 이슬암¹⁾²⁾

- 소 속 :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Lichen planopilaris (LPP) is cicatricial alopecia characterized by perifollicular erythema, follicular hyperkeratosis, and permanent hair loss. Along with other cicatricial alopecic diseases, LPP causes irreversible hair follicle destruction leading to permanent hair loss with scar formation and is believed to be initiated by autoimmune responses. Although several literatures have reported prevalence and associated risk factors in LPP patients, there are limited epidemiologic data on Asian patients. Methods: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The patients newly diagnosed as LPP with at least 3 documented visits to a dermatologist with an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revision) code of L661 from 2002 to 2019 were included. 1:20 age-, sex-, insurance type-, and income-, matched controls without documented diagnosis of LPP were selected. Results: A total of 2,992 patients with LPP and 59,840 matched controls were included. There was slight female predominance with bimodal distribution with age. The incidence tends to increase over the year. The associated comorbid disease of LPP was connective tissue disease (odd ratio [OR], 1.36; 95% confidence interval [CI], 1.06 ? 1.75), hypothyroidism (OR, 1.51; 95% CI, 1.25 ? 1.82) and thyroiditis (OR, 1.32; 95% CI 1.01 ? 1.73), vitamin D deficiency (OR, 2.84; 95% CI 1.78 ? 4.55), psoriasis (OR, 2.69; 95% CI 1.83 ? 3.95), and rosacea (OR, 2.86; 95% CI, 1.00 ? 8.17). Conclusion: Our study demonstrates that patients with LPP is increasing. As it is associated various comorbid disease, it should have more attention for diagnosis and management.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한국 노인의 구강불편감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

- 영문 제목 :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Oral Discomfort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South Korean Elderly Population

- 저 자 :

도경이¹⁾, 문숙²⁾

- 소 속 :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 초록 내용 :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discomfort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in the Korean elderly using the datasets provided by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HNANES) over 6 consecutive years (2010-2015). A total of 13,618 participants aged 65 years and over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A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oral discomfort on HRQOL. The results revealed that toothache, masticatory discomfort, and pronunciation problems caused by oral health conditions were all risk factors for decreased HRQOL. In particular, masticatory discomfort (AOR 1.63, Model III [adjusted for all covariates]) and pronunciation problems (AOR 1.64, Model III) negatively impacted the HRQOL of the elderly to a great extent. Masticatory discomfort had a stronger negative impact on HRQOL in the domains of “self-care” (AOR 1.83) and “usual activities” (AOR 1.66), while pronunciation problems had a similar impact on all five domains of the EuroQol 5-Dimension (EQ-5D). These findings could serve as baseline data for setting up early intervention programs for timely prevention of oral health-related discomfort problems that greatly affect the QOL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for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and efficient dental insurance policie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75]

- 국문 제목 :

초음파, MRI-PDFF, CNS로 진단된 NAFLD와 저근육량과의 연관성

- 영문 제목 :

Association between low muscle mass and NAFLD diagnosed by US, MRIPDFF, and CNS

- 저 자 :

이현주¹⁾, 장재승²⁾, 안지현³⁾, 김문영⁴⁾, 박규상²⁾, 안연순¹⁾, 고상백¹⁾

- 소 속 :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생리학교실,
3)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4)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초록 내용 :

Objectives: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is an increasingly prevalent metabolic disease. Muscle is known to influence NAFLD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muscle mass, NAFLD, and hepatic fibrosis using various definitions of low muscle mass and NAFLD diagnostic methods, includ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based proton density fat fraction (MRI-PDFF).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included 320 participants (107 males, 213 females) from the KoGES-ARIRANG cohort. Muscle mass was assessed using whole-body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and adjusted by the height squared, body weight, and BMI. NAFLD was diagnosed using ultrasonography (US), MRI-PDFF, and the comprehensive NAFLD score (CNS). Hepatic fibrosis was assessed using magnetic resonance elastography. Multivariable logistic and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aforementioned association. Results: According to US, 183 participants (57.2%) had NAFLD. Muscle mass adjusted by body weight was associated with NAFLD diagnosed using US (odds ratio [OR], 3.00; 95% confidence interval [CI], 1.70-5.31), MRI-PDFF (OR, 2.00; 95% CI, 1.13-3.53), and CNS (OR, 3.39; 95% CI, 1.73-6.65) and hepatic fibrosis (males: β , -0.070; P < 0.01; females: β , -0.037; P < 0.04). Muscle mass adjusted by BMI was associated with NAFLD diagnosed by US (OR, 1.71; 95% CI, 1.02-2.86) and CNS (OR, 1.95; 95% CI, 1.04-3.65), whereas that adjusted by height was not associated with NAFLD. Conclusions: Low muscle mass was associated with NAFLD and liver fibrosis, so maintaining a sufficient muscle mass is important to prevent NAFLD. A prospective study and additional consideration of muscle quality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association.

- 이해상충여부 :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associated with the material presented in this paper.

- Acknowled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o.2017R1A5A2015369)



- 국문 제목 :

우울증상의 아형에 따른 저밀도지방단백질의 이질적 연관성

- 영문 제목 :

Heterogeneous association patterns of depressive subfactors in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저 자 :

이유진¹⁾, 정선재²⁾

- 소 속 :

1) 연세대학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Previous literature suggested that depression severity correlates positively with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evels. However, the heterogeneity of depressive symptoms in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is poorly understood. This study examines the heterogeneous association between subfac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Methods** The cross-sectional study utilized the data of 16,628 participants aged 19 and older taken from the 2014, 2016 and 2018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and analyzed. Subfactors of depressive symptoms were identified utilizing factor analyses that yielded two subfactors. Multivariable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the association between each factor and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Results** Our study found that when depression symptoms were divided into two factors utilizing factor analysis, factor2 was associated with lower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hile factor1 tended to be associated positively with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hese heterogeneous patterns of subfactors significantly existed especially in men (vs. women) and middle-aged people (vs. younger or older),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concerning depressive symptoms of the factor1 for those groups (men; factor1: $\beta = 0.54$; factor2: $\beta = -1.08$, middle-aged; factor1: $\beta = 0.61$; factor2: $\beta = -1.42$). **Conclusions** Given this heterogeneity of depressive symptoms, each depressive subfactors was differently associated with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ccording to sex and age, respectively. **Keywords:** depressive symptoms;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actor analysi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초록 등재번호 : [P-077]

- 국문 제목 :

경제적 어려움의 변화와 우울의 연관성: 종교의 완충효과 확인

- 영문 제목 :

The effect of changes in financial hardship on depression: the buffering effects of religion

- 저 자 :

최민재¹⁾, 이요한¹⁾²⁾, 이은혜¹⁾, Joshua Kirabo Sempungu²⁾

- 소 속 :

1)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2)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목적: 경제적 어려움의 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종교유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의 변화가 우울의 연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 5차-14차(2010-2019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단위는 관측치로 총 99,589 건이다. 결과변수는 우울감(CES-D 11)으로 16 점 이상일 경우 우울감이 있다고 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이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난 1년간 주거, 건강, 신용, 생활환경 및 식습관 항목과 같은 사항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어려움이 있는 경우 1점으로 하여 각 문항별로 합산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의 변화는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을 '낮음', '중간', '높음' 으로 구분하여 두 연도 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반복측정 자료임 고려하여 일반적 선형모형을 사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의 변화와 우울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종교유무에 따라 연관성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연구대상자 중 우울감이 있는 대상자는 99,589건으로 전체 관찰 값의 14.81%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악화 또는 유지된 경우 우울감이 높았다. (Low)High: 44.44%, (Middle)High: 46.75%, (High) High: 49.16%). 경제적 어려움의 변화와 우울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과거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군으로 이동할 경우 우울과의 연관성의 강도가 컸다 (Low)High: OR(95%CI):3.88(3.07-4.91); (Middle)High: 3.46(2.87-4.17)). 또한 경제적 어려움 상태가 높은 수준에 지속된 경우도 OR 값의 크기가 컸다 (High)High: 3.30(2.63-4.13)).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이 감소한 경우에는 OR 값이 유의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낮게 지속된 그룹과 차이가 없었다 (High) Low: 1.16(0.90-1.49)). 종교유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의 변화와 우울감의 연관성을 비교한 결과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경제적 변화와 우울과의 연관성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다 (예시: 종교가 있는 경우 Low)High: 3.21(2.29-4.59), 종교가 없는 경우 Low)High: 4.65(3.32-6.52). 결론: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악화될수록 우울과의 연관성이 큰 것을 확인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되었을 경우에는 우울감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신보건 예방을 위해 복지 및 경제적 지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고령자 손상의 추세 및 역학적 특성

- 영문 제목 :

Trends and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Elderly Injuries in Korea

- 저 자 :

박현진¹⁾²⁾, 김의정¹⁾²⁾, 최은정²⁾, 전승희¹⁾²⁾, 이원경³⁾, 박주옥⁴⁾, 박혜숙¹⁾²⁾

- 소 속 :

1) 이화여자대학교 시스템헬스융합전공, 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예방관리과, 4)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 초록 내용 :

[연구배경]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전체 인구의 15%로, 고령층은 신체적, 인지적 등 저하로 인한 질병들의 취약함이 나타나며, 손상에서는 더욱 심각한 발생양상을 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층의 손상 추이와 주요 기전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2005년-2019년)와 질병관리청 퇴원손상심층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05년-2017년)를 이용하여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과 입원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프로그램 SAS 9.4(SAS Institutes, Cary, NC, USA)를 사용하였다. 손상기전별 추이변화는 평균 연간변화율(Average Annual Percentage Change, APC)로 결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층의 손상 사망률은 고령층 감소 추세인(2005년 인구 10만 명당 248.1명, 2019년 인구 10만 명당 147.8명) 반면 손상 입원율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2005년에 비해 약 1.4배 증가하였다(2005년 인구 10만 명당 3,642명, 2017년 인구 10만 명당 5,233명). 전반적인 손상 사망률은 감소하였으나, 손상 전체 사망에서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41.8%로 2005년(33.7%)에 비해 늘어났다. 입원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세부적으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전을 보면, 보행자 및 자전거, 열차나 전차로부터의 운수사고, 동일면 및 침대에서의 낙상, 목욕통에서의 익사, 흡서 및 흡한으로 인한 자연재해, 살충제로 인한 자살이 고령층에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손상의 세부기전에 따라 연간변화율을 보면, 운수사고 사망률은 감소하나 입원율은 증가하며, 특히 자전거 입원사고가 증가한다. 낙상의 사망과 입원은 모두 증가하며, 침대에서의 낙상 사망률 및 입원율의 연간변화율이 증가 패턴을 보인다. 자연재난의 사망률은 감소 추세이나, 흡서로 인한 사망은 약간 증가하고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령층의 손상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고령층의 손상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세부기전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고령층의 손상예방을 위해 취약기전에 따른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본 연구는 통계개발원의 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21 수행된 연구임(25213129700).



- 국문 제목 :

우리나라 비육체직과 육체직간 사망불평등: 국민건강영양조사-사망원인통계 연계자료 분석

- 영문 제목 :

Occupational inequalities in mortality in Korea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mortality follow-up data from the late 2000s and after

- 저 자 :

노은정¹⁾, 강영호¹⁾²⁾

- 소 속 :

1)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 초록 내용 :

BACKGROUND Many studies have found higher mortality and poorer health conditions among manual workers than among non-manual workers. However, a recent study using unlinked data (Tanaka et al, 2019) argued that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in the late 2000s, the mortality of male Korean non-manual workers has been higher than that of manual workers. Our work using individually linked data aimed to examine mortality inequality by occupational class. **METHODS** We analyzed cohort data that linked 2007-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with 2007-2018 cause-of-death data. By tracking deaths and causes of death in Korean men aged 35 to 64 (N=11,766), Cox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hazard ratios (HRs) for mortality by occupational class. **RESULTS** Table 1. All-cause mortality by occupational class in Korean men aged 35 to 64 Table 2. Mortality from four causes by occupational class in Korean men aged 35 to 64 **CONCLUSION** - After economic crisis in the late 2000s, the mortality of male Korean manual workers aged 35 to 64 remained higher than that of non-manual workers. We observed no evidence of reversed mortality inequality by occupational class; this previously reported finding might have been due to numerator-denominator bias arising from use of unlinked data. - Our analysis of linked cohort data could help determine whether there is in fact a reversed pattern of occupational inequality in mortality in Korea.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한국 소아청소년에서 혈중요산농도와 체질량지수의 궤도 모형이 간효소 수치에 미치는 영향

- 영문 제목 :

Combined effect of serum uric acid and body mass index trajectories on elevation of liver enzymes in early adolescence group in South Korea

- 저 자 :

이성희¹⁾, 최은정¹⁾, 김의정¹⁾³⁾, 박현진¹⁾³⁾, 이해아²⁾, 박혜숙¹⁾³⁾

- 소 속 :

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이대목동병원 임상시험 센터,
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헬스케어&엔지니어링 학과

- 초록 내용 :

Background: We aimed to determine whether serum uric acid (SUA) and body mass index(BMI) trajectories in childhood have longitudinal association with liver function enzymes in adolescents. Methods: We conducted a prospective cohort study using Ewha Birth and Growth Cohort.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812 boys and girls aged 5 to 12 years between 2008 and 2018. Individual trajectories of SUA and BMI from 5, 7 and 9years were defined by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in 2 distinct patterns (high and low), respectively. Using a general linear model, the effects of SUA trajectory and BMI trajectory on liver function enzymes (AST, ALT and γ -GTP) were assessed. We also assessed the combined effect of SUA trajectory and BMI trajectory on liver function enzymes in early adolescents group aged 11 -12 years. Results: Trajectory of BMI and SUA in childhood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levels of liver enzymes at 11-12years. The combined effect of SUA and BMI trajectories on Liver enzymes has shown lower means in low group (low SUA-low BMI) than in high groups (high SUA ?high BMI) for ALT and γ -GTP, respectively. The combined association for ALT and γ ?GTP remained significant in both the crude and adjusted models (P <0.01). Conclusion: Elevated childhood SUA and BMI trajectories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liver enzymes in beginning of adolescent in South Korea. This finding suggesting that early interventions in SUA and BMI may need for optimization of liver enzymes especially ALT and γ -GTP as potential marker for development of metabolic related disease.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reaserch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ase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a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Future Planning (NRF-2017R1D1A1B03030088)

초록 등재번호 : [P-081]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국민건강영양조사 노인 대상 조사항목 개발

- 영문 제목 :

Development of Functional Assessment Items for Older Adults in the KNHANES

- 저 자 :

김은샘¹⁾, 이윤환¹⁾, 윤지혜¹⁾, 원장원²⁾, 김미지³⁾, 장숙량⁴⁾

- 소 속 :

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3)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4)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

- 초록 내용 :

이 연구는 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적용 가능한 신체기능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국내외 국민건강 조사와 노인 코호트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신체기능 평가에 관한 144개 문항은행을 구축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별한 62개 문항에 대해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진행하여 문항의 이해도를 평가하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문항에 대해 문항반응이론 기반의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25문항을 선별하였고, 최종 선택된 25문항에 대한 본조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50세 이상 연령 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생활기능 측정도구(Life Functioning [LF] scale)를 개발하였다. LF 척도는 기능제한과 장애(사회활동) 영역을 포괄하며 척도를 구성하는 25문항들은 동일한 하나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중고령자의 생활기능 수준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거 및 구성 타당도가 확인되었으며 높은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 = 0.93$)과 조사-재조사 일치도(ICC = 0.84, 95% CI: 0.76, 0.89)를 보였다. 향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을 대상으로 도구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은 물론, 도구의 예측 타당도와 변화에 대한 민감도, 다양한 인구집단에서의 적용 가능성 검토와 단축형 도구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임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청소년 남녀에서의 게임 스트리밍 사용은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 발생의 예측요인인가? : 12개월 추적

- 영문 제목 :

Is the use of game streaming a predictor for incidence of internet gaming disorder in boys and girls?

: 12 months follow-up

- 저 자 :

김경민¹⁾, 정현숙²⁾, 임현우²⁾

- 소 속 :

1)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초록 내용 :

연구배경 : 게임 스트리밍이란 스트리머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들을 시청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시간 방송과 녹화된 방송 다시보기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음. 1위 스트리밍 플랫폼인 Twitch의 세계 기준(2021)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4천만명이며, 한국 기준(2021) Twitch 월간 활성 사용자가 253만명으로 지난 5년간 8배 이상 증가함. 선행 연구들은 주로 게임 스트리밍 사용자의 동기적 요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DSM-5에 기반한 인터넷게임 사용장애의 예측 요인으로서 접근은 시도하지 않았음

연구목적 : 청소년 남녀에서의 게임 스트리밍 사용이 12개월 후 시점의 인터넷게임 사용장애 고위험군 발생의 예측요인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함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 전향적 코호트 연구인 Internet user Cohort for Unbiased Recognition of gaming disorder in Early adolescence (iCURE)에서 등록된 2,319명 중 선정 제외 기준에 부합한 초등학교 3학년생, 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총 1,796명 로 구성
게임 스트리밍 사용 : 자가 보고된 게임 스트리밍(아프리카 TV, 유튜브 등) 평일 평균 사용시간이 0분을 초과한 경우
인터넷게임 사용장애 고위험군 발생 : 12개월 후 시점의 IUESS(Internet Gaming Use-Elicited Symptom Screen)총 점수가 10점 이상 혼란변수 : 나이, 가족형태, 어머니의 교육수준, 기저시점의 인터넷 게임사용 장애 위험, 게임 평일 평균 사용시간, 게임 사용기기 개수, 우울 증상, 특성불안, 공격성 수준

통계분석 : 단변수 및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결과 남학생에서 게임 스트리밍 사용군이 비사용군보다 12개월 뒤 인터넷게임 사용장애 고위험군 발생이 높았음 (aOR: 2.21, 95% CI: 1.27-3.82). 여학생에서 게임 스트리밍 사용군은 비사용군과 12개월 뒤 인터넷게임 사용장애 고위험군 발생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aOR: 0.53, 95% CI: 0.23-1.22).

연구결론 : 남학생에서의 게임 스트리밍 사용은 12개월 뒤의 인터넷게임 사용장애 고위험군 발생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 Dual user(인터넷게임+게임 스트리밍)에 있어서 게임 스트리밍 사용 주의가 필요함. 청소년들의 게임 스트리밍 사용 영향에 영향에 관하여 부모, 보호자, 교육자에게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함.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HL19C0012)



- 국문 제목 :

서울시 집값지수와 우울증의 상관관계

- 영문 제목 :

The Association between the Rise of House Price Growth and the Risk of Severity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istricts in Seoul

- 저 자 :

남희경¹⁾, 강희원²⁾, 강수진²⁾, 전성희¹⁾

- 소 속 :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 초록 내용 :

[Background] House price growth in Korea has been unprecedentedly high. While housing affordability and stability are significan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little is known about the extent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severity of depressive symptoms. This study is to assess the association between house price growth and the risk of severity of depressive symptoms in Seoul by 25 districts. [Method] The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KCHS), which provides representative data for the districts of Korea, was used in this study. The study population is residents in Seoul aged over 19 ((N=22,909). The housing index is measured by the average monthly price of houses when compared to November 2017. Housing price is the average selling price by districts (gu).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PHQ-9) and housing price was assessed using multilevel analyses. [Result]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in Seoul was 3.9%. Over the three years, the housing index rose the most in Mapo (107.35%) and Yongsan (106.92%). Also, housing price was highest in Gangnam (1.5) and Seohco (15.1) billion won. The intraclass coefficient indicated the districts accounted for 10.2% of the variability in the depressive symptoms. The absolute housing price increased the risks of depressive symptoms (OR = 1.07, 95% CI = 1.02, 1.13). [Conclusion] Our findings revealed that those residents living in a district that experience greater house price growth showed an increased risk of depressive symptoms. This suggests that increasing and sustaining housing stability is critical to promot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한국 여성에서의 중증 전자기증의 연령별 위험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

- 영문 제목 :

Age-specific risk of severe preeclampsia: a stud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 저 자 :

김세영¹⁾, 최승아²⁾

- 소 속 :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초록 내용 :

Preeclampsia is a multi-organ disorder that occurs from 2 % to 8 % of pregnancies after 20 weeks' pregnancy. With continuously increasing mother's age, the burden of these conditions is expected to be rising. We analyzed age-specific risks of preeclampsia which is adjusted for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A national data of all women who had undertaken health examination and diagnostic code for pregnancy in 2010-2019 was retrieved from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databa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for preeclampsia was constructed including woman's age, income quartile, employment, disability, region, BMI, presence of glucose intolerance, and dyslipidemia. Restricting to those who had a code for delivery, our final study population was 1,141,527 women. Median age of women was 33 years and majority were nulliparous and employed. Overall incidence of preeclampsia was 2.1%. Incidence was 3.6% in women aged ≥ 45 years and 1.5% in 15-19-year-old group. Adjusted risk of preeclampsia was highest in the oldest group (OR = 1.70, 95% CI: 1.38, 2.08 for 45 years or older) and lowest in under 20 (0.70, 95% CI: 0.37, 1.31) and 25-29-year-old (1.70, 95% CI: 1.38, 2.08) groups. We observed consistently higher risk of preeclampsia in women aged 25 years and older regardless of model specification.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R1D1A1B03933410 and 2018R1D1A1B07048821).

초록 등재번호 : [P-085]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21년 제73차 가을학술대회

- 국문 제목 :

데이터의 공정성: 개념과 지표의 역학적 이해

- 영문 제목 :

Fairness in Data: Epidemiologic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and Metrics

- 저 자 :

김지은, 성주현, 이수지

- 소 속 :

서울대학교

- 초록 내용 :

빅데이터의 시대에 데이터과학은 기계학습방법을 중심으로 기존의 지식에 기반한 모델링방법과는 다른 분석체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실용화되면서 거의 동시에 제기되었으며,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품질의 지표로, 활용의 측면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대아토 우+ 공정성은 아직 개념과 지표가 충분히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데이터공학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공정성을 진단하고 나아가 보정하는 분석방법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데이터와 관련된 공정성의 대표적인 지표를 소개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기존의 역학적인 지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민감도-특이도-양성/음성 예측도 등의 지표나 calibration 등의 지표는 역학에서도 익숙한 개념이며, 반사 실적 지표들도 역시 역학적으로는 널리 활용되어 온 개념이다. 공정성의 개념이 사회적인 형평성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데이터 품질의 관점에서 모든 변수간의 균형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조되는 것은 역학적인 개념과의 차이이다. 또한, 데이터 자체의 교정이 아닌 해당 데이터를 통해 산출되는 알고리즘의 교정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도 역학적인 개념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개념이다.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No.2020-0-00121, 데이터 품질 평가기반 데이터 고도화 및 데이터셋 보정 기술 개발)



- 국문 제목 :

식이섭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만성질환 위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 영문 제목 :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Dietary Consumption and Risk of Chronic Diseases

- 저 자 :

홍지연¹⁾²⁾, 김미경¹⁾²⁾

- 소 속 :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양대학교 지역사회보건연구소

- 초록 내용 :

Greenhouse gases (GHGs) from food production to intake is the main reason for climate change, which can cause the risk of chronic diseases such as cardiovascular diseases (CVD). Despite this, efforts to reduce the amount of GHGs generated by food are still small.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HG emissions from diet and risk of chronic diseases was performed. The original articles of observational studies at least 5-year follow-up, which were published in English until May 2021, were identified by searching PubMed, Ovid-EMBASE, Web of Science, and CINAHL databases. The extracted data were pooled using both fixed and random-effects meta-analysis. Data were described in risk ratio (RR) with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Finally, 8 articles were included for qualitative synthesis and only 7 articles were meta-analyzed. The meta-analysis showed significant result in both fixed-effect model and random-effect model (fixed: RR 95% CI, 1.04 [1.03; 1.05], random: RR 95% CI, 1.05 [1.03; 1.07]). There was no evidence of publication bias among the studies (Egger's test: $p = 0.79$).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a diet that emits a lot of GHGs increases mortality from diseases.

- 이해상충여부 :

없음

- Acknowledgement :



- 국문 제목 :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 발생률과 위험요인

- 영문 제목 :

Incidence rate and risk factors for disability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midlife and elderly people

- 저 자 :

김진형¹⁾, 신영전²⁾

- 소 속 :

1)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초록 내용 :

배경: 노년기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는 독립성과 삶의 질 저하, 사망 위험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는 시기를 파악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성별 및 연령대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발생률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중·고령자의 장애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6년-201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6년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가 없는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 7,58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고령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 발생률(1,000인년 당)을 추정하였다. 장애가 발생한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생명표 분석을 통해 연령 구간별 발생률을 산출하고 성별에 따른 생존곡선을 확인하였으며, 장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Cox 비례위험모형을 실시하여 위험비(Hazard ratio)를 제시하였다.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의 성별에 따른 발생 연령별 발생률은 85세 이전까지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장애가 빠르게 발생하고 발생률이 높았으나, 85세 이후에는 여성의 발생률이 높았다.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위험요인은 중년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규칙적 운동 안함, 전기노인에서 외상 경험 없음, 장애판정 받음, 후기노인에서 시력제한 있음, 여성의 공통 위험요인은 치매의심인 경우, 독립요인은 중년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과 나쁨, 장애 판정 받음, 전기노인에서 만성질환 수가 2개, 후기노인에서 독거 아님, 우울증 경험 없음, 현재 흡연함, 현재 음주 안함으로 나타났다. 고찰 및 결론: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발생률은 85세를 기점으로 남성은 45-85세, 여성은 85세 이후에 장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85세 전·후 성별에 따라 개입 전략이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장애 발생 위험요인은 성별,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공통 요인 뿐만 아니라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장애 예방 및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이해상충여부 :

None

- Acknowledgement :